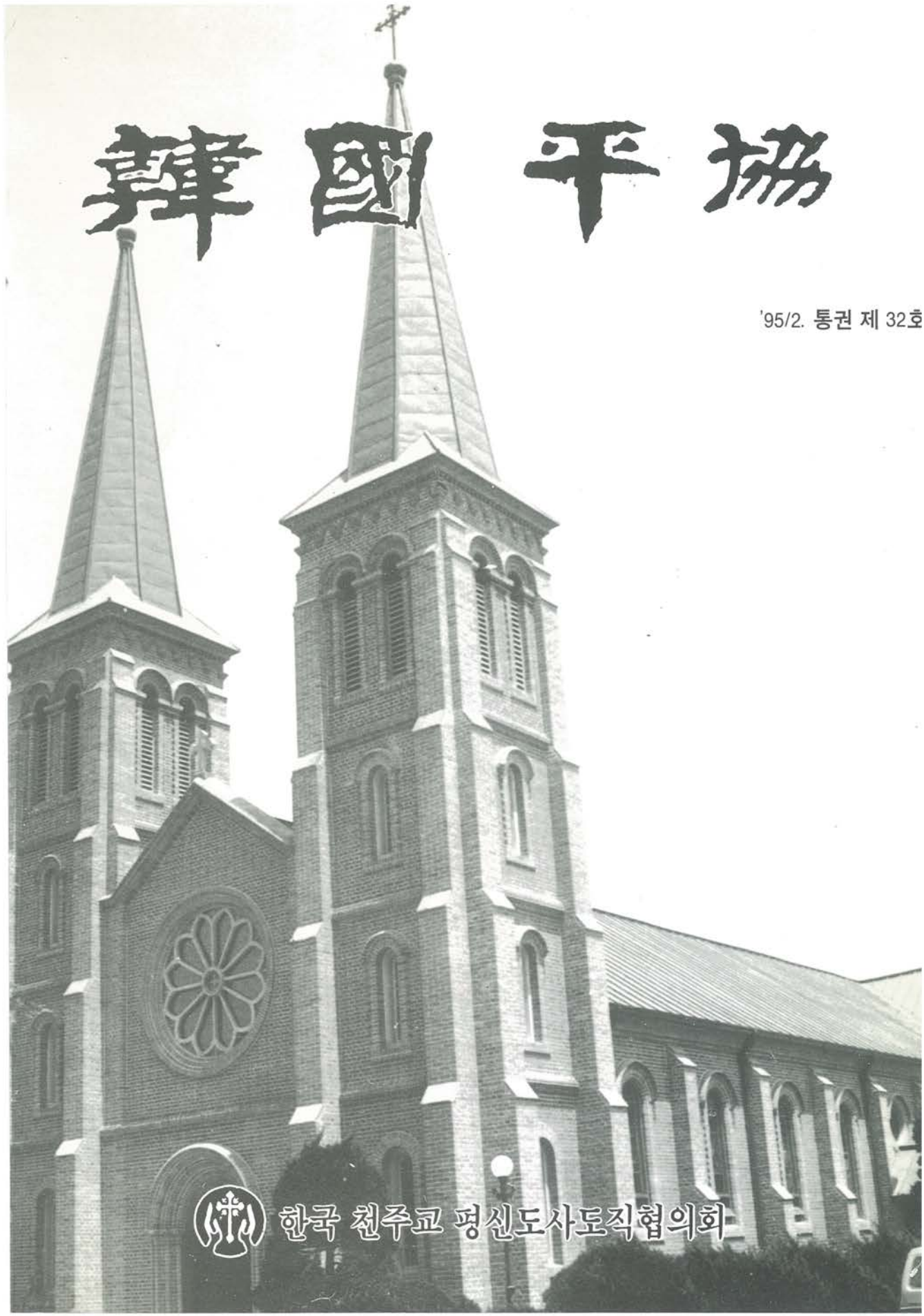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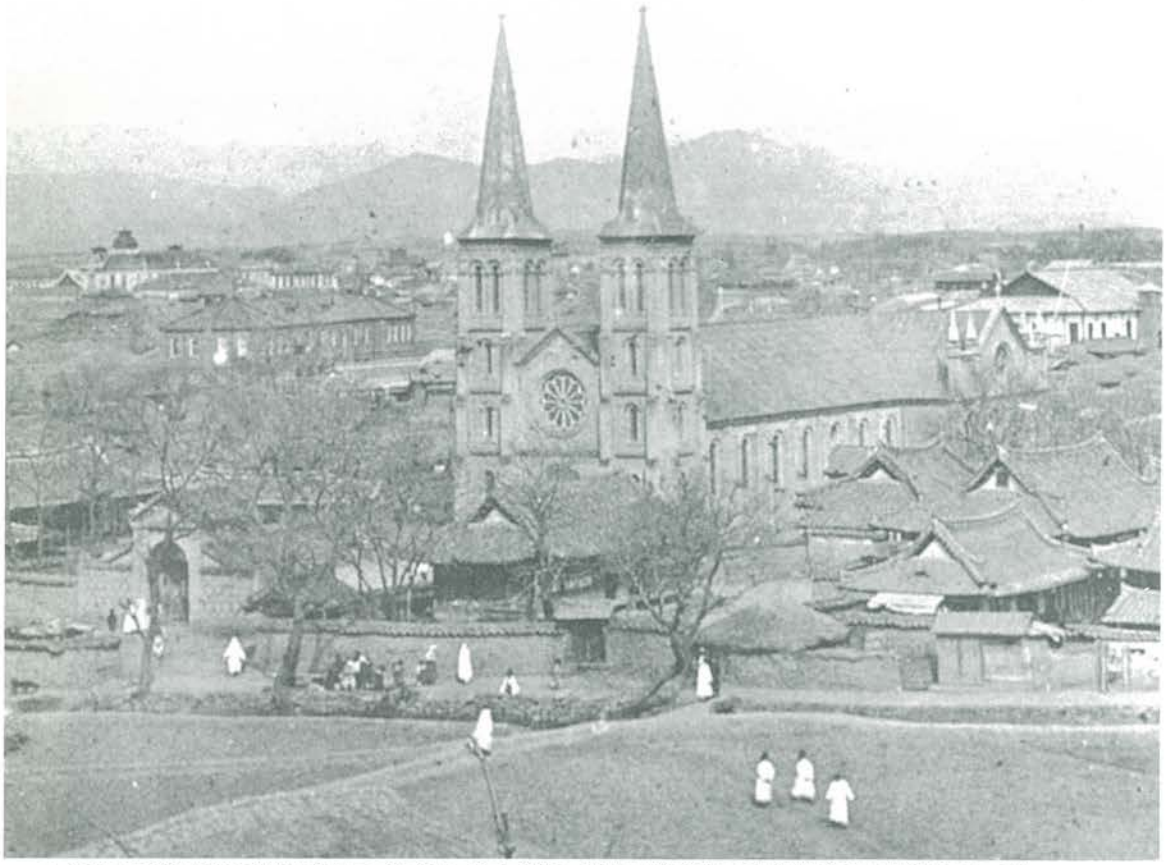
韓國平協

'95/2. 통권 제 32호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위의 사진은 1910년대의 계산동 성당과 그 부근이다. 대문 남쪽 첫번째 기와집은 해성재(海星齋)로서 안중근의사가 이곳에서 강연을 하기로 했다.

〈표지 설명〉

대구 대교구 주교좌 계산동 성당.
1886년 로베르 신부가 경상도 지방 전교를 담당한 이후
1899년 한국식 목조 성당을 지었다가 1년도 못되 불에 타고말어
1902년 5월에 새성당을 짓고 준공한 것이
2개의 종각이 우뚝 솟은 계산동 성당이 되었다.
그 뒤 1911년 서울교구로부터 분리, 대구교구로 설정되어
주교좌 성당으로 승격, 오늘에 이른다.
처음 성당 대지를 물색할 때 동산의 구릉지를 내정했으나
몇몇 신도들의 반대로 낮은 지대에 성당을 짓게 됐는데
개신교가 그 동산을 사들여 공사를 착수할 때는 크게 후회하기도 했다.

韓國平協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어느 庭園師의 고백

김 수 자 아가다
시인, 방배동 천주교회

주님 저는 품삯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애당초 제가 주님의 果園에 품꾼으로 자청 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명민치도 못하고 손끝이 야무지지도 못하면서
이 果園의 다른 園丁들은 참으로 열심입니다.
어쩌면 그리도 부지런하고 성실한지요.
벌레먹어 썩은 가지 병들어 시든 가지
오래되어 묵은 가지들을 제때 제때 잘도 쳐 줍디다.
그런데 왜 제게 보이는 나무들은 모두 다 멀쩡하고 멋있고 실해보일까요.
아까워서 한 가지도 쳐내지 못했습니다.
틀실한 나무만이 탐스럽고 좋은 열매를 맺으니
때 맞추어 가지치기를 잘 해 주라시던 말씀 귓전으로 흘려놓고,
허욕과 허울만 쫓으며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그런 제가 어찌 감히 품삯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신 주님 긍휼하심으로 굳이 품삯을 주신다면 지혜로운 慧眼을 주십시오.
허영과 교만과 거짓의 잔 가지들을 모두 잘라 내겠습니다.
사랑의 꽃 희망의 꽃 평화의 꽃이 만발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열리는 나무를 키워 보겠습니다.
품삯을 받는 손이 부끄럽지 않고 싶습니다.

평협 회보

목 차

책머리에
사도직 활동에 유익한 회보되기를 ……이관진 베드로 4

목자의 가르침
사회교리와 평신도 사도직 ……최창무 주교 5

세계 평화의날 교황 담화
여성, 평화를 가르치는 교사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8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 6차 총회 폐막메시지
가정은 생명의 성소입니다 …… 11

전국 각 교구장 사목교서
교회의 본 모습 제 역할 찾기 …… 13

생활 말씀 ……끼아라 루빅 28

아시아 평신도 회의 특집…… 31

평협의 소리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 착한이에게 평화…… 79

여성
사랑과 평화의 도구 ……강계순 크리스티나 81

청소년
청소년과 교회의 역할 ……이창훈 기자 83

양떼의 소리
교회와 홍보 ……김송현 세베리노 86

천주교를 말한다
사랑의 더운 가슴에 역동적인 전도의 맥박을 ……오경자 88
천주교를 넘나든 20년의 세월 ……박청수 교무 91

'95/2 통권 제 32호

평협소식

한국평협 소식 …… 93
교구평협 소식 …… 105
단체소식 …… 114
오늘의 해외 한인 교회 …… 116

평신도의 날 특집

3백만 평신도 깨어나야 한다 …… 119
병신도 그리스도인은 안된다 …… 이윤자 루치아 128
평신도의 날과 넥타이 …… 최헌 베드로 130
인류의 희망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 133

살며 생각하며

주님과의 약속 …… 봉두완 다위 137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 …… 류덕희 모세 140
어느 나그네의 넋두리 …… 강주희 요힌 142

꽁트

섣달 그믐밤 …… 송원희 마리아 144

이땅의 성인들

신유박해 때 네분 선교사들의 영원한 삶 …… 최홍준 파비아노 147

평협임원, 회장, 단체장 주소록 …… 160

사도직 활동에 유익한 '會報'되기를

이관진 베드로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회장

지난해 94년 전국평협 정기총회 때 창간호나 다름없는 〈韓國平協〉 회보를 내놓고 1년만에 다시 이 책자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평협은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본당, 단체간, 또는 교구, 단체간의 협의 기구입니다. 우리 전국평협의 경우는 전국 15개 교구와 24개 전국 규모 단체들의 사도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이러한 교유의 평협 기능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회원 서로간의 의사가 잘 소통되어야 할 줄 압니다.

전국평협은 1년에 한번씩 여는 정기총회 외에 두달에 한번 꼴로 상임위원회의를 각 지역을 돌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일정에 모이는 수도 한정되 있어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을 이와같은 회보에서 수렴하자는 취지에서 〈한국평협〉을 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 회보가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집행부서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만 여러 교구 평협과 단체 회장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번호에는 서울대교구 사회사목 담당 최창무 주교님의 '사회교리'에 관한 옥고를 실었습니다. 전국평협이 지난 9월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아시아 평신도회의가 다룬 주제가 바로 '사회교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참으로 절실한 것이 우리 평신도들의 사회교리 실천이 아닐까 해서 최주교님께 이 귀중한 글을 청탁해 실었습니다. 좋은 가르침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호에는 또한 작년 아시아 평신도 회의에 보내 주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메시지를 비롯해서 교황청 평신도 위원회 위원장 에두아르도 피로니오 추기경의 기조강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께서 보내신 사람들'과 '아시아 평신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등 중요한 기록들을 실었습니다. 아시아 평신도 회의 보고서를 정식으로 간행하기 전에라도 이 회의의 내용을 널리 알려 드리겠다는 점에서 아시아 회의 특집을 마련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우리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유익한 것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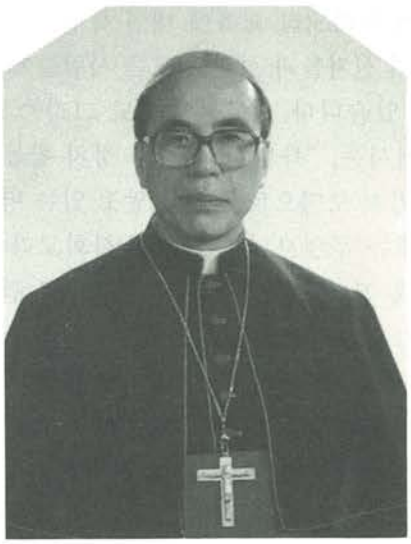
사회교리와 평신도 사도직

최 창 무 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 담당

한국 천주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계 교회사 속에서도 우리 한국 평신도들은 평신도 사도직의 자랑스런 전통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복 50주년이요 동시에 분단 50년이기도 한 올해, 우리 교회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사목적 노력을 더 한층 기울여야 할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21세기가 오기 전에 통일과 화합이, 갈라진 겨레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박한 희망과 이것이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우리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화합과 통일은 정치적 국토 통일 이전의 사명이며 아울러 국가적이고 정치적 통일을 이룬 후에도 완성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국민의 일원으로서의 임무만이 아니고 특히 신앙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해야 할 우선적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휴전선 이북 지역에 형성되어 있었던 북한 지역 가톨릭 교회를 복구해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가 민족 사회를 복음화시켜야 한다는 본연의 사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복음적이고 비인간적인 사회의 풍조들, 부정부패를 초래하고 있는 불의한 구조 등 화합과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개인이나 집단들의 죄의 뿌리인 권력욕과 재물에 대한 욕심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사회 생활을 분리시키고 있는 대부분 평신도들의 의식과 사회교리를 교육받기 어려운 현실도 타파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지난 9월에 열렸던 '아시아 평신도 회의'는 참으로 시의적절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의는 대륙별로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린 회의로서 '평신도의 사회교리 실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뜻깊은 회의를 주관하신 피로니오 추기경께서는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 평신도 사도직을 활성화시키고 가톨릭 교회의 사회 복음화 노력을 가속화시켰던 1968년 메델린 회의와 1979년 푸에블라 회의를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 의장으로서 주관하셨던 분이라서, 분명히 그분의 의도는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가 아시아 여러 교회들에게 사회 복음화의 모범이 되고 또한 한국 가톨릭 교회의 평신도들

이 사도직 활동을 통해 이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바가 아닌가 짐작해봅니다. 물론, 피로니오 추기경의 이러한 관심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관심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피로니오 추기경께서도 확인하셨다시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이미 세 회칙을 통하여 사회교리 교육에 대한 특별한 당부를 온 교회 신자들과 선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바 있습니다. 우선 「평신도 그리스도인」 회칙에서는, "특별히 사회와 정치 활동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평신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사회교리에 대한 더욱 더 정확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60항)고 가르치셨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가톨릭 교회로 입교하고 있으며 활발한 사도직 활동으로 인해 우리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이즈음, 우리 사회의 인간적 발전과 복음화에 대한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도 사회교리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회적 관심」 회칙에서는, "교회의 사회교리는 이데올로기의 영역이 아니라 신학의 영역에 특히 윤리신학의 영역에 속한다. 사회교리를 널리 가르치고 널리 펴는 일은 교회 편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의 일부가 된다"(41항)고 가르치셨습니다. 「백주년」회칙에서도 "나는 사회교리를 배우고 연구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든 이에게 감사하고 싶다. 나는 백주년 기념이 사회교리를 여러 분야에서 연구하고 보급하고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열정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즉, 사회교리를 널리 가르치고 보급하는 일은 사회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뿐 아니라 교회 자신의 복음 선포 사명에 비추어 볼 때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회교리를 평신도들에게 교육하고 보급하는 일은 현 교황께서만 강조하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요한 23세 교황께서도 1961년에 반포하신 「어머니와 스승」 회칙에서 "사회교리는 그리스도교적 인생관에서 뗄 수 없는 요소"(222항)이며, "모든 종류의 가톨릭 학교에서 정규 학과로서 가르쳐지도록 확대되기를 시급히 권장하고 싶다. 또한 각 본당이나 평신도 사도직 회합의 종교 교육 계획에도 사회교리 교육이 들어가야 할 것"(223항)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듯 사회교리를 교육하고 보급하는 일에 있어서는 "평신도들이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이 사회교리를 알고 그들의 활동을 이와 합치시킴으로써,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이해시키려는 열렬한 노력을 함으로써 공헌할 수 있을 것"(224항)이라고 강조하시고, "평신도들은 확신을 가지고, 사회교리만이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회교리의 진리성과 유용성을 드러내기에 노력해야 할 것"(225항)이며 "가톨릭 교회의 평신도들이 다만 이 사회교리를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거기에 따라서 교육받는 일이 지극히 중요한 일"(227항)이라고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역대 교황들의 사회적 관심은 최초의 사회회칙인 「노동 헌장」이 반포된 이래 사도좌의 빛나는 공헌이지만, 사회 복음화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노력은 사회회칙이 반포된 백여 년의 역사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초창기부터 교회는 주님의 계명에 따라,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마르 16,15)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세워진 그리스도 교회의 사회적 관심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복음적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해 3월부터 서울대교구에서는 기존의 사목부서에서 사회사목부를 독립시킴으로써 '사회사목'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사회사목의 대표격이라 할 사회복지 분야를 포함하여 재소자들과 출소자들, 교정 행정에 봉사하고 있는 분들의 사목을 담당하는 교도 사목 분야, 노동자들을 담당하는 노동 사목 분야, 도시의 가난한 이들을 담당하는 빈민 사목 분야, 「민족들의 발전」 회칙에서 교황 바오로 6세께서 전세계 모든 교회에 설립하도록 촉구하심으로써 설립된 정의평화위원회와 지난 1989년 세계 성체 대회 이래 성찬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한마음 한몸운동 등이 속해 있습니다. 이 각 부서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해당 분야에서 사목적인 노력을 해 온 터이지만 이제 사회사목부 안으로 통합되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셈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국 모든 교구의 유사한 사목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전국의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과 협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회사목 분야의 사목적 실천을 심화시키고 확대하기 위하여 역대 교황들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대로, 금년부터는 사회교리 교육을 실시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본당과 각급 교회 기관에서도 사회교리 교육을 실시하여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널리 펼 수 있도록 표준 교리서를 발간함으로써 도움을 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라도 저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리 교육은 초교구적으로 연합하여 추진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목적 과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사회교리 교육에 너무나 등한시 해왔습니다. 지난 '아시아 평신도 회의'에서 한국측 보고자가 지적한 대로, "대부분의 신자들에겐 시대적 상황에 따라 반포되는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88년 교회의 한 기관이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약 80%에 이르는 응답자들이 교황님들의 교서나 회칙, 권고, 서한 등을 포함 각종 교회 문헌들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현상들은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대한 열악한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회교리를 통한 응답은 시대적 소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서 사회교리를 배우고 알리며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교회와 사회 속에서 평신도 사도직을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가정에 새해에 풍성한 하느님의 축복이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여성, 평화를 가르치는 교사들"

1995년 1월 1일 제28차 평화의 날을 맞이하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께서는 담화를 발표하셨다. 다음은 교황 성하의 신년사라 할 이 담화를 발췌, 정리한 것이다.

1. 1995년 정초에, 지금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천년기(千年期)를 바라보며, 저는 선의를 지닌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세계 평화를 위한 절박한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많은 개인과 민족들이 거듭하여 겪어 온 폭력, 세계 도처에서 여전히 피를 부르고 있는 전쟁, 그리고 모든 대륙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불의는 이제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습니다.

말에서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개별 시민과 가정, 신앙인과 교회, 국가와 국제 기구들은 모두 평화 추구에 대한 그들의 투신을 새롭게 하도록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인간 존엄이 사회의 모든 차원에서 증진되고 이 존엄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는 가능합니다. "모든 인간 사회는, 질서 있고 풍요로운 공동 생활을 위해서, 모든 인간이 인격을 갖고 있다는 원리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즉, 인간은 지성과 자유 의지를 갖고 있고, 인간 본성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 주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권리와 의무는 보편적이며, 불가침적이고,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지상의 평화, 8-9항).

여성과 평화 교육

2. 저는 올해 세계 평화의 날 담화를 특별히 여성들에게 전하며, 그들의 전존재를 걸고 모든 행동에서 평화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되도록 권유하고자 합니다. 여성이 개인간 세대간의 관계에서, 가정 안에서, 민족의 문화, 사회, 정치 생활에서, 특별히 분쟁과 전쟁의 상황 속에서 평화의 증인이 되고, 평화의 사자와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기있고 현명한 수많은 여성이 그전에 걸어갔던 길, 평화에 이르는 그 길을 따라 끊임없이 걸어나가십시오!

사랑의 친교 안에서

3. 평화의 교사들이 되라고 특별히 여성들에게 당부하는 이러한 권유는 하느님께서 여성들에게 "인간을 특별한 방법으로 맡기셨다"는 깨달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배타적인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공동 소명에 들어 있는 보완 역할의 논리에 따라 이해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서로를 위하여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 말은 하느님께서 그들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서로 인격적으로 일치하도록 만드셨으며, 이 일치 안에서 각자는 상대를 위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으로는 동등하면서(내 뼈에서 나온 뼈 ……) 동시에 남성과 여성으로서 서로에게 보완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호성과 보완성은 인간 부부의 두 가지 근본 특성

입니다.

4. 슬프게도, 죄의 오랜 역사는 부부를 위한, 남성과 여성을 위한 하느님의 원초적인 계획을 어지럽혀 왔고 계속하여 어지럽히고 있으며, 그 완전한 성취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원초적인 계획으로 되돌아가 이 계획을 힘차게 선포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럼으로써 특별히 그 성취의 실패로 고통을 받아온 여인들이 마침내 그들의 여성과 존엄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이룩하는 일은 인격체로서 여성의 존엄에 대한 인정과 증진의 요구를 결코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여성은 평화 교육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이 지닌 역할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성찰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촉구하며, 또 여성들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는 평화의 열망, 처참한 비극 속에서 침묵의 웅변으로 드러내는 평화의 열망을 마음 깊이 새기도록 촉구합니다.

평화의 여성들

5. 평화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 위하여, 여성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 안에서 평화를 키워야만 합니다. 내적인 평화는 하느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에서 나오고,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여성들은 특별히 사회적 문화적 여건으로 인해 그들의 존엄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성들은 여자를 단순히 환락의 대상으로 여기고 주저없이 여자들과 어린 소녀마저 착취하여 비열한 장사를 하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풍조에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여성을 도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단체 운동과 집단, 많은 수도 단체들이 기여해 왔던 귀중하고도 효율적인 공헌에서 그러한 도움을 찾아야 합니다.

6. 자녀들을 기르면서, 어머니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녀는 부모 모두의 현존과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부모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의 영향을 통하여 교육자로서 그들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배우자 사이의 훌륭한 관계가 자녀들에게 심대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며, 자녀들이 주변 환경과 관계를 맺는 방식과 평생 동안 펼쳐나갈 다른 관계들을 크게 결정하여 줍니다.

평화의 길을 가르치는 교육은 당연히 성장 발전의 모든 단계에 걸쳐 계속됩니다. 특별히 유년기에서 성년기로 접어드는 길목은 인생에서 결정적인 선택을 하여야 할 젊은이들에게 어떤 위기가 닥치기 마련이어서, 청소년기의 어려운 때에는 따뜻한 격려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교육의 과업을 앞두고 가정은 "사회 생활을 위한 최초의 기본적인 학교" 평화를 가르치는 최초의 기본적인 평화 학교가 됩니다.

가정에서 그 내부의 균형이 훼손되고 심지어 파괴되는 심각한 위기를 겪을 때에 일어나는 비극적인 귀결을 상상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흔히, 이러한 상황에서, 여인들이 홀로 버림을 받습니다. 바로 그럴 때 그 여인들에게는 다른 가정들과 종교 공동체들과 자원 봉사자 집단들의 실천적인 연대 의식에서 이루어지는 도움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필수불가결한 현존을 부당하게 박탈당하

지 않고도 자녀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인간적 사회적 경제적 지원 구조를 통하여 국가와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8.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맨처음부터 여자가 무시당하고 열등한 인간으로 간주된다면, 그들의 존엄에 대한 의식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또 그들의 건전한 발전도 불가피하게 손상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차별은 평생 동안 영향을 끼쳐 여자의 완전한 사회 생활 참여를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사회에서 평화를 가르치는 여성들

9. 지역적 전국적 국제적 차원의 사회 경제 정치 생활에서 증대되고 있는 여성의 현존은 매우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여성은 모든 영역의 공공 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이 권리는 또한 필요하다면 적절한 입법 조치를 통하여 확인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회의 행복과 진보에 대한 여성의 공헌은, 그 중요성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지만,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이 극히 중대한 현실을 인정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한층 더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할 것입니다.

10. 우리는 사회에서 전쟁의 비극만이 아니라 바로 수태의 순간부터 모든 인간이 누리는 명백한 생명권에 대한 침해를 비롯, 온갖 인권 침해를 추방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침해는 전쟁이라는 극도의 폭력을 낳는 씨앗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저는 모든 여성들이 언제나 생명의 편에 서도록 호소합니다. 또한 동시에 저는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과 특히 어린이들을 도와주고, 전쟁통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상처로 찢긴 그 사람들을 각별히 도와주도록 촉구합니다.

11. 여성들은 그들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남자와 여자 곧 모든 인간의 존엄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1995년을 위해 계획된 많은 국제 활동들, 그 일부는 국제연합(UN)의 후원으로 북경에서 열리게 될 평등과 발전과 평화에 관한 여성대회처럼 특별히 여성을 위하여 계획된 활동들이 모든 인간 관계와 사회 관계를 평화의 기치 아래서 더 더욱 인간답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마리아, 평화의 전형

12. 생명에 봉사하며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신해 온 저 사람들을 지켜 주십사고 저는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마리아께 간청합니다. 마리아의 도움으로, 그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어둠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며 정의에 주리고 목말라하는 사람들 앞에서, 평화의 하느님 그 사랑하시는 현존에 대한 증거를 보여 주게 되기를 빕니다!

1994년 12월 8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가정은 생명의 성소입니다

-젊은이들은 교회 사회의 희망-

주님 안에서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FABC 제6차 총회를 위해 마닐라에 모였습니다. 25년전, 바로 이 도시에서 교황 바오로 6세의 방문에서 영감을 받아 아시아 주교들은 아시아 교회의 친교를 위한 기구를 설립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FABC입니다. 이제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과 함께 우리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제10차 세계 청소년대회 참석차 오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영감에 의해 축복받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생명에 봉사하는 사도가 되도록 고무합니다.

우리는 타종교인들과 함께 충만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아시아의 모든 이들과 함께 하고 그 길에 헌신적으로 봉사합니다.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이 여행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생명(골로사이 3,4)이라는 거룩한 믿음을 통해 독특하게 기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는 생명의 성령을 주는 물의 샘(요한 7,38), 생명의 빵(요한 6,41)이고 생명 그 자체(요한 11,25:14,6)입니다. 예수는 성부의 끝없는 생명을 살아가며 계속해서 생명의 성령을 이 땅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 보냅니다.

우리는 모두 사도들입니다. 우리는 새롭고 창조적이며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열렬하고 사랑에 가득차서, 목마름을 채워주고 충만한 생명에 굶주린 이들을 배불리시는 예수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적으로, 열성과 용기에 가득차서 우리 아시아를 죽음의 상황으로 만드는 현실에 대항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강화하는 것들을 재확인하고 증진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의 주요한 관심사들에 대해 특별한 방법으로 사목적 관심을 쏟을 것입니다.

1. 아시아 가족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생명과 반가족적인 태도와 가치관, 정책과 그 실행들은 아시아 가족들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주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질적이고 소비주의적인 생활양식이 진정으로 인간적인 가치를 가정 안에서 파괴하고 있으며 안락사와 낙태, 불임수술과 피임, 성의 결정과 유전자 조작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신법을 따라 교회가 가르친 대로 가정을 생명의 성소로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합니다.

여성 · 환경파괴 · 난민문제에 관심을

2. 여성과 어린이들은 종종 차별, 학대와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자 어린이들의 고통은 특히 여러 나라에서 충격적으로 나타납니다. 남자어린이들 역시 노동현장이나 여행산업등의 분야에서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느 곳에서나 하느님께 속한 존재로 간주돼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정신과 관행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젊은이들은 거대한 아시아 대륙에서 다

수를 차지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반복해서 젊은이들이 교회와 사회의 희망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들은 적극적인 복음선포자이자 사회변화의 대행자가 될 수 있는 열성, 이상과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사목적인 우선순위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아시아에서 생태학은 더 이상 사목적 관심의 제외대상이 돼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환경에 대한 더 이상의 파괴를 막고 지구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돌봄으로써 세계와 인류를 구하기 위해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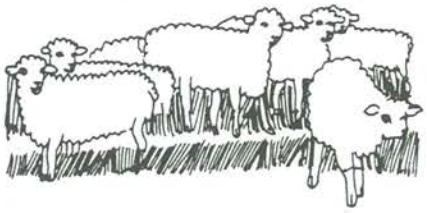
5. 난민(Displaced Persons)들은 비교적 새롭게 나타난 아시아의 가난한 이들의 집단입니다. 이들은 국내 및 국외로 생명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떠돌아다니는 난민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러한 상황이 야기된 원인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수호하고 증진시켜주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사목적 관심과 보살핌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있어 평신도들은 집과 직장에서 복음과 사회교리를 증거함으로써 지도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그들은 변화의 일꾼이자 생명의 수호자로서 힘있게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친이시며 모든 사도들의 모범이신 마리아가 생명에로 나아가는 우리 여행의 동방자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샘(시편 36,10)인 예수가 아시아의 우리에게 충만한 생명에 대한 갈증을 채워주는 생명의 물(요한 7,38), 성령을 내려주시길 빕니다.

-FABC 제6차 총회 참석자 일동, 필리핀 마닐라, 1995년 1월18일.-



교회의 본 모습 제 역할 찾기

전국 각 교구 교구장들은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지난해 11월 27일 대림 제1주일을 기해 1995년도 사목교서를 발표하고 한 해 동안 교구민들이 중점으로 실천해야 할 사목 지침을 제시했다. 교구장의 사목교서는 곧 그 교구의 올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들을 취합해 보면 올해 한국 교회의 방향을 알아볼 수 있는 훌륭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음은 교구장이 공석이었던 춘전교구를 제외한 14개 교구장의 1995년도 사목교서를 발췌·정리한 것이다.

2000년대 복음화의 2단계

서울대교구 김수환 추기경

2000년대 복음화 장기 사목계획의 1단계(1992~94년) 3년을 마치고 95년도부터 2단계를 시작합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왜 새삼 복음화를 말하는가. 복음화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복음화의 길은 저만의 결정이 아니라 근래 교황께서 누차 강조하셨던 보편 교회 전체의 사목 지표이기도 합니다. 사목직 수행의 방향을 본당이라는 행정적 구조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느님 백성의 실생활과 복음이 교차하는 삶의 현장 안으로 확장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교회

"어떤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고장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거기에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마태 10, 11). 복음화의 시작은 사람이 머무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안을 근거지로 하여 이웃의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바오로 사도에게도 교회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한 집에 모여 일치와 친교를 이루는 신도들 모임 자체였습니다. 우리 교회사와 순교사의 초대 교인들도 대부분 한 집안에 모여 교리를 배우고 집안 단위로 신앙을 전수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고하고 강력한 복음화의 현장이요 모태였습니다.

소공동체를 향한 교구 사목 지표

오늘 한국 교회에서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각 본당의 세포 하나하나가 활성화되려면 '집안'을 근거로 한 소공동체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제 복음화의 제2단계를 시작하는 1995년을 소공동체들로 이루어지는 새 교회상 확립의 기간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사목자들

은 신자 개개인까지 소공동체 건설의 의미와 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있는 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본당 사목협의회를 새 교회상에 비추어 '소공동체들이 모인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①1994년도 사목 지침 세부 계획을 계속 추진하며, 지난 3년간의 복음화 과정을 평가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세운다.

②본당 사목 조직을 2000년대 복음화에 알맞는 새로운 본당상으로 개편해 나간다.

③사목자들은 전신자들이 소공동체 건설의 의미와 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④소공동체들이 예비자 교육과 청소년 교육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선교와 가정

대전교구 경갑룡 주교

이제 앞으로 5년 후면 한 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교황께서는 일찍부터 여러 차례 2000년대를 '새로운 복음화'의 신기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한편 우리 교구는 1998년이면 교구 설정 40주년을 맞게 됩니다. 저는 2000년대를 앞두고 교황님의 호소와 교구 설정 4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앞에 놓고, 올해부터 5년 동안을 신학교 건립과 비견할 만한 큰일에 교구민의 힘을 모아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교구민 모두가 참으로 내적으로 회개하고 쇄신하여 복음화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하느님의 현존과 구원의 보편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래 사명이고 존재 이유 자체인 선교 활동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생동감 넘치는 교구 공동체로 일신하는 것입니다.

그 첫해 사목 지표를 '선교와 가정'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4개 중점 사업을 제시합니다.

본격적인 교세 배가 운동 전개

1993년말 우리 교구 신자 총수는 154,608명이고, 교구 내 인구 대비는 5.1%입니다. 우리 교구는 전국 최하위입니다. 탓을 누구에게 돌리기에 앞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선교 사명을 깨닫고 실천적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선교 활동에 집중시켜 2000년에는 우리 교구의 인구 대 신자 비율을 전국 비율과 같게 해보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건강한 가정 공동체 건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몹시 병들고 있는데 바로 가정이 병들고 있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는 우리이기에 가정 건강과 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사

목자들도 가정을 병들게 하는 핵심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직시해야 하며, 용기를 갖고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선도와 교육에 더 큰 관심을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미래의 주역들인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청소년을 포기하는 것은 교회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사목자들이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목 우선 순위에서 높은 비중을 청소년에게 두어야 합니다. 투자도 과감하게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지혜도 모아야 합니다.

각종 사회 복지 사업의 활성화

마음의 상처와 육체적 고통에 신음하는 이웃을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구의 가장 큰 사업이 될 중증 박약자 수용 시설인 '성모의 마을'이 개설됩니다. 많은 자원 봉사자와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미혼모를 위한 시설도 절실합니다. 우리 교구 내 한 마음 한 몸 운동 정신이 더욱 확대되어 우리 교구의 모든 사회 복지 시설들이 우리의 외면과 무관심으로 상처받고 곤란을 겪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화하는 본당 공동체—소공동체의 복음화

인천교구 나길모 주교

우리 교구는 작년에는 '복음화하는 가정 공동체'로 정하여 가정의 복음화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부터 향후 3년 동안은 '복음화하는 본당 공동체'로 정하고 소공동체들의 공동체인 본당을 만들어 하느님 나라에 봉사하는 교회상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998년에는 2000년대를 맞기 위한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두스)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3년 동안 이 목표를 향해 매진하면서 그 첫해인 금년은 본당의 소공동체들인 '반모임'들을 복음적인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주력할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잘 정비된 조직이나 제도도 없었고 많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집집마다 돌아가며 모였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가진 것을 나누며 기도로 한 마음 한 뜻이 된 작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인천교구 역시 놀라운 외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교회의 내적 공동화(空洞化)를 초래하여 냉담자와 행방 불명자의 수를 많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된 복음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규모의 공동체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상황이 교회로 하여금 더 이상 '본당'이라는 기존의 제도적 구조에

만 안주할 수 없고 인격적인 만남과 온전한 나눔이 실현되는 친교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본당마다 구역 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사목적으로 없어서는 안될 훌륭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이 모임들이 복음적인 공동체라고 부르기는 아직 여러 가지면에서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비복음적인 소공동체들을 복음화하는 일. 즉 복음화된 소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금년은 신학교 건립의 2년차 해입니다. 1996년 개교를 목표로 금년에도 성소자 계발에 노력하면서 신학교 건립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교구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함께 더 큰 정성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1) 가정에서는 복음나누기를 주 1회 이상 실천하고, 성서 갖고 다니기를 실천합시다.
2) 소공동체 모임이 월 1회 이상 이루어지고, 본당 모든 회합은 복음나누기로 시작합시다.
3) 소공동체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본당 사목 계획을 수립하고, 모범 소공동체를 건설합시다.
4) 신학교 건립과 성소자 계발에 힘씁시다.

복음화의 해 : 셋째 해—이웃 민족들의 복음화

수원교구 김남수 주교

복음화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복음화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제는 성숙한 교회로서 이웃 민족들의 복음화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세계도 때맞추어 많은 변화를 일으켰고, 넓게 열려 오는 중국과 러시아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지워졌습니다.

이웃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복음화를 완성하는 길도 바로 이웃을 복음화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989년 한국을 방문하신 교황성하께서도 아시아의 복음화는 젊은 한국 교회의 사명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시아 지역 민족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년 전에 중국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이제는 우리가 중국에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책임을 느낍니다. 특히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길림 교구는 우리의 일차 선교 대상 지역이기에 지난해에 수원과 길림, 양 교구장 사이에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없는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화되지 않고서는 이웃 민족의 복음화도 인류의 복음화도 우리의 몫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 선포야말로 이웃 사랑의 극치입니다. 이웃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상 행복을 알려 주고 하느님의 자녀 되게 해주는 것이 훨씬 완전한 사랑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인다면 세계 평화는 자동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투쟁으로 빼앗아 하나가 부유해진다면 다른 하나는 빼앗기고 빈곤해지지만, 사랑으로 나누어

준다면 둘다 부유해집니다. 전쟁의 인류 역사를 평화의 새 시대로 변화시키려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의 선교 열성'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초기 선교 열성의 바탕에는 초기 신자들과 공동체들의 성덕이 깔려 있었기에 순식간에 전세계로 전파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웃 민족들을 복음화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더욱 깊이 복음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가르치는 교회

원주교구 김지석 주교

복음화의 해 세번째인 "가르치는 교회의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복음화되는 교회의 해" "복음화하는 교회의 해"를 보내면서 복음화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깨닫고 복음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난 94년에는 가정의 복음화에 역점을 두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왔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사상 유례없는 사건들이 발생, 국민을 불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무언가 참다운 진리와 양심을 가르칠 스승이 없는 오늘의 이 혼란한 세상에 우리 교회는 과감히 가르치는 직무의 중요성을 드높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비자 교리나 교회의 강론대에서 가르치는 설교의 차원을 뛰어넘어 말과 행동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주는 증거의 삶을 말합니다.

가르침(교육)의 의미

가르치다, 교육하다(educare)는 말은 '밖으로 끌어내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본래 지니고 있는 선성을 개발, 그 사람이 참으로 인간답게 복음적으로 하느님과 인간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주는 고귀한 일인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 교육

이 가르침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부부가 말과 행동으로 보여 주고 가르치는 것을 그 자녀들은 처음으로 자기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삶의 첫번째 교사로서, 사물 하나하나 안에서 하느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닫게 해주는 부모의 가르침과 더불어 자녀들은 성장해 갑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며 전례에 참여하고 서로 마음을 모아 하느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 가정이야말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사는, 가르치는 교회가 됩니다.

본당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 교육

하느님 백성의 모임인 교회가 정체된 상태로 있다는 것은 가르침이 없고 배우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당이 쇄신되기 위해서는 본당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각종 교육이나 피정 등

신앙 쇄신의 기회를 통해서 늘 새로운 변화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구처럼 농어촌, 광산촌, 중소 도시 등 다양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는 사람을 한데 모으는 것이 힘들고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층별로 또 효과적으로, 몇몇 본당이 어울려, 그리고 각종 단체들을 통해 교육이나 피정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회를 많이 가짐으로써 새롭게 변모될 은총의 시간들을 맞이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복음을

대구대교구 이문희 대주교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특별히 우리 교구는 지난 삼 년 동안 신자 모두가 전교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리스도 신자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초대 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우리 신자들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공동체 운동이 일어났고, 가장 근본이 되는 가정 공동체의 확립이 우리에게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는 것도 모두가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복음화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므로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1995년도의 대구대교구 사목지침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불일치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가정들입니다. 가족들이 남남처럼 살고, 심지어 부부가 갈라지고, 가정이 분산되는 슬픈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약한 것은 또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며 적어도 가정에서 가족들 사이에는 이 사랑이 있어야 하고, 또 사랑으로 희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계속 희생하며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큰 사랑을 우리가 따를 때 우리도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집안에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지 않고 누구에게 먼저 전하겠습니까?

가정 복음화를 위하여 몇 가지 지침을 지킬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①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기릅시다. ②가족이 서로 사랑합시다. ③부부 생활의 의무와 자녀 교육의 책임을 다합시다. ④이웃 가정과 잘 지내고 특히 어려운 가정을 도웁시다. 참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오히려 자기 가정에 사랑이 더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성 쇄신과 사도직의 활성화

부산교구 이갑수 주교

반인간 반생명 사상이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이때 교회는 책임을 느끼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 인격적이고 영성적인 가치들을 되찾기 위해서 현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영성입니다.

영성이란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안에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바오로 사도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 20).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필립 1, 21)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성 쇄신이란 하느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마음을 개방하여, 하느님과 일치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자기의 이기주의에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에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영성 쇄신을 위해서는 첫째, 기도가 뿌리내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숨결이며 한 영혼이 하느님께로 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자세입니다. 둘째, 전례 안에 쇄신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전례는 모든 은총이 흘러 나오는 원천입니다. 평일, 주일의 미사 성제와 그외 전례로 하느님과 형제와의 일치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셋째, 성서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 쇄신을 위한 또 하나 필수적인 것은 하느님의 말씀 곧 성서입니다. 따라서 성서를 대하는 것은 하느님 안에서 그분의 방식대로 하는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넷째, 성사의 은총으로 충만한 삶이어야 합니다. 성사는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총을 전달하는 표지입니다. 신도들은 성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성화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칠성사 중 특히 고해성사는 성령께 마음을 열고 그분의 뜻을 따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정신과 일치하여 성부께 나아가는 삶을 영위하도록 이끕니다. 다섯째, 각종 신심 생활과 피정, 신앙 교육으로 쇄신해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 쇄신은 각종 신심 행사들에 의해서도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현존을 찾는 방법으로서 주기적으로 사회를 떠나 자신의 본 모습과 위치를 기도와 침묵 속에서 반성 수정할 수 있는 피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신도들의 재교육은 영성 쇄신을 위한 교회에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에 부응하여 금년부터 개설되는 평신도 사도직 신앙 학교의 교육과 그외 교구와 본당에서 실시하는 인간 존엄과 하느님 사랑에 대한 신앙 교육 등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적 생활을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역사의 표징을 읽고, 주변의 수많은 비인간적 비신앙적인 상황과 사건들에 대하여 응답하는 예언직과 세상 구원을 위해 나 자신을 봉헌하는 사제직과 모든 이에게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왕직을 수행하는 우리 가정, 사회, 교회에 하느님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하도록 합시다.

가정은 첫 교회

청주교구 정진석 주교

지난 한 해 동안 "말씀을 우리 가정에"란 교구 사목 지표 실천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여러분께 본 주교는 진심으로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그 결과 우리 교구도 10만 신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1995년은 민족 해방과 함께 분단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적어도 우리 남한은 놀라운 경제 발전과 함께 교회의 외적 성장의 풍요를 누리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가족 사이에 대화가 단절된 채 낙태와 살인이 보편화되고 가정 파괴 현상은 전염병처럼 급속도로 번져 가고 있고, 우리 교회 역시도 대형화 현실 속에 사귐, 나눔 그리고 섬김 공동체의 모습을 상실하고 과시적 실적과 능률만을 추구하는 하나의 단체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교회의 존재 의미와 사명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주교는 1995년의 교구 사목 지표를 "가정은 첫 교회"로 설정하고 가정 공동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가정 공동체의 활성화에 구체적 노력을 함께할 것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가정은 모든 공동체의 기본이 되는 기초 공동체입니다. 인간은 가정 공동체 안에서 삶을 시작하고 완성시키고 끝맺음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정 공동체가 모여서 이뤄진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은 사회의 기초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최근 '땅을 살리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음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낙태와 살인 등으로 인간 생명과 가정 공동체는 경시하면서 그냥 자연 살리는 운동만 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자연 보호이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연 살리기 운동은 곧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덕행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회도 교회도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구 공동체의 모두는 첫 교회요 작은 교회인 우리 가정이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공동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합시다.

그 실천 방안으로 가정 교회를 꾸미고, 가족들이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깨달으며, 매일의 실천 사항으로 온 가족이 하루 한끼 식사는 할 수 있도록 합시다. 하루에 한 번은 성서를 읽고,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다음 주일의 복음을 읽고 대화 시간을 가집시다. ME와 효과적인 부모 역할 훈련, 가나 강좌 등 가정 교회를 위한 교육이나 단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가정의 해

마산교구 박정일 주교

우리 마산교구는 지난 2년 동안 '선교하는 가정의 해' '봉사하는 가정의 해'를 지내면서 교구 내 모든 가정이 성가정을 이루고 사회 안에서 신자 가정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금년을 "생명을 보호하는 가정의 해"로 정하고 모든 가정이 생명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기여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때마침 금년은 국제연합이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각종 세계적 행사를 계획하고, 교황께서도 거기에 호응하여 1995년 평화의 날 담화 주제를 '여성과 평화'로 정하시는 등 전세계가 여성문제를 특별히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생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가정 안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 내의 여성 운동뿐 아니라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의의 여성 운동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가정

생명 전수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여성은 남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하느님께서 맡겨 주신 그 신성한 임무를 각별한 사랑과 희생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생명을 키우는 가정

생명을 키우는 부모의 책임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 생명을 키우는 일이고, 둘째는 교육의 임무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완전한 인간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육체적으로 돌보고 인간적으로 교육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첫번째 학교인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과 도덕과 예절 등의 정신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자녀들에게 기본적 도덕 의식을 심어 주고 인간적 성숙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소양을 몸에 지니게 해줄 뿐 아니라, 나아가서 초자연적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적 바탕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가정

그리스도 신자들은 새삼 생명 보호에 대한 사명감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우리 사회 안에 시급히 대대적인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의 문화가 창조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신자 여러분께서 그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주실 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또한 생활 터전인 자연 환경 회복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신자들은 이 생명 운동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생명을 보호하는 가정의 해"를 지내는 동안 교구 내 모든 가정이 다시 한번 생명의 존엄성을 깊이 깨닫고, 생명 보호의 선봉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사랑의 계획이 이땅에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는 가정들이 되어 줄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성령 안에 살아 있는 본당 공동체

안동교구 박석희 주교

올해는 특별히 "성령 안에 살아 있는 본당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시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이유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느님과의 친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느님 말씀

성령께서 맺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인간과 하느님, 인간과 그리스도, 인간과 인간과의 친교는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 생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하느님 말씀인 성서를 자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혼자서 성서를 읽고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함께 모이기 쉬운 사람들이 공동으로 성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생활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첫걸음이 바로 이 성서 읽기와 묵상 그리고 생활 나눔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작은 공동체 활성화

인위적으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스스로 공동체가 생겨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신자들은 어느 단체든 꼭 참여하기로 하며, 각자 자기 단체를 참된 공동체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합시다. 특히 새로이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든지 아니면 본당 내의 어느 한 공동체에 참여토록 인도합시다.

냉담자 인도와 행불자 찾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지체들입니다 냉담자와 행불자들은 이 신비체 안에서 활동을 중지하고 있는 자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냉담한 신자들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다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주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예비자 인도와 선교

성령의 활동은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선교 활동으로 드러납니다. 신앙 공동체의 살아있는 표지는 그 생명력을 외부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되이 우리의 삶을 보여 주고

우리가 아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시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우리는 겨자씨나 누룩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겸손과 사랑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에 자리잡은 우리 안동교구는 이농 현상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바뀌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실의에 빠진 남은 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표지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95년 한 해는 특별히 "성령 안에 살아 있는 본당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힘쓰도록 합시다.

"쇄신은 가정 공동체로부터"

광주대교구 윤공희 대주교

기도하는 가정 : 우리 교구는 지난 한 해 동안 가정 공동체의 쇄신을 통한 공동체의 성장과 사회 복음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은 여전히 정신적 가치와 기쁨을 키워 가는 사랑과 봉사 그리고 생명 존중의 문화보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물질주의 그리고 반생명적 문화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 공동체의 쇄신과 성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공동체적 다짐으로 올해에도 가정 공동체의 쇄신을 지향하면서, 특히 "기도하는 가정"을 사목 지침으로 설정하는 바입니다.

가정은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하거나 병들거나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키며 사랑의 문명을 창조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가정의 사랑과 평화와 일치가 유지되기 위해서 가정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가정 기도를 함께 바치는 신자 가정이 불과 1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가정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가는 현상으로 심히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정 기도는 신앙생활을 위한 교훈이며, 매우 가치 있는 예배 행위일뿐 아니라 가정에 평화를 가져오고 교회를 건설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에 긴급히 요구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고귀함에 대한 재인식이라고 할 때 가정 공동체야말로 가장 훌륭한 교육장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생명의 궁극적 의미와 인간의 기본 가치의 우위성에 대한 인식을 회복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사회의 도덕적 양심도 육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목적의 달성만을 위해 양심과 원칙과 정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자신부터 삼가해야 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보충하려는 노력과 함께 하느님께 도우심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정의의 실현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법과 제도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고귀함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회 개혁에도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극심한 혼동 속에서 우리 사회의 가치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 공동체의 쇄신과 성화를 다시금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가정이 "사회 안에서

인간을 형성하고 또한 가정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여 가정 그 자체에 폐쇄되지 않고 공동체를 향해 개방되어,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 의식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정의감에 따라 살아가도록" (가정 공동체, 64항)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정 공동체의 성화는 "자기 봉헌과 기도로써 보강된 삶에서" (가정 공동체, 62항)만 나온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실천 사항으로는 ①가정과 교회의 민족 공동체의 의식 회복 운동을 펼치고, ②인간 존엄성 회복과 생명 문화에 투신하고, ③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의 삶과 사명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④사회 개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 발전과 복음화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전주교구 이병호 주교

지난해는 우리 사회에 유달리 걱정스런 일도 많았고, 하루하루의 삶이 살얼음판을 밟고 지나가듯이 불안한 한 해였습니다.이런 우리의 심경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루가 24, 13-35)의 마음에나 비길 수 있을 것입니다.

①먼저 거기서 우리는 **'길을 가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 우리는 개인으로나 교회 공동체로나 하느님을 만날 시점을 향해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②두 사람은 길을 걸으면서 **'침통한 표정'**으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 그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 올린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어디에도 희망이 없다고 느낍니다.

③그런데 뜻밖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시어 두 사람 **'곁에 나란히 걸어가십니다'** : 하느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기에 가장 어려운 사건을 당하고 그 충격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던 바로 그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 곁에서 함께 걸으십니다.

④그분은 이제 **'말씀'**을 건네 오십니다 :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이 우선 제자들의 처지를 환히 드러나게 합니다. 그들은 마음의 눈이 멀고 지혜가 사라져서 어리석은 밤 속을 헤매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⑤그들은 부활에 관해 알아야 할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그 **'앎이 그들의 삶을 조금도 바꾸지 못합니다'** : 부활에 관해서 듣고 안 것만으로는 그들의 어두운 얼굴이 조금도 밝아지지 않고, 여전히 참담한 표정을 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⑥**'성서를 들어 설명하심으로써'**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 모든 희망을 잃고 걸어가던 제자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고통과 죽음이 하느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⑦제자들이 이 낯선 나그네를 **'초대'**합니다 : 이제는 제자들 쪽에서 자유로이 응답할 순서입니다. "여기서 우리와 함께 묵어 가십시오." 주님을 '지금 여기서' 잡지 않으면 그들은 하느

님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⑧그 사람들이 낯선 나그네와 함께 빵을 **'나눌 때'** 그들의 눈이 완전히 열려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 성서 자체로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지는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감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구체적인 나눔의 행동입니다.

⑨제자들은 방향을 바꾸어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갑니다 :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한 마음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렇게 새 마음과 새 정신을 가지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⑩새로 태어난 사람들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오늘도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지난 한 세대 동안 경제 성장만을 유일한 목표로 내걸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빵도 꼭 있어야 하지만 사람에게는 정신의 양식이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제부터라도 여기에 온 힘을 기울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걸었던 길을 걷고 새 삶의 기쁨에 도달하기 위해 다음 몇가지를 실천합시다. 첫째 성서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가정 기도를 통해 가족이 함께 성서를 봉독하고, 셋째 교회의 모든 모임, 신심 단체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일을 첫자리에 두도록 합시다. 넷째 가장 적합한 소공동체를 조직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맛들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합시다. 다섯째 성서 공부는 사회 속에서 실천할 것을 요구하므로, 우리의 건강과 시간과 기회와 능력을 이웃과 나눠야 합니다.

청소년과 함께

제주교구 김창렬 주교

올해를 청소년에 바치며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일생의 중요한 시절인 청소년기에 대해 교회가 특별한 중대성을 부여하도록 요구하십니다. 미래 복음화의 관건이 가정 공동체의 성화라면 가정 공동체의 희망인 청소년은 곧 미래의 복음화의 기수요 역군이라는 사실과 함께 그와 같은 청소년들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은 우리 교회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나는 올해의 사목 주제를 "청소년과 함께"로 정했습니다.

반성과 결의

교회 공동체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6~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소년들의 신앙 지도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습니다. 건전한 삶의 기치관을 제대로 심어 줄 수 있는 공

간의 확보, 재정 지원, 전문 인력을 갖춘 체계적인 지도에서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청소년들이 복음화의 주역이라는 사실과 그들의 미래가 교회의 미래라는 엄연한 사실을 깊이 깨닫고 무지와 사욕으로 인한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며, 올 청소년의 해를 기점으로 하여 새로운 결의를 다지도록 합시다.

몇 가지 권고

우선 "청소년 교육은 복음에 바탕을 두고 청소년들을 독려하여 주님께 귀의하고 그분을 통해 충만한 생활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일선 사목자들이 청소년과 함께 삶을 나눌 관대하고도 굳은 결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이들은 건전한 인생관과 가치관, 윤리 감각과 고매한 품성을 심어 주는 올바른 교육자들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나는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고 덕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압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일상생활 안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하면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주의 청소년들이 그들의 타고난 은혜로운 교육 풍토에서 올바르고 아름답게 인성적이며 덕스럽게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교구민 여러분, 청소년의 문제는 결국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청소년과 함께"하는 삶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말씀 경청의 해

군종교구 정명조 주교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자신의 신앙 성숙과 내적 쇄신을 위하여 열심히 생활하여 왔습니다. 올해는 "말씀 경청의 해"입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성서와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하느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서 안에서 하느님은 당신 자녀들을 언제나 친절히 만나 주시고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로니모 성인은 "성서를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성서를 읽는다는 것은 말씀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성서를 읽을 때는 기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느님께 말씀 드리는 것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루가 복음의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에 무엇이 우선시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특히 인생의 긴 여정에서 군이라는 특수 환경에 몸담고 산다는 것은 스스로의 투철한 사명감 없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서를 자주 읽으면,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며 힘을 얻어 성실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과 세상은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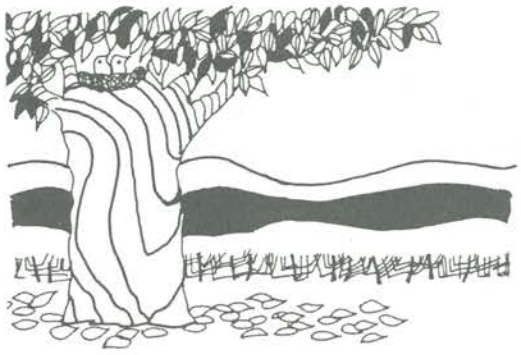
하느님께서는 창조 후 당신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서를 읽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을 어떻게 관리 보존해야 할지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00년대의 복음화를 준비하는 자세로 우리 모두 올 한 해 '말씀'에 깊이 맛들여 봅시다.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다음 실천 사항들로 한 해를 꾸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①신구약 성서 완독 : 하루에 성서를 두 장씩 읽으면 2년 동안 성서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②성서 구절 암기 :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기록하여 자주 되뇌여 내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③실생활에서 증거 : 생명 존중과 자연 환경 보존 운동에 동참해 성서 말씀을 실천에 옮기도록 합시다. (경향잡지 1월호에서 전재)



생활 말씀

끼아라 루빅
국제 마리아의 사업회 회장, 창설자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말에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서 너희에게 안겨 주실 것이다." (루가 6, 38)

여러분은 친구로부터 선물을 받고서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해야겠다고 느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이를 빚 갚는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감사의 정에서 우러나와 그렇게 해야겠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까?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하물며 하느님은 어떠실지, 사랑이신 하느님은 어떠실지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 이웃에게 한 모든 선물을 언제나 되갚아 주십니다. 참된 크리스찬들은 이런 경험을 매우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하느님의 상상력에는 매번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경험에 대해서는 수천, 수만 개의 예를 들 수 있으며, 그것으로 책 한 권 써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에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서 너희에게 안겨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 얼마나 맞는 표현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후하게 그리고 아낌없이 되갚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대한 도시 로마도 한밤의 정적 속으로 잠겨 들었습니다. 이 운동 초창기 시절, 복음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몇몇 처녀들이 연립주택의 반 지하층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잘 자라고 인사하고 잠자리에 들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한밤 중에 누가 왔을까? 문앞에는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집세를 내지 못해서 내일이면 가족들과 함께 쫓겨날 형편이었습니다. 처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약속 아래 작은 서랍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이 모아 놓은 월급의 여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따지지 않고 그것을 모두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날밤 처녀들은 기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들을 생각해 주리라 믿었습니다.

새벽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각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자 '택시를 타고 곧 그리로 가겠습니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바로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겠다는 말에 놀란 처녀들은 그를 기다렸습니다. 남자의 얼굴에서 무엇인가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집에 가보니 전혀 생각지도 않은 유산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 유산의 반을 여러분에게 드려야 함을 마음 깊이 느껴 이 돈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처녀들이 관대한 마음으로 내어 주었던 액수의 꼭 두 배가 되는 돈이었습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말에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서 너희에게 안겨 주실 것이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 보았습니까? 만일 그런 경험이 없다면 기억하십시오. 선물을 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주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보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요"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우리에게도 진정한 보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 우리의 마음, 미소, 조언, 우리의 문화, 우리의 평화, 그리고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갖지 못한 사람과 자기 소유를 나누도록 설득시킬 수 있는 우리의 말 등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구에게 주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위를 살펴 보십시오. 병원에 입원한 환자, 늘 외롭게 있는 과부, 시험에 실패하여 낙심한 친구, 직업이 없어 항상 우울한 청년,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동생, 교도소에 있는 친구, 아직 자신감을 갖지 못한 그 견습공이 기억나지 않는가요? 그들 안에는 여러분을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전적으로 복음 말씀에 기초한 크리스찬의 새로운 행동 규범이 확립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는 폐쇄적으로 사는 삶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앞날에 대한 보장이나 확실함을 지상의 재물에서 구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하느님께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느님께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은 머지 않아 여러분에게 돌아올 선물로 확인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나 우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남에게 베풀 때 이루어지는 여러 작은 기적들을 보고 그들도 역시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초대 크리스찬 공동체에 대하여 "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라고 했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느님의 재물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모든 것이 순환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세상이 기대하는 사회적 혁신에 올바른 정신을 줄 수 있도록 협력하게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은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상을 먼저 염두에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상에 대한 전조이자 보증이 됩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왔으니 잃었던 사람을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지 않겠느냐? (루가 15,31)"

이 구절은 누구나 다 아는 '잃었던 아들'이라는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크나큰 자비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루가복음의 한 장(章)전체가 이 구절로써 끝을 맺는데, 그 장에서 예수께서는 같은 내용을 설명하시기 위해 또 다른 두 개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아흔 아홉 마리를 들판에 그대로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잃었던 은전과 그 은전을 되찾고, 같이 기뻐해 주도록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는 여인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왔으니 잃었던 사람을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기 않겠느냐?"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바로 당신을 부르시는 초청이며 모든 크리스찬들을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잃

었다가 다시 찾게 된 죄인의 회두를 위해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이며, 그분의 기쁨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초청입니다.

비유에서 이 구절은 아버지와 모든 삶을 함께 해왔던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하루 종일 힘들여 일하고 돌아온 큰 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위해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을 맞이했을 때와 똑같이 이 성실한 아들에게로 다가가 그를 이해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큰아들의 감정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아버지는 한없는 사랑과 크나큰 기쁨을 느끼며 모두와 이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나 아들은 동생에 대한 멸시와 시기심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은 아들의 원한을 더 뚜렷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의 원한은, 아버지와의 관계 역시 위선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만큼 냉랭한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이 아들에게는 일이 중요하며 의무 수행이 중요할 뿐, 자녀로서 아버지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를 대하는 것을 마치 주인에게 순명하듯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왔으니 잃었던 사람을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지 않겠느냐?"

이 말씀으로 예수께서는 우리도 빠져들 수 있는 한 가지 위험을 경고해 주십니다. 즉 자신의 완벽을 추구하며 나무랄 데 없이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동시에 남보다 못한 형제들을 판단하는 삶입니다.

사실, 완덕에 집착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배제한 채 우리 자신을 형성해 가며 자신으로만 채우게 되고 자신에 대한 만족감에 젖어있게 됩니다. 바로, 집에 남아 있었던 아들이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여러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 없이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하며 아버지에게 자기의 공적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보이듯이 우리도 똑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께서는, 단지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거슬러 가십니다.

이처럼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도 이 점은 잘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인간이 과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지 않고 당신과 진정한 친교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가 마음을 열기를 원하시며 그를 향해 먼저 다가가시는 사랑이신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우리도 알 수 있듯이, 당연히 사랑이신 하느님께 가장 큰 장애물은 활동과 사업들만을 벌여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반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입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왔으니 잃었던 사람을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번지레한 크리스찬들이 난쇠할 수 있는 죄인들에 대해 성부께서 지니시는 것과 똑같이 한없는 사랑을 갖기를 청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누구에게 사랑을 베푸시든지 간에 그 사랑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황메시지

친애하는 형제인 교황청 평신도위원회 위원장 에두아르도 피로니오 추기경님

본인은 교황청 평신도위원회와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 평신도 사무국 그리고 한국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공동 주최로 이번 9월 5~9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평신도 대회를 귀하가 주재하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회의에 참가하는 모든 분들에게 본인은 주님이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심으로 인사를 보냅니다. 특별히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과 한국의 모든 주교들, 그리고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평신도위원회 위원장이신 두마구에테의 엔젤 라그다메오 주교님, 그리고 이 중요한 대회를 치룰 수 있도록 일하고 도와주신 다른 많은 분들께도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이 회의의 주제인 "평신도의 교회 사명 참여,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대한 실천을 중심으로"는 전세계 교회와 특별히 아시아 교회의 극히 중요한 문제들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아시아는 대종교들의 발상지이고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같은 전 인류라는 큰 맥락에서 볼 때, 사회의 몇몇 분야에서는 기술공학과 번영을 자랑할지라도, 전 인구의 다수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제기하는 도전에 응답하기 위해서,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은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방향과 틀을 제공합니다. 이 가르침은 현대 사회 안에서 복잡하게 얽힌 관계 속에 참여하고 있는 그대로의 인간에 촛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항상 신앙의 전망에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통해서만이 인간의 참다운 정체성이 충만히 밝혀지기 때문입니다(백주년 54항 참조). 이 사회적 가르침은 나아가 결코 단순한 이론으로만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행동을 위한 토대이자 동기인 복음 메시지 자체에서부터 근거합니다. 그리고 인간 실존의 신앙 차원을 말과 행동으로 살찌우는 데에 평신도의 투신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본인은 백주년 회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메시지는 그 메시지의 내적 논리와 일관성의 결과로써가 아니라 행동의 증거로부터 더욱 직접적인 신빙성을 얻게 된다는 것을 교회는 알고 있습니다" (57항). 따라서 이 "행동의 증거"를 실천하는 것은 교회 구성원의 의무입니다. 아시아의 가톨릭 인구는 큰 민족들 가운데에 소수에 불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좌절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주님 친히 우리에게 하느님의 나라는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리는 작은 누룩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 13,33; 루가 13, 21). 그러므로 신자들의 생활과 사랑의 증거는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될 것이며(참조 마태 5,

14~16;루가 8,16), 기쁨과 희망의 횃불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을 제자가 되도록 초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인은 10년전 본인이 서울에서 시성식을 거행한 한국 순교자들의 모범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를 쏟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거한 이들 순교자들의 대다수는 평신도 남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나 훌륭하게 증거했으며, 또 그 증거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순교자들과 다른 여러 나라의 순교자들은 씨를 뿌렸고, 그 싹이 터서 성장해 오늘날에도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빛은 꺼진 것이 아니라 더한층 빛을 발하고 있으며, 그 빛을 밝히는 임무는 오늘날 아시아의 가톨릭 평신도 세대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신앙인 각자는 이 빛을 모든 이들에게 비추어야 하며. 특히 아시아의 젊은이들에게 비추어야 합니다:왜냐하면 그 젊은이들은 이 희망의 상속자이며, 뿌린 씨를 거둘 사람들이며, 또 씨를 뿌릴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방식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이 회의는 본인이 참석하게 될 마닐라 대회의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 곳에서 본인은 아시아와 세계 도처의 수많은 젊은이들과 만날 것입니다.

추기경님과 아시아 평신도 회의 참석자 여러분들께 본인은 기도에 찬 연대를 보증하면서 여러분이 복음화를 위한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역할을 반성할 때에 예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게 여러분 모두를 의탁하면서, 마리아의 아들이 더한층 잘 알려지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위대한 과업에 여러분을 지탱하시도록 간구합니다. 주님 안에서 힘과 평화의 보증으로, 충심어린 사도적 축복을 보냅니다.

1994년 8월 28일 바티칸에서 요한 바오로 2세

환 영 사

김수환 추기경
1994. 9. 5 아론의 집

존경하올 Pironio 추기경님,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특히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 멀리 Roma에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특별히 Roma 성청의 평신도위원회의 의장이신 Pironio 추기경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기쁩니다.

여러분은 여기 체류하는 동안 어떻게 하면 교회의 사회교의를 아시아의 현실 속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지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이는 아직도 불의와 억압으로 말미암아 사회 문제가 많이 있는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경제적 · 정치적 발전이 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아직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이 적지 않은데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디든지 물질주의와 함께 전통적 가치의 상실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판단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매일같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오늘의 세계 속에서 증거할 수 있는가?"의 물음과 마주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기때문입니다. 세상의 복음화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요 하느님의 구원의 사랑으로 세상을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하고 매일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뿐더러 우리는 가끔 불가능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을 사랑하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그런 증거는 어떤 때는 순교와도 같습니다. 크리스찬 생활에는 기쁨도 있으나 끊임없는 고통, 회의, 남들로부터 받는 오해, 자기와의 내적 투쟁도 따릅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은 가끔 우리가 단순하고 구체적인 사랑으로 이웃의 고통을 덜어줄 때 더 잘 드러납니다. 성체성사와 단순한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필요로 하는 힘을 얻습니다. 그 사랑으로써 세상은 변화됩니다. 그 사랑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빛이 비추입니다. 저는 이번 모임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깊이 알아듣게 되기를 빕니다.

전 아시아에 걸쳐서 무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겸손된 자세로 세상을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의 표지입니다. 그런이들의 증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찬미를 받으시기를 빕니다.

환 영 사

이문희 대주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추기경님, 주교님,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까지 먼 길을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회합이 아시아 각 교회의 평신도 사도직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회합으로 복음선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한국의 평신도들에게 이렇게 많은 벗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이웃을 보고 기뻐하는 한국 신자들의 감사를 모아서 여러분 모두에게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환 영 사

1994. 9. 5
서울 대교구 강 우 일 베드로 주교

오늘 아시아 평신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한국 주교단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서울에서 평신도 사도직 운동의 활성화를 장려하고 감독하는 주교로서 오늘 이 모임이 있게 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리면서, 교황청 평신도 위원회 위원장 에두아르도 피로니오 추기경님을 위시한 제위 주교님들, 신부님들, 수도자, 평신도 대표, 그리고 내빈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년 전 동아시아 평신도 회의가 이 지역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아시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큰 규모의 행사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특히 한국 순교 성인 103위 시성 10주년의 해에 이와같은 평신도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된 점은 한국교회로서 매우 뜻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200여년 전 한국 교회 창설 당시의 평신도들이 큰 역할을 했고, 성직자 없는 교회에서 성직자 영입에 피땀어린 노력을 했던 점, 그리고 103위 성인 성녀 중 대부분이 평신도라는 점 ……)

이번 회의는 '평신도의 교회 사명 참여'라는 주제를 내걸고 아시아 지역의 상황 아래서 사회 교리 실천에 관해서 집중 논의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한다고 하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회의 벽두에는 피로니오 추기경께서 "SENT BY JESUS TO CHANGE THE WORLD"라는 제목의 기조강연도 해 주시게 돼 있어서 매우 유익하고 적절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에, 특히 세속에서 생활하는 평신도들에게는 신앙과 생활이 유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가 가르치는 사회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 회의를 통해서 아시아 모든 교회의 신도들이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더욱 더 잘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번 대회가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개최되는 것과 같이 회의의 결실 또한 하느님의 뜻에 따라 풍성하게 맺어질 것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 영 사

회장 이 관 진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결실과 수확의 이 좋은 계절에 존경하올 고위 성직자 제위와 아시아 교회 지도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이곳 한국에서 세계 초유의 아시아 평신도 회의를 개막하게 된데 대해서 진심으로 하느님께 감사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각국 대표와 내빈 여러분께도 한국 교회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와 함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를 위해 특별히 교황강복과 축하 메시지를 보내 주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성하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드리며 연로하신데도 직접 참석해 주신 교황청 평신도 위원회 위원장 에두아르도 피로니오 추기경님께 감사드립니다. 추기경께서는 2년 전 이곳에서 열린 제3차 동아시아 평신도 회의에도 참석하셔서 새로운 복음화에 관한 훌륭한 기조강연을 해주시고 회의가 끝날 때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며 좋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12월 사제서품 50주년 금경축을 지내신 추기경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더 한층 빛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드립니다.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평신도위원회 위원장이신 앙헬 락다메오 주교님 또한 1992년 동아시아 회의에 이어 이번에 다시 오신데 대해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밖에 제위 주교님을 뜨거운 가슴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는 저희 서울대교구 교구장이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과 한국 주교회의 의장이며 대구대교구장이신 이문희 바오로 대주교님, 이곳 수원교구장이신 김남수 안젤로 주교님, 서울대교구 강우일 주교님, 그리고 주한 교황 대사 죠반니 블라이티스 대주교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역시 함께 해 주신 국내 여러 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 지도 신부님과 단체 대표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 주교회의 사무총장 백남익 디오니시오 신부님과 교황청에서 오신 레나로 보카르도 몬시뇰, 페르난도 베르게스 신부님, 각국 평신도 대표, 수도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여러 가지 희생을 치르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아시아 여

러 교회 대표들에게 주님께서 백배의 상을 내리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막을 올린 아시아 평신도 회의는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대한 지식을 깊게 하고 아시아에서 교회의 사명에 평신도의 참여를 확대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회교육 활성화를 우리들 가정과 직장에서 증진하는 한편 타종교 신자들도 협력해서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의 도전을 이해하고, 대중적 차원에서 대다수의 평신도에게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그 방법론을 강구하는 것도 이번 회의의 과제라 하겠습니다.

아시아 교회들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영감과 지원을 제공하는 계기도 이번 아시아 평신도 회의를 계기로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 한국 교회로서는 이달 9월이 순교자 성월이며 올해 1994년 103위 한국 순교성인 시성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이같이 뜻 깊은 해, 뜻깊은 달에 아시아 평신도 회의를 갖게 된것을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알고 있습니다. 103위 한국 순교 성인 중 10분이 프랑스 선교사들이고 한분이 한국인 성직자이며 나머지 92위가 평신도들입니다.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창설을 본 한국교회가 이토록 많은 평신도 성인들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첫번째 아시아 평신도 회의를 이 땅에서 열게 된 것은 참으로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10년 전 103위 순교복자들에 대한 시성식과 한국교회 200주년을 기념할 때 내건 구호가 '이 땅에 빛을' 이었습니다. 이 땅 한반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한국 신도들이 선교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열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사회적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평신도의 교회사명 참여"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아시아 평신도 회의가 그 분 뜻 안에서 빛나는 결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하느님께 청하면서, 주최측의 일원으로서 저희 한국 평협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이번 모임이 아시아뿐 아니라 전체 세계 교회 발전을 위해서도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간절한 기도를 바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께서 보내신 사람들

에루아르도 F. 피로니오 추기경
교황청 평신도위원회 위원장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시오" (마태오 20,7)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코 16,15)

예수님의 이 두 말씀 안에-주님의 이 두 가지 파견 속에-'평신도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선교 사명'의 모든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즉, 세례를 받고, 예언자요, 사제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하게 된 우리 모두(주교, 사제, 남녀 수도자, 부제 및 평신도)는 선교적 친교의 신비인 단 하나의 교회를 형성해야 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같은 성령을 받아 마셨기"(Ⅰ고린토 12,13) 때문입니다.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시오"라는 첫번째 말씀은 특히 모두로 하여금 성령의 일치 안에서 친교의 교회가 되게 하고자 하는 절박한 요구에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참되이 살며 머리이신 그분을 향하여 온전히 자라나야 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몸은 영양을 공급받는 모든 관절을 통해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관절은 각각 맡은 분량대로 활동합니다. 그리하여 몸은 성장을 거듭하여 사랑으로 자체를 건실하게 됩니다" (에페소 4,15~16).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라는 두번 째 말씀은 교회의 친교가 지니는 선교적 차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친교는 선교적이고 선교는 친교를 지향하고 있다"(평신도 그리스도인 32).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측면, 곧 친교와 선교를 우리는 갈라 놓을 수 없습니다. 교

회 공동체가(말씀과, 성령의 일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사를 통해서) 내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욱 더 선교적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령에 힘입어 인간 공동체 안으로(세상에로, 인간들의 방대한 우주에로) 들어가면 갈수록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내적 성장을 더 갖게 됩니다.

"사도좌 방문"시 주교님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경험은 물론, 교리나 전례 등 교회 내 평신도 활동에 대한 의식이 평신도들 사이에서 점점 더 깨어나고 자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상적인 현실(사회, 정치, 가정, 교육, 스포츠, 사회 홍보 수단, 문화환경)에서의 선교 사명에 대한 평신도들의 참여도는 그에 못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략 두 가지입니다. 양성 부족(양성을 위한 교사들의 부족도 포함), 그리고 사회 및 정치 분야를 비롯한 오늘의 현실에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참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큰 모험심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나는 오늘 세 가지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즉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친교의 교회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파견되었다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본인의 이 단순한 내용의 제목,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께서 보낸 사람들"은 제 자신의 과분한 생각이 아니라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 주셨다 …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요한 3,16~17)

1. 예수께서 보내신 사람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요한 20,21)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당신 교회의 직무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요한 15,16).

새 복음화에 대한 호소와 선교적 역동성에 대한 교회의 시급한 요청은 분명, 비극적이면서도 화려한 현 시대의 여러 도전으로 인한 것이며, 또한 엄밀하게 바오로 6세와 요한 바오로 2세의 강력한 권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역사 안의 예수의 새로운 현존으로 침투해 들어야 합니다.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시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점지해 주기 전에 나는 너를 뽑아 세웠다. 네가 세상에 떨어지기 전에 나는 너를 만방에 내 말을 전할 나의 예언자로 삼았다"(예레미야 1,5).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예언자들에게 해당됩니다. 다만, 예언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고, 우리의 선교지도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하고, 무슨 말을 시키든지 하여야 한다 … 나는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담아 준다"(예레미야 1,7~9).

아시아나 유럽, 또는 라틴 아메리카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비극과 풍요로움을 담고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나 2천년대를 바라보며 교회나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을 갖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또한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과의 각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때"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 우리의 때는 예수님의 때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와 희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부활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파견되었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소명은 단순히 교회로부터 오지 않고 변화된 역사적 조건에서 오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또는 인간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낼 터이니 가라, 내가 네 힘이 되어 주겠다"(출애굽기 3,10~12).

예수로부터 파견되었다는 의식은, 주님과의 갈라놓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을 것을 가정합니다.(기도와 성사를 통해서) -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요한 15,5). 그리고 주님의 현존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나다, 겁내지 말고 안심하여라(마르코 6,50)",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오 28,20). 또한 항상 예수의 완전한 선교 범위에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하늘나라의 분명한 선포와 병자들의 치유). 곧 복음화와 인간 생활 향상의 불가분의 관계를 뜻합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사도들을 보내셨을 때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자를 고쳐 주라고 분부하셨다"(루가 9,2). "그리하여 열두 제자는 길을 떠나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며 이르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쳐 주었다"(루가 9,6). 그것은 성부께서 보내신 분, 예수께서 이루신 것과 똑같은 선교였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래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마태오 4,23).

나는 신앙과 생활, 성덕과 선교, 복음화와 인간 생활 향상 사이의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평신도와 관련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평신도 영성과 그들의 세상 환경(가정, 직업, 정치)이 서로 고립될 수가 있는 위험이며 또 하나는, 그들의 활동을 현세의 환경에만 국한시켜버릴 수가 있는 위험입니다.(이 경우에는 사회, 정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신도가 될 것입니다.) 평신도에게 그리스도의 경험과 세상의 경험을 합치시켜 주는 성사적 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곧 세례 성사입니다. 이 때문에 '평신도 그리스도인'의 제1장은 매우 중요합니다.(그것은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의 제1장이 근본적인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평신도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맺는 본질적인 관계로 정의됩니다. 곧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며, 나아가서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평신도 그리스도인' 제1장 마지막 부분에서 교황 성하는 두 개의 중요한 구절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는 대 레오 성인의 "오 그리스도인이여, 그대의 존엄성을 깨달으십시오!"이며, 또 하나는 "우리 기뻐하며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 아니

라 바로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 기뻐 용약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평신도 그리스도인 17). 여기서 성덕과 선교 사이의 일치가 나옵니다.

"성덕에로의 보편적 소명은 보편적 선교 소명과 긴밀히 묶여 있다. 모든 신자는 성덕과 선교에로 부르심을 받았다"(교회의 선교 사명 90). 뿐만 아니라 예수와 그분 나라에 대한 명백한 선포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적 의무 사이의 일치도 여기서 기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교회가-특히 평신도들이 "세속적인 차원"을 지닙니다(바오로 6세).

2. 친교의 교회에서

"사람의 몸은 하나이지만 그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고 그 지체의 기능도 각각 다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수효는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각각 서로 서로의 지체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12,4~5).

몸의 일치, 각기 특정 기능을 지닌 지체들의 다양성, 연대성과 통합성. "이 모든 것은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Ⅰ 고린토 12,11). 우리는 교의를 완벽하게 알고 있으며, 교회가 본질적으로 선교적 친교의 신비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희열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목자들과 남녀 수도자들, 평신도들은 아직도 그 결론을 끌어내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도록 해야 합니다.

1) 교회가 신비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을 통해 성삼위와 맺고 있는 본질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하나의 민주 기관이 아니며 순수한 인간 모델을 재생해 내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삼위의 모상입니다. 곧 삼위일체적인 친교를 모델로 하여 세워진 것으로서, 교회는 이를 알리고 건설해갑니다.
즉 성삼위로부터, 성삼위를 통하여, 성삼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니는 궁극의 목적은 성삼위와의 완전한 친교입니다. 그 길은 성령의 일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때문에 친교의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적인 언급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에 대한 희망"(골로사이 1,27)인 신비로서, 바오로 사도는 스스로 그 일꾼으로 느낍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당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골로사이 1,18). 그분은 "머리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몸은 영양을 공급받는 모든 관절을 통해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관절은 각각 맡은 분량 대로 활동합니다. 그리하여 몸은 성장을 거듭하여 사랑으로 자체를 건설하게 됩니다"(에페소 4,15~16).

2) 친교는 교회 건설과 인간 사회 건설에 있어서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성사적인(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혼인성사) 권리이자 의무이며 단순한 역할 대행이 아닙니다. 평신도는 사제의 대리가 아닙니다. "평신도들은 교회입니다"(비오 12세).
여기에 평신도의 복음화 사업에 대한 저버릴 수 없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Ⅰ 고린토 9~16). 특히 이 시점에서 평신도들은 새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정신을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산토 도밍고 문헌 97 참조). 그러나 진정한 교회의 친교 정신 안에서, 또는 지역 교회(교구, 본당)에의 온전한 참여를 통해서 해야 하며, 교황을 머리로 하는 보편 교회에 대한 완전한 충성심을 지니고 해야 합니다. '교회의 선교사명'에 나오는 요한 바오로 2세의 아름다운 구절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근자에 많은 교회에서 선교 열의로 충만한 '교회적 운동'의 대단한 진전을 새로운 사실로 상기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운동이 지역 교회의 생활에 겸손되게 참여하고, 주교나 사제들에 의하여 교구나 본당 구조에 수용될 때에, 이것들은 복음화와 고유한 의미의 선교 활동을 위한 하느님의 선물이다"(교회의 선교사명 72).

3) 친교의 교회가 요구한 것 중의 하나는 다른 교단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초교파적인 개방과, 아시아의 여러 민족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불교, 힌두교, 회교 등 대 종교들과의 협력 및 "생활의 대화"입니다.

민족들의 생활과 발전에 영향을 미친 이 종교들과의 사이에는 어떤 영신적인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 개방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가톨릭 신자들에게, 그들의 가르침에 대한 커다란 존경과 지식,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생활과 노동을 통한 협력을 요구하며, 항상 복음적 진복의 정신에 대한 완전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할 것과, 예수와 교회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분 나라에 대한 희소식을 있는 그대로 알려야 하는, 저버릴 수 없는 사명에 대한 완전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4) 선교적 친교의 교회를 살기 위해서는 특별한 양성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특히 여기에 있습니다. 이 양성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요구합니다.

신앙과 생활 사이의 밀접한 관계가 요구되니 사회 현실에의 참여가 깊은 복음적 삶에서 출발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갈상태를 맞게 되거나 우리의 메시지가 피상적으로 남게 될 두 가지 우려를 피해야 합니다. "자기 고유의 소명과 사명에 대한 발견과 실천에 있어서, 평신도들은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성격과 인간 사회의 시민이라는 성격을 통합시킬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한다"(평신도 그리스도인 59).

참된 행복과 사랑의 진실성을 구체적으로 살게 하면서 매일의 생활과 행위가 성덕의 여정이 되게 해 주는 진정한 평신도 영성이 증진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회교리에 대한 보다 깊은 총체적인 지식이 요구됩니다. "특별히 사회와 정치활동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평신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사회교리에 대한 더욱더 정확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이 교리는 일반적인 교리교육 과정과 전문적인 모임에서는 물론, 학교와 대학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평신도 그리스도인 60).

3.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묵시록 21,5).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Ⅱ 고린토 5,17).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요한 3,17). 예수님은 이와 똑같은 선교적 구원적 차원에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세상에서의 그분의 사명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선포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어 있습니다"(Ⅱ베드로 3,13). 바로 이 때문에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새사람들"(에페소 4,23)이 필요한 것입니다. 평신도들에게-특히 이 시간에 젊은이들에게, "세례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근본적인 새로움"(평신도 그리스도인 10)을 살고 표현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와, 선교적 친교의 교회의 살아 있는 구성원이 된 평신도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매일 예수로부터 그분의 교회 안에서 파견을 받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20,21). 예수님의 "사제적 기도"는 그분의 모든 제자들에게 해당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나도 이 사람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 내가 아버지께 원하는 것은 그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마에게서 지켜 주시는 일입니다"(요한 17,18.15).

여기서 본인은 공의회와 교황의 몇 가지 문헌들을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첫째, 평신도 현실 참여의 절박성, 둘째, 교회의 사회교리에 대한 확고한 양성의 필요성, 셋째, 아시아의 대 종교들과의 복음적 협력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 현실 참여

a. 먼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주요 문헌들을 상기해 봅시다.

"평신도들은 본래 현세적 일에 종사하며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함으로써 천국을 찾도록 불린 것이다. 그들은 세속에 살고 있다. 세속의 온갖 직무와 일, 가정과 사회의 일상 생활 조건들로써 그들의 존재 자체가 짜여진 것처럼 그 속에 살고 있다"(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31).

"평신도들은 복음 선포와 인간 성화에 힘쓰며, 현세 질서에 복음 정신을 침투시켜 현세 질서를 완성하는 활동으로써 사도직을 수행한다"(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2).

"교계 제도와 함께 참 뜻에 있어서의 신도단이 존재하여 활동하지 않으면 교회는 참으로 건설된 것이 아니며 충분히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표시도 아니다"(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 21).

b. 이번에는 '현대의 복음선교'(70)에 나오는 바오로 6세의 참으로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신자들의 복음 선교 활동의 무대는 바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학술, 국제 활동, 홍보 등 광범위한, 한 마디로 복잡한 현실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c. '평신도 그리스도인'의 제3장(선교하는

교회에 있어서 평신도의 공동 책임)은 온통 평신도가 현세 환경에서 "인간과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지니는 복음화 사명"에 대해 다루고 있다.(생명권, 자유권, 가정, 정치) 교황님의 호소력 있는 이 말씀만 상기해 봅시다.

"인간과 사회에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현세 질서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불어 넣어야 할 자신의 의무를 성취하기 위하여 평신도들은 '정치 참여'를 결코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즉, 경제, 사회, 입법, 행정, 문화 등 수없이 많은 여러 분야에서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공동선을 증진시켜야 하는 것이다"(평신도 그리스도인 42).

나는 가정, 교육, 문화적 환경 그리고 사회 홍보수단 및 경제, 정치 · 환경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 교회의 사회 교리 교육

여기서 나는 요한 바오로 2세의 세 가지 확언의 말씀을 특별히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a. 평신도 그리스도인 60 : "특별히 사회와 정치 활동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평신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사회교리에 대한 더욱 더 정확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b. 사회적 관심 41 : "(교회의 사회교리)는 이데올로기의 영역이 아니라 신학의 영역에, 특히나 윤리신학의 영역에 속한다. 사회교리를 가르치고 널리 펴는 일은 교회 편에서는 복음전파의 사명의 일부가 된다."

c. 백주년 56 : "(노동 현장의) 백주년을 맞이하여, 나는 사회 교리를 배우고 연구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나는 백주년 기념이 그 교리를 여러 분야에서 연구하고 보급하고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열정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3) 대 종교들(불교, 힌두교, 회교)과의 협력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신분과 백성의 구체적인 요구에 충실한 평신도들은 다른 교단의 그리스도인들과 대 종교 신자들과 더불어 인간과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그분과 닮게 창조된 인간입니다.

a. '평신도 그리스도인'(35)에서 교황 성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시노드 교부들의 제의를 수렴하고 계십니다. "다른 종교인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은 특히 평신도들은, 바로 그 곳의 실제적인 생활 환경에 적응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보여주는 표지가 되어야 한다. 종교간의 대화는 극히 중요한 일면을 지니고 있다. 대화는 다양한 종교의 신봉자들 사이에 있는 편견들을 불식하거나 적어도 감소시키며, 상호 존중과 사랑으로 인도하고, 민족들 간의 일치와 우의를 증진시킨다."

b. '교회의 선교사명'(55~57)에서는 타종교 형제들과의 대화에 관해 폭넓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타종교와의 대화는 교회의 복음화 사명의 일부"(55)라고 확언하십니다. "대화는 여러 가지 형태와 표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종교 전통들의 전문가들이나 공식 대표들 사이의 토론에서 … 소위 '생활의 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생활의 대화는 여러 가지 종교의 신봉자들이 일상 생활 안에서 그들의 인간적 영적 선익을 서로 증거하고, 그렇게 삶으로써 더욱 정의롭고 더욱더

일치된 사회를 건설하는데 서로 도와 주는 것이다"(57).

c. '백주년'(60)에서 교황 성하는 당신이 '사회적 관심'(47)에 쓰신 내용을 다시금 상기하십니다. "같은 회칙에서 나는 하느님에 의하여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공동 확신의 일치된 증거를 보여 달라고 그리스도교 교회들과 세계 모든 종교에게 호소했다. 사실 나는 종교들이 오늘과 내일에 평화를 유지하고 인간에게 합당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탁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결 론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요한 15,16).

이 말씀으로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우리의 관심사인 이 주제의 요지가 되는 '평신도 그리스도인'의 제3장, "선교하는 교회에 있어서 평신도의 공동책임"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모든 것은 예수께서 특별히 마음에 두고 계시는 다음의 두 구절에서 나타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 왔다"(요한 15,9)와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20,21)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의 사명은 특히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에 그 성사적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선교적 친교의 신비인 교회를 통한 예수님의 개인적인 부르심과 긴급한 파견에서 기인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어 가서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제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무셔야 합니다.(요한 15,5~8 참조)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가 된(평신도 그리스도인 17 참조) 평신도들은 그들의 성덕과 선교의 특수 현장이요 신학적인 영역인 이 세상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인간과 사회에 봉사함으로써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생활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시키고 불가침의 생명권을 존중하며 가정을 사회 참여의 첫 자리로 하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에서의 그들의 책임감을 복음적 용기로써 지니게 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본인은, 만일 우리가 보다 올바르고 보다 형제적이며 보다 인간적인 새로운 사회를 함께 건설하고자 한다면, 우리 평신도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의 아시아 대 종교의 형제들이 공통적으로 받고 있는 몇 가지 도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도전들은, 존경, 신뢰, 서로 간의 사랑,(사회, 정치, 종교 등) 모든 면에서의 자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진리(요한 8, 32 참조)에 대한 진지하고 겸손한 연구 등입니다.

모든 이의 아버지요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희망을 확인해 주시고 기쁨과 평화로(로마서 5,13 참조) 우리를 채워 주시며,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시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의 선교적 연장으로써 교회 안에서 주 예수로부터 확인받은 우리 평신도들에게는 항상 지극히 거룩한 마리아, 동정 선교사, 예수의 첫 여성 제자,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완벽한 모범이신 분의 도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겸손한 종이요 예수의 어머니, 또한 모든 인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계십니다.

평신도의 교회사명 참여

-사회적 가르침 실천을 중심으로-

이윤자 루치아
한국 평신도 활동 보고

들어가는 글

올해는 한국 천주교회가 103위 성인 탄생 1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아울러 아시아 평신도회의가 열리고 있는 9월 한국 순교 성인들의 거룩한 정신을 기리는 순교자 성월입니다. 앞으로 15일이 지나 9월 20일이면 한국 천주교회는 103위 순교성인들의 생일인 대축일을 맞게됩니다.

우리 한국 평신도들은 세계 교회사상 대륙별로는 처음으로 기록되는 아시아 평신도회의가 한국 천주교회의 최대 경사가 겹친 이 거룩한 계절에 마련됐다는 사실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저는 그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를 바로 한국의 103위 순교성인 가운데 90%에 가까운 92명이 우리와 같은 평신도라는 사실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 분들은 이미 그 당시에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삶으로 구현하신 분들이었고 그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 하나 밖에 없는 목숨조차 기꺼이 버리신 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대 선배이신 순교성인들께서 우리 아시아의 평신도들이 아시아 시민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 일어나기 위해 모인 이 시도에 힘을 더해 주시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창조하기 위해 공동의 길을 찾고자하는 아시아 평신도들의 패기어린 이 선택을 전구로써 도와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와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

지난 1984년, 한국 천주교회 2백주년 기념 대미사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03위 순교복자들의 시성식을 주례하시면서 이제 순교의 시대는 가고 증거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해와 피로 점철된 순교의 시대는 가고 순교자들이 죽음으로써 남긴 신앙을 삶으로써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과연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심각한 물음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종교인구는 계속 늘고 있는데도 제반 사회악은 줄지 않을 뿐더러 비인간화는 오히려 가속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남보다는 자기를, 이웃보다는 내 가정을 먼저 챙기는 극도의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사회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집단 이기주의라는

현대병은 신자들과 교회를 우리 신자, 내 교회라는 테두리 안으로 묶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본당, 나아가 우리 단체에 소속된 신자가 아니면 더이상 공동체라는 이름은 사용되기가 부끄러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세상 안에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열심한 신자로 만족하고 있는 신앙과 생활의 이원화 현상,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한국교회의 경우 이번 아시아 평신도회의가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줄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평신도의 교회사명 참여－사회적 가르침 실천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는 바로 심각한 괴리현상에 빠져있는 한국교회 신자들의 신앙과 생활의 근원적 이유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해 주는 중요한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시아 각국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신자들이,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토대로 교회의 사명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아시아 각국 교회가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대해 지금까지 실천해온 괄목할만한 사례들을 가장 먼저 제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 평신도들의 경우 이번 아시아 평신도회의를 자기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은 지금까지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별로 갖지 못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한국교회가 사회적 가르침의 실천상황에 대해 발표할만한 사례를 갖고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의 사회적 가르침 실천사례를 얘기할 때 70년~80년대를 지나칠 수 없습니다. 정치를 중심으로 사회 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 혼미를 거듭하던 당시 한국의 상황하에서 한국교회는 땅에 떨어진 정의를 되찾아 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당시 성장 제일주의 정책을 앞세워 경제성장을 인간의 기본권보다 우위에 두었고 이는 한국의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부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이같은 정책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대변인이자 위로자이며 피난처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생각과 방법상의 차이로 약간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지만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펼친 당시 한국교회의 선택은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적극적인 구현으로 보아 마땅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교회는 정의, 평화, 노동사목, 사회복지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 우리가 다루고있는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대한 구체적 사례들로 적절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한국교회의 보고는 교회의 공식적인 활동이나 지난 시대의 결실보다는

현재 우리 신자 개개인의 신앙과 생활 안에서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실현상황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지금 우리사회 상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사람의 진솔한 신자로 신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것이 교회의 선교사명을 수행하는데 있어 신자들에게 선행되어야할 필수조건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교회의 경우 이 문제는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찾아보는 데서 출발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대한 논의는 그 역사가 일천합니다. 어쩌면 한국교회는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노동헌장〉 반포 1백주년을 맞은 1991년을 기해 이른바 사회교리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1990년부터 노동헌장 반포 1백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준비가 교회 일각에서 시작되었으며 노동헌장 반포 1백주년 기념의 해인 1991년이 열리면서 몇가지 구체적인 활동이 전개되었습니다.

91년 10월 15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노동헌장 반포 1백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을 필두로 한해동안 한국교회는 심포지엄, 대 토론회, 학술모임을 개최했으며 노동헌장 반포 1백주년이 되는 당일인 5월 15일에는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기념미사가 봉헌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의 전반적인 교도권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노동헌장 반포 1백주년을 기해 실시된 일련의 행사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의 행사로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회교리의 해로 선포된 바 있는 1991년 당해로 한국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대한 관심이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다고 교구는 교구별로, 평신도협의회를 비롯 평신도 단체나 기관별로 그동안 신자들의 교육을 위해 힘써온 사실을 외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회의 변화나 흐름에 교회의 교육이 전폭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해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할 뿐입니다.

1891년 노동헌장 반포 이래 지금까지 역대 교황께서 반포한 사회교리에 관한 교회문헌들은 1991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반포한 회칙 1백주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30여 가지에 이르고 있음을 여러분께서는 익히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와 교사〉 〈지상의 평화〉〈사목헌장〉〈민족들의 발전〉 〈노동하는 인간〉 그리고 가장 근래에 반포된 〈사회적 관심〉과 〈1백주년〉 등은 우리 귀에도 익숙한 문헌들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겐 시대적 상황에 따라 반포되는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보다 정직하게 표현하자면 우리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시대별로 발표되는 교회의 제반 가르침들을 그때마다 신속하게 만나볼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가르치는 사회적 가르침들을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번 아시아회의에서 참가자들이 미리 읽고 공부해 오시도록 요청받은 교회 문헌 〈가정공동체〉〈교회의 선교사명〉〈평신도 그리스도인〉〈사회적 관심〉〈백주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 사회교리가 무엇인지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 88년 한국교회의 한 기관이 신자들을 대상으로한 조사에 따르면 약 80%에 이르는 응답자들이 교황의 교서나 회칙, 권고, 서한 등을 포함 각종 교회문헌들을 한번도 읽어본적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현상 등은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대한 열악한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점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와 관련, 한국교회와 평신도들이 함께 반성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들은 이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주는 신앙생활 지침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그것은 가톨릭 교리의 사회적 관점

과 20세기 현대 사회의 구체적 상황들을 연결시켜 주는 체계적이고 규범적인 신학적 이론들이기도 합니다. 이같은 사회교리에 대한 교육부재는 현대사회를 살아나가는 우리 신자들을 방황하게 합니다. 매일처럼 도전받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또 매순간마다 복음적 판단과 인간적 선택을 강요받으며 살고있는 신자들의 경우 가르침의 부재는 흔들리는 신앙생활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난 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신자들은 세계 교회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90년대 들어 상승폭이 줄어들기는 했어도 계속 늘어가는 교세와 곳곳에서 생겨나는 교회, 부속건물들은 이른바 〈잘 나가는 교회〉로 그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불과 얼마전까지 〈잘 나가는 나라〉로 비춰진 바 있는 한국의 모습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려는 잘 나가는 나라로 조명된 바 있는 한국이 사실보다는 과대포장이 되었고 그로 인한 문제가 표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역시 외형적 상승세에 기인한, 과대포장으로 그 모습이 판단될 수도 있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 신자들의 능동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신앙생활은 열심한 신자집단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열심함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한 신자이고 우리 끼리는 잘 통하는 형제자매로 살아가지만 정작 사회와 주변 속에서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지적한대로 우리 신자들의 친교와 나눔은 내 본당 내 단체 안에서 그치는 일이 허다합니다. 교구라는 벽은 물론 본당, 단체의 틀을 넘기도 어려울만큼의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현상도 숨길 수 없는 한국교회의 일면입니다.

거듭드리는 말씀이지만 현대사회는 우리 신앙인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제반 문제를 비롯 생명, 인권, 환경, 노동, 교육, 양심 문제등 제분

야에서 매일처럼 발생하는 문제들은 우리 신자들에게 순간 순간마다 어려운 선택과 결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는 바로 우리의 선택이 복음적 판단에 기인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들의 삶에 있어 혼돈의 요인이 되고 있음은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태아의 생명을 수호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한국은 낙태천국이라고 일컬을만큼 낙태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생명 수호운동은 교회의 가르침에 근거해 볼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신자들은 교회의 생명운동이 적정한 것인지, 아니 나 스스로가 그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의 정도가 매우 낮은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실시해온 각종 조사에서 가톨릭교회 신자 여성들이 비신자나 타종교 신자들에 비해 낙태를 경험한 비율이 같거나 오히려 높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필요한 운동이라는 확신, 나아가 신자들부터 이를 생활 속에 실천해야 한다는 인식을 한국교회가 가르침을 통해 주지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경우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있어 평신도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은 바로 그 가르침에 대한 무지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첨예한 사회문제가 제기됐을 경우 신자들의 혼돈은 더욱 심각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한국교회의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육으로 풀어가자

문제를 알면 해결이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회교리 실천과 관련, 한국교회 신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한마디로 「교육 부재」라고 집약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교회의 경우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대한 교육일 것입니다. 아울러 그 교육은 교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교회의 가장 책임있는 구성원과 기구가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이해와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책임있는 구성원들의 관심과 결심만이 사회적 가르침을 가장 효과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가르침을 신자들의 필수교육 과목으로 설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비자 교육 과정에서부터 이를 교과과정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신자들을 위해서는 가톨릭계 학교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수가 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한 단기 교육과정을 설치하는것도 필요하고 물론 성직 수도자들을 위해서도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직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한 교육은 전체 신자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도 전제되어야 합니다.

계층별로 다양한 평신도 전체를 교육하기 위해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대한 다양한 해설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르침을 우리말로 번역 출간하는 일과 더불어 그 가르침을 정확히 알아듣고 생활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이해하기 쉬운 해설집을 출판하는데 관심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신자들을 위해 이 해설집은 중요한 삶의 지침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평신도 사도직이 활발합니다. 이번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평신도 사도직협의회를 비롯 많은 사도직 단체들을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첨병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무수한 일꾼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지난 FABC 제 5차 총회 최종 성명서도 「가톨릭 교인들에게 교회의 사회적 교리를 전반적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양성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처지에 적합한 복음 선포자가 될 것이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등을 비롯 평신도 단체들은 지금까지의 단편적인 교육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평신도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중요한 선택을 결심해야 합니다. 급격한 경제성장의 풍요 뒤에서 무너져가는 사회와 가정의 질서를 되찾는 일이야말로 우리 평신도들에게 맡겨진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일에는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존종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기위한 일련의 활동을 위한 교육, 즉 평신도들을 위한 교육에 교회는 아낌없는 투자로 뒷받침해야만 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평신도 자신들입니다. 공부하는 것 보다는 활동하는 것에 보다 익숙한 한국의 평신도들은 이제부터라도 사회의 쇄신을 자기의 특별한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이 사회가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회전반을 쇄신하고 복음화하는데 있어 평신도들은 으뜸가는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가정을 사회적 가르침의 제1의 실천장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의 기초공동체인 가정의 복음화는 곧 사회의 복음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자하는 새복음화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평신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아시아 14개국을 대표해 제1회 아시아 평신도회의에 참가한 우리는 94년 9월 4일 부터 9일까지 한국 수원 아론의 집에 모여 「평신도의 교회사명 참여－사회적 가르침 실천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에 대해 성찰했다. 이 회의는 교황청 평신도위원회,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평신도위원회,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 회의에는 교황청 평신도위원회 위원장 에두아르도 피로니오 추기경, 한국의 김수환추기경과 아시아 각국 평신도사도직 위원회 담당 주교들이 함께 참가했다.

교황성하께서는 우리 모임에 메시지와 축복을 함께 보내주심으로써 평신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셨다. 이번 아시아 평신도회의는 소공동체에 적용될 독특한 그리스

도 중심적이며 참여적인 방법론을 통해 평신도의 사명과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연결시키려는 희망속에 열렸다. 우리는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 가정, 직장, 타종교인들과의 생활의 대화라는 세가지 필수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췄다.

· 모든 형태의 생명을 증진시키고 모든 인간 존재는 신성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차별받고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 일한다.

· 젊은이들과 가난한 이들, 특히 착취당하는 이들, 나이 어린 노동자들과 차별받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인다.

·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각종 조직과 기초교회 공동체들에서 그 가르침을 함께 성찰하고 연구한다.

- 우리는 우리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불리웠음을 명심한다.
- 공동의 관심사를 지닌 사람 및 집단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생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교회지도자들과 협력해 사회적 가르침에 대한 교육 기회를 조성한다.
-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고 더욱 진정으로 인간적이고 발전을 가져오는 단순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교회의 생활과 사명에 있어서 평신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됐다. 아시아 시민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떨쳐 일어나 다른 아시아 국민들과 함께 더 살기좋은 땅을 창조하기 위해 일할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자.

(54 쪽서 계속)

새로 형성된 우정은 사실 아시아에서의 우리의 전망에 대한 표징이었다.

우리는 제1회 아시아 평신도회의를 마치면서 교황성하께 기도와 축복을 겸손하게 청한다. 그리고 우리는 1995년 1월 아시아와 전세계의 젊은이들을 만나러 제10차 젊은이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교황 성하를 환영한다. 우리는 이 모임을 복되신 성모의 손에 의탁한다.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의 호의를 전하면서 우리는 교화 성하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새롭게 전한다.

제1차 아시아 평신도회의 참석자 일동

아시아 평신도회의 교황 요한 바오로2세에게 보내는 편지(94년 9월 8일)

친애하는 교황성하

오늘 우리는 복되신 동정마리아 성탄 축일을 기념하고 제1회 아시아 평신도회의 폐막을 앞두고 교황성하의 메시지와 축복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특히 교황청 평신도위원회 에두아르도 피로니오 추기경의 참석은 아시아에서의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교황청의 관심과 배려의 분명한 표시입니다.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과 관련된 이번 회의의 주제는 복음과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려는 노력을 더욱 심화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들에게 더욱 깊이 깨우쳐주었습니다. 아시아 각국 상황에 대한 보고는 현세적 환경에 헌신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영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록 거대한 아시아 대륙에서 우리는 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있어 항상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희망과 기쁨, 가난과 후진성등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서로 나눔으로써 우리는 교황 성하의 첫번째 서한 「Redemptor Hominis」 부터 「새로운 사태」 (노동헌장, Rerum Novarum) 반포 1백주년 기념 서한 「백주년」 (Centesimus Annus)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이 아시아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준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처럼 아시아 교회가 사회적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신도들의 대다수가 가장 가난하고 미약한 이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해야 한다. 이는 곧 온전한 인간 발전을 위해 다른 종교인들과 함께 협력하도록 요청한다. 이를 위해 다른 종교전통과 관습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교황 서한 「Familiaris Consortio」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가정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가치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길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산업화 이전, 산업화, 그리고 산업화 이후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제기되는 지구 차원의 경제, 정치 및 사회적 도전의 한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영웅적으로 증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평협이 주최한 이번 회의는 우리에게 복음화와 참된 인간발전의 지속적인 작업에 다시금 우리 자신을 헌신하도록 고무했다. 우리는 이제 막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우리는 가난한 교회와 부유한 교회가 영적 유대와 자원의 나눔을 통해 협력하는 것은 교회의 유대를 드러내는 표징임을 깨달았다. 우리는 사회발전과 변혁에 있어서의 협력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고 이런 협력은 서로 다른 「세계들」 (참고;Sollcitudo Rei Socialis, no.32)간에 반드시 나누어져야 한다고 확신한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들의 유대」에 대한 우리의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와 주교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 며칠동안 서로 나눔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공동의 전망을 갖게 됐다고 느꼈다. 우리의 일치감과 (53 쪽에 계속)

제1회 아시아 평신도 회의 선언문

참석자 일동

1. 개최배경

1) 아시아 14개국을 대표해 제1회 아시아 평신도회의에 참석한 우리는 94년 9월 4일 부터 9일까지 한국 수원 아론의 집에서 모여「평신도의 교회사명 참여－사회적 가르침 실천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숙고했다. 이번 회의는 교황청 평신도위원회,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평신도위원회와 한국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교황청 평신도위원회위원장 에두아르도 피로니오 추기경, 김수환추기경, 그리고 아시아 각국에서 평신도사도직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주교들을 포함한 60여명의 대표단이 함께 참석했다.

2) 지난 30여년간 교회의 생명과 선교에 있어서 평신도의 필수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이 깊어져왔다. 이는 우리 아시아 국민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일어서서 모든 이들이 함께 사는 더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 다른 이들과 함께 일해야 할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그룹별 모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한가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생명과 선교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영감의 원천이 되야 할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이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들 안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3)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관심을 아시아 복음화 사명에 맞추기 위해 평신도의 역할과 사회적 가르침을 연계시키고 가정, 노동현장과 아시아의 다른 종교인들과의 대화에서 시작하려고 한다.

2. 목적

이회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깊게 한다.
-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있어서의 도전들을 이해하고 우리의 헌신을 강화한다.
-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평신도 대다수가 접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한다.
- 아시아 교회들간의 유대를 강화한다.

3. 도전들

1) 각국 대표단은 각 지역 교회들이 직면한 도전들을 설명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들은 아시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여주는데, 이는 극도의 가난에서 극도의 부유함, 위협받는 시골에서 부서지고 혼란에 빠진 도시 지역, 산업화 이전의 상황에서 산업화 이후의 사회까지 다양하다. 선진국들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세계 경제질서, 사회적 불의, 인종차별, 가난, 문맹, 무장 분쟁, 어린이 노동, 소수민족에 대한 억압과 여성 착취들은 참된 그리스도교적 증거와 응답이 긴급하게 요청되는 주요 문제들이다.
2) 그리스도교 공동체들 안에서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대한 지식의 부족은 각 지역 교회에서 이를 보다 폭넓게 알리고자 하는 참가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문제시됐다.

4. 긍정적 경험들

1) 참가자들은 그들이 직면한 엄청난 어려움에 결코 굴하지 않았고 고통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국민들에게 응답하고 있는 개인과 집단들에 의한 여러가지 모범적 시도들에 고무됐다.
2) 평신도는 사회적 깨달음을 제공하기 위해 신자들 사이에 교육을 증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평신도들은 복음화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고 있음으로 인해 고무되고 있다.
3)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국가적 정체성을 발견해왔음은 기쁜 일이다. 또 그들이 단호하게 자신들의 존재가 자기 나라에서 평등한 시민으로 인정되도록 노력해왔다는 것 역시 기쁜 일이다. 많은 평신도 그룹들은 분주하게 각국 주교회의의 지도에 따라 자기네 국민들의 사회,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그리스도인 그룹들은 자연환경의 파괴를 저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그들은 사람들이 환경의 보존과 재활용을 위해 일하도록 독려했다. 그들에 따르면 자연에 대한 존경은 생명에 대한 존경의 결과이다.
5) 매일 저녁 사람들은 상호 문화적 교류를 가질 기회가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와 노래, 춤과 음악, 이야기와 드라마를 통해 아시아의 영적인 풍요함과 깊이를 알 수 있었다.

5. 방법론

1) ASIPA(아시아의 온전한 사목적 접근) 방법론은 일정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의 우리 자신들의 경험에 의존할 것을 요청했다. 강의를 듣는 것보다 참가자들은 보다 실용적인 워크숍을 통해 서로를 나누고 배웠다.
2)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은 이번 회의의 중심부분이었다. 가정생활, 사회문제와 종교간 대화에 대한 토론에서 우리의 태도와 습관은 지속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이 지닌 힘에 도전받았다. 이 방법론은 참가자들의 교육적 경험인 동시에 자기 나라의 상황에서 사용,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했다.
3) 우리 공동의 기도시간과 전례는 이번 회의의 온전한 부분이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배의 기획과 수행에 참가했을 때 거기에서 매일의 주제와 문제들이 기도의 맥락 안에서 묵상됐기 때문이다.

6. 전망

1) 이번 회의는 평신도, 수도자와 성직자의 교육을 위해 온전한 접근의 필요성을 명백하게 밝혀냈다. 개인적인 신앙 생활과 사회적 관심의 표현 사이에 갭을 연결시킬 필요성이 있다. Christifideles Laici, Familiaris Consortio와 Redemptoris Missio의 세가지 교황 문헌들은 이번 회의의 준비연구와 배경자료로 사용됐다.
2) 우리는 공동체들의 유대를 교회의 전망으로 검토했는데 이는 1990년 반둥에서 열린 아시아 주교회의에서 개괄되고 어떻게 이런 전망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 워크숍이 열렸었다.
3) 다른 종교전통의 풍요한 유산을 제대로 평가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 질병들에 대해 응답하기 위해 어떻게 상호불신을 극복하고 조화롭고 생산적인 교류와 협력을 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7. 우리의 공헌(헌신?)

우리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우리 자신을 투신해야 한다.

1) 각 인간 존재는 신성하다는 원칙, 그리고 사랑, 존엄성과 모든 인간의 평등과 같은 가치가 강조돼야 한다.
2)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형태의 생명을 증진하고 모든 사회 영역에서 차별받고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 일하도록 고무한다.
3) 평신도, 수도자와 성직자들의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한다.
4) 전인적이고 책임있는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공적 교육과 함께 가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5) 우리의 노력이 그 원래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더욱 깊은 영적 기초를 위해 매일 기도, 묵

상과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

6) 공통의 사회적 관심을 가진 개인, 기구, 정당과 협력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예컨대 억압받는 이들의 해방, 소명 훈련, 그리고 양식, 의약품과 교육 등의 지원.

7)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여성과 소수 집단의 위치와 존엄성을 존중한다.

8) 젊은이,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그들을 우리 계획과 행동 범주안에 포함시킨다.

9) 중요한 지역문제를 다루기 위해 우리 영역 안에 사회활동 그룹을 설치한다.

10) 다른 사람들의 종교를 존중하고 사상의 비교 연구를 하며, 문제가 있는 곳에서는 실제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11) 개인적 투신보다는 집단화되고 조직적인 노력이 보다 효과적임을 명심한다.

12) 대표단은 귀국후 개인, 교구, 지역과 국가적 차원에서 이번 회의의 모범을 진지하게 따른다.

13)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단순한 생활 습관을 갖는다.

8. 호소

우리는 겸손하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한다.

1) 교회 지도자들은 사회정의를 증진하고 가난한 이와 억압받는 이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운동과 사회활동에 있어서 평신도들의 운동을 도와주고 조직화하며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 평신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교육을 위해 주교들과 상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야 한다.

3) 모든 교구의 주교들은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실행을 위해 능력있고 책임감 있는 평신도들과 함께 각 본당의 사회문제 관련 그룹들을 조직하고 고무해야 한다.

4) 「백주년」, 「Laborem Exercens」, 「민족들의 발전」, 「새로운 사태(노동헌장)」 등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은 평신도 지도자, 신학생, 사제, 주교와 수도자들의 교육과 「계속 교육」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야 한다.

5)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관련된 문헌과 교황회칙들은 교구, 지역이나 국가 차원에서 전문 전체 또는 요약되어 각 지역 언어로 번역되야 한다.

6) 각 교구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 그들과 함께 하는 소명 훈련 프로그램들을 수행해야 하고 실업자들과 결핍된 이들을 도와야 한다.

7) 더 많은 자원과 주의가 사회악의 원인과 그 해결책의 연구에 투자되야 한다.

8) 정기적인 소식지, 세미나, 교류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커뮤니케이션 채널들이 상이한 국가, 지역이나 교구간의 어려움, 경험과 성공 사례들을 나누기 위해 마련돼야 한다.

9) FABC 평신도 사무국은 아시아의 모든 주교들에게 평신도와 함께 하도록 긴급 요청해야 한다. 이는 공동체들의 유대로서 교회의 「새로운 전망」과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실행하고 확산시키는데 있어서 평신도의 참여가 갖는 중요성을 진지하게 연구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9. 결론

한국 가톨릭 공동체의 환대는 오랜 우정을 더욱 깊게 했고 아시아의 지역 교회들간 동료애의 새로운 유대를 형성했다. 서로의 경험을 풍부하게 한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친 후 우리는 새로워진 개인적 신앙,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고 또한 모든 하느님 백성의 교회의 생명에 대한 참여 가치를 보다 깊이 이해하면서 귀국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두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 살고 일하는 다양한 구체적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사랑과 자비를 증거하도록 강력하게 요청받고있다는 확신을 어느때보다도 강하게 가지게 됐다.

폐회 인사

평협 회장 이관진

존경하올 피로니오 추기경님, 김수환 추기경님, 락다메오 주교님, 여러 주교님들, 신부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이 만남이듯이 헤어짐은 또 언제나 우리를 섭섭하고 슬프게 합니다. 불과 사흘 낮과 밤을 함께 보낸 우리들이지만 오랜 친구를 떠나보내듯 우리 한국 평신도들의 마음은 서운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섭섭함 가운데서도 우리는 참으로 행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생동하는 모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민족과 문화는 달라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안에 한 형제자매임을 깊이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아시아 평신도회의를 통해 우리는 나 자신부터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야 하고 그 빛으로 가정과 직장, 나아가 우리가 속한 모든 사회를 복음화해야 하는 사명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나누는 연대를 통해 아시아 평신도들에게 맡겨진 교회의 선교사명에 보다 강력하게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도 함께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헤어지지만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으로 재무장하고 이세상 전체를 복음화해나가는 도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협력자로, 또 조언자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날을 기약하면서 여러분께 감사와 더불어 용서를 청합니다. 미숙한 준비와 부족한 진행으로 자주 드러나는 우리들의 실수를 사랑으로 감싸주신 여러분들의 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아시아 평신도회의 참가자들을 위해 민박으로 형제적 사랑을 베풀어주신 메리지 엔카운터 가족 여러분, 만찬을 준비해주신 레지오마리애, 여성연합회, 꾸르실료 여러분, 회의 준비와 진행으로 수고해주신 우리 평협 임직원 여러분, 모든 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좋은 장소를 제공해주신 성 라자로 마을 이경재신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어 격려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신 피로니오 추기경님, 김수환 추기경님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만납시다.

폐막 미사 강론

1.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는데 이분을 그리스도라 부른다" (마태오 1, 16). 오늘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성탄축일입니다. 먼저 갖게 되는 느낌은 커다란 기쁨입니다. 오늘의 전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녀, 당신의 탄생으로 온 세상에 기쁨이 선포되었습니다. 정의의 태양, 우리 하느님 그리스도 당신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Laudes, antifona ad Benedicum).

이러한 기쁨의 분위기에서 제1차 아시아 평신도 회의가 미사로써 끝을 맺게 됩니다. 성령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제 개인과 교회의 책임에 대한 섭리의 시간이었으며 또한 여러 주교님, 신부님,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 모두와의 공동 책임에 대한 섭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새롭고 진정 부활의 새소식을 접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묵시 21, 5). 마리아의 탄생은 새로운 시대와 시대의 종말, 때가 찬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때가 찼을 때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 (갈라 4, 4).

오늘의 복음은 "그리스도라고 불리워진 예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 엠마누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셨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새시대의 도래, 마리아의 성탄 축일인 오늘, 과연 아시아를 순례하는 하느님의 교회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일까요? 하느님의 말씀과 성체로 깊이 양분을 취하고 인간 개개인과 전 인류의 온전한 구원에 전적으로 투신된 친교의 교회가 필요합니다. 특히, 성덕에로, 선교 사명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리고 인간과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복음을 생활하도록 불리워진 평신도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세속에 섞여 살며 복음을 삶으로써 세상의 누룩과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2. "세상에 동정녀의 탄생으로 서광이 밝혀졌다. 복되다 그를 낳은 백성이여, 거룩하다 그의 기원이여, 복되다 그 열매여" (Laudes, 2 Amtifona).

마리아, 그분은 예수님의 첫 여성 제자였으며 어머니요, 첫 여성 평신도, 나자렛의 겸손한 목수, 요셉의 아내였습니다. 이에 비추어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세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 기도 :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루가 11, 28). 여러분은 경청하는, 묵상하는, 관상하는 남자, 여자들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강인하고, 평온하며 티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b. 증거 :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 1, 8).
성령으로 갈아입고 여러분은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를 알리고,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예수를 알아보고 섬기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언행일치의 삶을 사십시오. 신앙과 생활이, 성덕과 선교사명이, 복음화와 전인적 향상이 서로 일치되어야 합니다.

c. 행실 : "이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가 1, 38). 여러분의 삶이 형제들에게, 특히 가장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뜻에 언제나 평온하고, 기쁘게, 온전히 열려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 2, 5).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께 봉사하십시오. 진정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택하십시오.

3. 이 모임의 개막에서 교황님의 메시지는 여러분을 희망에로 초대하시며, 새 복음화의 방법과 결실로써 여러분의 사회 참여를 권유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곳의 상황이 심각하며 어떤 곳은 매우 비극적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사십시오.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선교적 친교의 신비인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가 되는 기쁨을 체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입니다.(곧 구원의 하느님) 또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즉 복음을 위해 봉헌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엠마누엘입니다.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바로 하느님 사랑의 강생으로 우리곁에 오시어 세상에 현존해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축일을 지내는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서 우리의 소망과 결실을 거두어 주시기를 빌며, 우리의 사랑과 희망의 보행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빕니다.
"복되신 하느님의 어머니, 당신의 탄생으로 온 세상에 기쁨이 선포되었습니다. 아멘."

"사회교리 실천으로 아시아의 복음화를 ....."

-아시아 14개국 평신도 대표들, 아시아 복음화와 평신도의 교회 사명 참여 논의-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교황청 평신도 위원회(P.C.L),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FABC)평신도 위원회와 함께 1994년 9월 4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 의왕시 성 라자로 마을 등지에서 첫번째 아시아 평신도 회의를 개최했다.

'평신도의 교회사명 참여 : 교회의 사회교리 실천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다룬 이번 아시아 평신도 회의는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필리핀, 싱가폴, 인도네시아,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타일랜드 등 14개국 대표단과 FABC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황청 평신도 위원회 위원장 에두아르도 피로니오 추기경 주재로 열려 '아시아 평신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제 1회 아시아 평신도 회의 성명서'를 채택했으며 아시아 평신도 회의 참석자 일동 명의로 '교황님께 드리는 편지'를 피로니오 추기경에게 전달했다.

8일 폐회에 앞서 발표한 메시지와 성명서에서 각국 대표들은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 평신도들이 앞장 서서 투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 가정, 직장, 타종교인들과의 생활의 대화라는 세가지 중요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히고 생명권 수호와 환경보호에 힘쓰고,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적극 호응해 "차별 당하고 억압 받는 이웃을 위해 일할 것"을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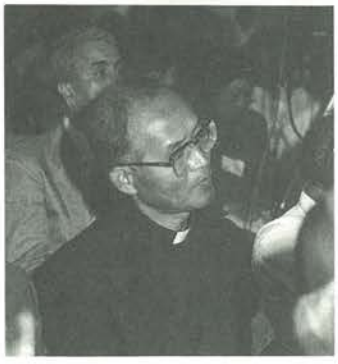
참석자들은 교황께 드리는 편지에서 "이번 회의의 주제는 복음과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려는 노력을 더욱더 깊이있게 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었다"고 지적하고 "아시아 각국 상황에 대한 보고는 현세적 환경의 개선에 헌신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영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편지는 또한 "아시아 교회가 사회적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신도들 대다수가 가장 가난하고 미약한 이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다른 종교 전통과 관습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교황의 사도적 권고 '가정 공동체'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가정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가르침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쓰고 있다. 이어서 "교회의 길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산업화 이전, 산업화, 그리고 산업화 이후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제기되는 지구 차원의 경제, 정치, 사회적 도전의 한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영웅적으로 증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참석자들은 의견을 집약했다. "사회발전과 변혁에서의 협력은 서로 다른 '세계들'간에 반드시 나눠져야 한다"고 지적한 이 서한은 "이것이 바로 '공동체들의 유대'에 대한 우리의 전망"이라고 했다.

국악성가로 개막미사

4일 저녁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성 라자로 마을 아론의 집에 도착한 각국 대표들은 전체회의 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 등 친교의 시간을 가진데 이어 5일 오전 9시 20분 라자로 마을 성당에서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 주례로 개막미사를 봉헌했다.

김 추기경은 강론에서 "세상의 복음화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요, 하느님 구원의 사랑으



로 세상을 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하고 매일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한 김수환 추기경은 "그리스도께 대한 증거는 때로 순교와도 같다"고 지적하고 "성체성사와 단순한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 필요한 힘을 얻는 것이며 그 사랑으로써 세상은 변화되고, 그 사랑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빛이 비추인다"면서 "이번 모임을 통해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깊이 알아 듣게 되기를 빈다"고 기원했다.

이날 개막미사는 김수환 추기경과 교황청 평신도 위원회 위원장 피로니오 추기경 외 서울대교구 강우일 보좌주교, 한국 주교회의 의장이며 대구대교구장인 이문희 대주교, 광주대교구장 윤공희 대주교, 수원교구장 김남수 주교, 전주교구장 이병호 주교, 안동교구장 박석희 주교, 대구대교구 서정덕 보좌주교와 김영환 몬시뇰, 주교회의 사무총장 백남익 신부, 마산교구 총대리 김용백 신부, 서울대교구 김인성 신부, 대전교구 이범배 신부, 성 라자로 마을 책임자 이경재 신부 등 국내 성직자와 FABC 평신도 위원회 위원장 락다메오 주교와 타이페이 대교구장 티캉 대주교, 뉴델리 대교구장 알란 델라스틱 대주교, 이밖에 각국 평신도 담당 주교, 지도신부 등 모두 30여명이 공동 집전했으며 성가는 백남용 신부가 지휘하는 인보 성체 수녀회 국악 성가대가 맡았다.

개 회 행 사

오전 10시 30분에는 라자로 마을 맞은편 훠꼴라레 운동 한국본부가 신축한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마리아 뽈리 센터' 대강당으로 옮겨 개회식을 가졌다.

각국 대표와 초청인사 등 13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개회행사에서 이관진 한국평협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한국 교회로서는 한국 순교성인 시성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이처럼 뜻깊은 해에 아시아 평신도 회의를 이곳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참으로 의의가 크다"고 말하고 "10년 전 103위 순교복자들에 대한 시성식과 한국교회 200주년을 기념할 때 내건 구호가 '이 땅에 빛을'이었다" 면서 "이 땅 한반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한국 신도들이 선교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열망했던 것"이라고 소개하고 "아무쪼록 '사회적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평신도의 교회 사명 참여'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아시아 평신도 회의가 그분 뜻 안에서 빛나는 결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강우일 주교는 환영사에서 "한국 주교단의 일원으로서, 또한 서울 평협을 책임진 주교로서 모든 참석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회의가 아시아 평신도들의 사도직 활동의 발전을 가져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이번 회의 주제와 관련해서 복음화의 새로운 조류를 일깨워 주신 현 교황님의 '2000년대를 향한 접근' 과도 시의 적절한 선택이며 서울에서도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1990년 반둥에서 열린 FABC 총회가 제시한 소공동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이문희 대주교는 환영사에서 "이번 아시아 평신도 회의는 아시아 각국 교회의 평신도 사도직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수원교구장 김남수 주교는 "수원교구 관할인 이곳에서 아시아 평신도 회의가 열린 것을 감사하며 여러분을 환영한다"고 인사했다.

개회식에서는 또한 FABC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평신도 위원회 코라 마테오 총무 사회로 한국 평협 부회장이며 교황청 평신도 위원회 위원인 한홍순 교수가 이번 아시아 평신도 회의를 갖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모든 이에게 빛을, 특히 아시아 젊은이들에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메시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번 아시아 평신도 회의에 보낸 메시지에서 "행동의 증거를 실천하는 것은 교회 구성원의 의무"라고 전제하고 "아시아의 가톨릭 인구는 큰 민족들 가운데에 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좌절의 원인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주님 친히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는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리는 작은 누룩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마태 13, 33 ; 루가 13, 21)고 상기시킨 다음 "신자들의 생활과 사랑의 증거는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될 것이며 기쁨과 희망의 횃불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의

미를 다른 이들에게 보여 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까지도 제자가 되도록 초대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황은 "피를 쏟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거한 한국 순교자들의 대다수는 평신도 남녀들이었다"고 말하고 "그들이 뿌린 씨는 싹을 틔워서 오늘날에도 계속 자라고 있으며 그들의 빛은 꺼진 것이 아니라 더 한층 반짝이고 있으며, 그 빛을 밝히는 임무는 오늘날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들에게 맡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교황은 이 메시지 끝 부분에서 "신앙인 각자는 이 빛을 모든 이들에게 비춰줘야 하며 특히 아시아 젊은이들에게 비춰야 한다"면서 그 이유로 "그 젊은이들은 이 희망의 상속자이며 뿌린 씨를 거둘 사람들이며 또 씨를 뿌릴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이어서 "아주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이 회의는 본인이 참석하게 될 마닐라 대회의 준비가 될 것이며 그곳에서 본인은 아시아와 세계 도처의 수많은 젊은이들과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회의서 국별보고 가져

개회식이 끝난 후 아론의 집 회의실에서 시작된 본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FABC 평신도 위원회 위원장 안젤 락다메오 주교로부터 2천년대 복음화를 위해 아시아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 모델인 소공동체 운동에 관한 설명을 듣고 아시아 상황에서 사회교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분임토의를 가졌다.

또한 이날 저녁부터 사흘동안 참가 14개국 대표들로부터 각국의 교회 상황과 평신도의 사회교리 실천 사례를 소개하는 국별 보고를 들었다. 참가국들은 이번 회의에 평신도 담당 주교

와 여성, 청소년 대표를 포함한 4명씩의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한국은 김수환 추기경이 줄곧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강우일 주교를 비롯한 김인성 신부, 이관진 회장, 한홍순 부회장, 정정순 부회장, 손춘수 마산평협 회장, 김건일 인천평협 회장, 이윤자 강수길 최홍준 분과위원장 등 10명의 대표단을 파견했으며 국별보고는 문안작성 소위원회 (한홍순, 최홍준, 이윤자)를 통해 보고서를 대표집필한 이윤자 가톨릭신문 취재국장이 담당했다.

문화의 밤, 성지순례, 교황대사 만찬

회의기간 중 매일 저녁 9시 부터는 문화의 밤 행사가 아론의 집 식당에서 열려 각국의 민속 음악과 전통 무용 등을 소개했다. 월요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나라의 시간을 가졌는데 서교동 본당 김종국 신부가 이끄는 우리 소리 국악 관현악단이 출연해 우리의 멋과 가락을 선보였다. 화요일에는 남아시아, 수요일에는 동남 아시아 참가국들의 문화를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또한 3일 동안 만찬은 레지오 마리애 서울 세나뚜스 (단장 강형일)와 여성연합회 (회장 정정순), 꾸르실료 전국 협의회 (주간 유양수)가 베풀고 각기 단체 활동을 각국 대표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9월 8일 오후 6시 명동 주교좌 대성당에서 피로니오 추기경과 참가국 주교단, 사제단 합동으로 이번 아시아 평신도 회의의 성공을 감사드리며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 미사를 봉헌한 참가자들은 이어 가톨릭 회관 3층 강당에서 한국평협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이날 감사 미사와 만찬에는 서울의 각 본당 사목협의회 회장과 단체장, 그리고 이번 행사에 외국 대표들을 위해 민박봉사를 자원한 M.E 가족들도 함께 했다.

각국 대표들은 9일에는 새남터와 절두산 순교성지를 순례하고 103위 한국 순교성인들의 시성 10주년의 뜻을 기렸으며 오전 11시 절두산 성당에서 FABC 평신도 위원회 위원장 락다메오 주교 주례로 봉헌한 미사는 우리 소리 국악 관현악단의 반주에 따라 전 참가자들이 개창으

로 국악 성가를 불러 진한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이날 오찬은 서울 평협 제2지구(회장 송동환)가 맡아 사귐과 나눔의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저녁 궁정동 주한 교황 대사관에서 교황대사 죠반니 블라이티스 대주교가 베푼 만찬에는 80여명의 국내외 초청 인사들이 참석해 아시아 평신도 회의 참석자 일동을 대표해서 동아시아 대표로 홍콩의 이유 샤우 힝, 남아시아 대표로 인도의 버지니아 솔단하, 동남 아시아 대표로 필리핀의 디토 아간이 서명한 '교황 성하께 드리는 편지'를 피로니오 추기경에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 중 포교 성 베네딕도 수녀회 백젬마 수녀와 그리스도 성혈 흠숭 수녀회 이글라라 수녀, 성심회 한순희 수녀가 영어 통역을, 외국어대학 안젤라 미스뚜라 교수와 미켈레 라우리올라, 이영 루제, 한미숙 코린, 마르비 뚤라우안, 죤 라우, 토니 타레오 등 훠꼴라레 회원들이 이태리어 통역을 맡아 회의를 한결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94 9 9

준비위원회 활동과 평가회

이번 행사를 위해 한국평협은 4월 12일 준비위원회를 구성, 매주 토요일 오전 7시에 모여 회합을 갖고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한 바 있다. 이관진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준비위원회는 부위원장에 한홍순 손인호 김영진 정정순 오용길 강형일 부회장을, 사무총장 류덕희, 기획 정구영 강수길 신현철, 전례 김득수 이보나 수녀, 진행 손병두 박상일 권용수 이상훈 민경양 이정희, 홍보 최홍준 이윤자, 시설 허기 김연태, 기록 조천제 김영걸, 섭외 육종권 김진석, 의전 안원섭 이광호, 친교 민기호 최재현, 봉사 손연숙 이용남, 그리고 자문위원에 오만진 손춘수 한재금 박인환 권무영 이계열 김건일 황의옥 박선홍 박종구 방재철 편장원 유용근 남중화 이택용 유양수 회장 등이 참여했으며 강주희 김소희 이현주씨가 사무국 요원으로 봉사했다.

준비위원회는 12일 오후 평협 회의실에서 김인성 지도신부가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이관진 회장 주재로 행사 전반에 걸친 평가회를 갖고 각 부서별 보고서를 취합해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94년 아시아 평신도 회의를 다녀와서

김건일 요 한
인천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장

몹시도 무더웠던 여름, 휴가를 내서 피서라도 다녀 오고 싶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아시아 평신도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당초의 계획대로 여름을 다 보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9월 첫 주일날, 간단한 여행가방을 들고 회의 개최지인 안양 "아론의 집"을 향하여 집을 나설때의 기분은 먼 외국으로 출발할 때보다 더 설레이는 것 같았다.

두분의 추기경님을 비롯하여 많은 주교님, 신부님들께서 참석하셨고, 교황님께서 아시아 평신도 회의를 위하여 보내신 메세지를 보면서 이 회의가 아시아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회의인지를 실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들었다가 우리 인천교구 평협 임원들과 각 본당회장님께 잘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 하기로 결심하였다.

회의 기간 중에 빡빡하게 짜여진 일정에 따라서, 강의도 듣고 소그룹작업을 하면서 값비싼 보석을 얻은 것 같은 귀중한 경험을 하였다.

복음화라는 말을 여러번 들으면서도 그것이 단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뿐만이 아니라, 나의 생활이나 행동, 태도, 말씨가 복음에 따르도록 해야 하며 혹시 나 자신이 복음화하는데 부족함이 있더라도 집안 식구나 자주 만나는 이웃, 직장동료들에게 올바른 것은 올바르다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마음 먹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복음화임을 알게 되었다.

특히 아시아 평신도 회의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사회를 복음화되게 하기 위하여, 회사 운영을 사원들에게 공개하고, 세금을 원칙대로 냄으로써, 부패한 세리들과 맞서 나가는 용감한 한 여성의 체험담과, 청소년들에게 공해를 줄이고 하느님의 창조질서대로 사는 것을 경험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신분을 버리고 오두막에서 생활을 한 어느 박사의 생활 증언은 나 자신을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으며, 나 자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화된 삶을 살아보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끼게 해 주었다.

그분들의 얼굴빛에서는 현사회에서 받는 압력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당당하게 복음화 해 나가는 데서 오는 희망과 기쁨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우리들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제자를 가르치시고, 또 그 제자들이 많은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셨듯이 20세기 말을 살아 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 가르침을 주어야 겠다고 결심했다.

이 세상이 알아 듣고, 이해하고,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우리들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겠다고…… 또한 이러한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그분들을 통하여 보았으며, 그 일들이 얼마나 커다란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보았다.

정의와 평화에 대하여 말하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사명이므로 농촌 살리기, 인간 생명 존중, 환경 보전 운동이 바로 현대 사회를 가르치는 것이고 복음화하는 것임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절실하게 느꼈다.

그리고 평신도의 역할이 이 세상의 복음화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 지를 강조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30년이나 지났는 데도 아직까지 성직자 중심인 한국 교회는, 괄목할 만 한 신자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 복음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의구심이 가고, 냉담자의 증가와 격무에 지친 사제 등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 않은가! 회의 중에 경험한 소공동체의 복음나누기는 나를 포함한 우리들의 복음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현실적인 방법임을 공감하게 해 주었다.

그러나 평소에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털어놓고 싶어도 말을 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인식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에 단시일내에 보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짐작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당 신부님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마음을 함께하여 노력만 한다면, 2000년대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복음나누기는 하느님 나라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리라는 확신을 갖도록 해주는 복음화의 좋은 실천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회의가 끝나고 교구에 돌아가면, 이런 새로운 소식들과 아시아 평신도회의의 움직임을 우선 우리 교구의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알리고, 더 나아가서 동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듯이 솟구쳐 올랐다.

우리는 식사시간에 우리나라 각 교구에서 참석하신 교구평협 회장님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번 아시아 평신도회의의 주제인 「사회적 가르침(사회교리)」을 실천할 수 있다는 확신이 굳어졌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식구들과 복음나누기 7단계를 하고, 또 지도 신부님과 의논하여 다음달 인천교구 평협회의에서도 복음나누기를 당장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마치 바람이 가득 찬 고무풍선 처럼 나의 마음을 들뜨게 해 주었다.

그리고 비록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아시아 각 나라에서 참석하신 주교님, 남자 평신도와 여자 평신도, 또 청년 대표들과 만나면서, 우리 교구에서도 평협활동에 여성과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해 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4박5일 동안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준비와 동시통역, 맛있고 넉넉한 음식등, 많은 준비를 헌식적으로 해 주신 준비위원들과 전국 평협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회의를 통하여 얻은 귀중한 보석인 사회교리와 복음나누기로 교구내 임원들의 마음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우리집에서도 어머님과 아내, 그리고 4명의 자녀들, 이렇게 7식구가 복음나누기 7단계를 통하여 얻은, 금주의 실천사항으로 "남의 말 귀담아 들어주기" 라고 정한 것을 큰아들놈이 거실 칠판에 써 놓은 글귀를 보면서 나는 우리 가정에 늘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다.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 착한이에게 평화"

한 재 금 베드로
부산교구 평협회장

먼저 한국평협 제2호의 출간을 축하드리며 주님의 사업에 열심히 동참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깃들기를 기도 드리며 갑술년 한해를 뒤돌하보며 을해년을 설계하려 합니다.

작년에 우리 부산교구 평협에서는 35개 본당을 대상으로 바오로서원과 협조하여 본당수회전시를 했다. 책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터득하여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의 중요성을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으리라 본다.

특히 개신교 신자들에 비해 우리 가톨릭신자들의 성서 이해 부족이나 성인들의 서적등을 많이 읽지 않는 단점들의 아쉬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각 본당을 순회하면서 각 본당 사목위원들의 협조아래 그래도 흡족한 실적을 남겼다. 그 결과 양서나 가톨릭 서적 10,698권, CD 259개, 카세트 테이프 4,895개, 비디오 테이프 155개가 판매되었다. 비디오를 통하여 본당 신자들에게 홍보를 시작했다. 책의 중요성과 유익성을 홍보하면서 지루하게 여기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비디오를 보는 신자들을 보며 꼭 그들이나마 책을 보지 않겠는가하는 자부심을 가졌다.

그래도 미심쩍어하는 마음이랄까 노파심이랄까 확실히 한권의 책이라도 읽히기 위해서 아니면 단 한번의 순회전시는 일시적인 것이기에 영구적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교회서적을 읽게 하기 위해 각 본당의 적당한 장소에 도서실을 설치했다. 그러면 두고두고 오랜기간 동안 틈나는 동안 레지오 주회도 마치고 볼 것이고 성가단원들도 성가연습이 끝나면 여가를 틈타 볼 것이고 사목위원들도 각 액션 단원들도 자기의 자유시간에 언제든지 와서 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구에는 8개 지구로 나뉘어 있는데 각 지구별로 평신도의 사도직 활동을 추진시키고 복음 전파와 성화를 위해 본당과 본당, 회원 상호간에 사도직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교환하고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교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별 모임을 가졌으며 불우이웃돕기 냉담자를 찾아내어 방문하고 인사함으로써 소식이 없는 주위의 교우들을 찾아 서로 연락하며 신앙 생활을 고취시키기 위해 경험담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서로 사랑할 줄 알고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신앙생활을 열심하게 했다.

평소 우리 교구의 사목 지표 '선교하는 교회와 생명윤리'대로 살아가기 위한 새 다짐을 하는 재인식 신앙교육의 재정비, 이에 따른 모든신자는 자기성화와 신자 재교육, 신심운동에 능

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조하였으며 반모임 활성화 방안으로 전신자의 적극적인 참여, 특히 평협 회원과 본당 사목위원이 솔선수범하여 참여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지나고 보면 뭐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는 것 같고 하느님 보시기에 너무나 미약한 것 같아 고개 숙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올해는 기존 연례행사를 하면서 그래도 뭔가 해 보겠다는 자세로 "평신도 사도직 신앙학교"를 개설하기로 했다. "평신도 사도직 신앙학교"의 목적은 신앙이 식어가는 평신도의 재교육과 평신도 지도자 양성, 본당 사목협의회 위원들의 자결향상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본당 사목위원과 단체장 그리고 일반신자를 대상으로 110명의 모집인원을 모아 년 8회 교육하기로 계획을 세워 준비중에 있으며 우리 농촌살리기 운동 교육을 본당 지도자 교육과 본당교육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교육하되 본당 지도자 교육은 (1)수입개방에 따른 농촌 현실과 전망 (2)수입개방에 따른 소비자의 문제(식탁 오염정도) (3)우리 농촌살리기의 목적과 그리고 운영 (4)생협조직과 관리 그리고 운영의 4가지 주제로 교육을 하며 희망 본당별 담당 예정자 10명씩을 선정하여 교육하기로 했다. 그리고 본당 교육으로는 본당 전체 교우를 대상으로 위의 4가지 교육을 2강좌로 줄여 실시할 예정이다.

식어가는 신앙의 활성화나 재교육등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백번을 해도 부족할 것으로 보이나 차츰 횟수를 거듭함으로써 질과 양이 배가 될 것으로 보이며 한 알의 밀알이 썩어 열매를 맺듯이 결국 주님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신앙을 바탕으로 혼란한 사회를 우리 신자들 스스로 그것으로부터 탈피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UR 라운드의 압력으로 수입식품이나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현 시점에서 우리 가톨릭 신자 스스로 우리 농촌을 살려야 한다는 어쩌면 의무감으로 생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구차원의 교육과 홍보도 중요하지만 개인 스스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 농산물을 먹고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형제 우리의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뇌리에 항상 새기면서 나 자신부터 조그만 것 하나 하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우리 전국 평협 회원과 주님안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은총이 충만 하시길 다시 한 번 기원한다.

사랑과 평화의 도구

강 계 순 크리스티나
시인, 목5동 성당

예수님 시대에는 많은 여성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고, 또 예수님도 여성들에게 특별히 많은 은총을 주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도 '동이 트기전에 준비해 두었던 향로를 들고 무덤으로 찾아갔던 여자들(루가 24,1~2)'이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온전히 그 생애를 바친 사람도 성모 마리아였다.

성모님은 최초의 감실이었으며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기 위하여 온전히 도구로 사용되신 분이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 우리교회가 여성봉사자들의 적극적이고 열성적 봉사에 의하여 든든하게 유지되고 있는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남성들이 논리적이고 분석적인데 비해 여성들은 대체로 감성적이고 정감적이다.

이 감성적인 심성은 하느님의 신비를 받아들이는데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가령 원시사회에서 많은 여성 제사장이 있었다거나 고대로 부터 우리나라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해온 무당들도 모두 여성이었다는 것을 상기하면, 그리고 이 제사장이나 무당을 이 모두 미개한 시대에는 하늘과 땅을 잇는 예언자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상기하면 여성은 신비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하는 능력이 남성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현대에 와서, 특히 그리스도교인의 입장에서는 제사장이나 무당들이 잡신을 믿는 미신행위의 중재자로 보고 있지만, 원시사회에로부터 오늘날까지 여성의 신비체험이나 감성적 심성을 남성의 그것보다 우위에 두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이유 또한 여성들이 남성보다 교회에 열성적인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남성들은 대체로 한가정의 생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봉사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여성보다 훨씬 부족한 편이다.

더구나 요즘처럼 생존경쟁이 극심하고 시간을 다투어 일하지 않으면 자칫 현장에서 밀려나기 쉬운 각박한 시대에 열성적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 남성들은 정말로 대단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된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사회활동을 하는 일부 여성들을 제외하면 대개 가정에서 살림하고 아이 키우는 일로 일생을 보내게 된다.

물론 가정의 일이라고 바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어쩌면 가정의 일이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고달프고 단조롭게 반복되어 심신을 짓누르는 그런 일일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그 시간들을 오히려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여성들은 가정안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모두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드물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봉사단체에 참여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이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를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봉사하는 기쁨,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 하느님이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게 되고 활력을 얻게 된다.

가정에 묻혀서 오직 가족을 위해서만 필요하다고 생각해 온 자신이 또 나를 어떤 일, 특히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도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이 서게 될 때 그 삶은 더없이 빛나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현하려 하셨던 선과 사랑과 평화를 배우고 실천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신앙생활이 주는 영향은 말할 수 없이 크다.

늘 기도하고 봉사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함께 성당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떻게 나쁜 길로 빠질수가 있겠는가? 또 인내와 순종과 평화를 실천하면서 사는 아내가 있는 가정이 어떻게 평화롭지 않을수가 있을 것인가.

하여간 여성들은 천부적으로 부드러움과 사랑과 희생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 특질이야말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데 가장 필요한 자질이 아닐까 싶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고 신체가 부자유한 사람들을 낫게 하신 것은 모두 사랑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사랑이 없는 믿음과 진리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사랑과 부드러움과 희생을 많이 갖고 있는 여성들이 교회에 모이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나아가서는 그 사랑을 이웃을 위해 나누어 주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하느님의 계획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특히 여성들이 아이들을 웬만큼 키워낸 다음에 일반적으로 빠지기 쉬운 허무감이나 자폐증 같은 것도 교회에 나와서 치유하는 여성들이 매우 많이 있다. 그것은 믿음이 바로 희망이기 때문이다.

이 덧없고 허무한 일회적 삶이 영원한 내세로 이어지는 과정이며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고 하느님께로 가는 변신의 단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가 하느님만큼 좀 우리를 위로해 주며 하느님만큼 우리에게 평온을 줄 수 있는가.

세상 모두가 다 나를 배반하고 등을 돌려도 하느님만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다. 우리 여성교우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 다니며 진리와 구원을 갈망하던 여성 제자들처럼 오늘도 이 교회안에서 끊임없이 봉사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면서 괴롭고 스산한 이 세상을 위로받으면서 건너고 있다.

하느님의 지체라는 자각과 믿음만이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우리를 구원해 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청소년과 교회의 역할

이 창 훈
평화신문 기자

1. 지난 1월 10~1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10차 세계청소년대회를 취재하고 돌아왔다. 1천 3백여명의 한국 청소년 대표들과 함께 대회에 참가하면서 또 취재를 하는 가운데 곧잘 떠올랐던 인상 중 하나는 '자연스럽다'는 느낌이었다. 대회의 운영이 완벽할 정도로 매끄럽게 진행됐다는 것이 아니라 대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아주 자연스러웠다는 것이다.

세계 청소년대회는 단지 청소년들의 대회가 아니라 신앙을 가진 청소년들의 만남이고, 따라서 일차적으로 종교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마닐라 현지에서 느낀 것은 세계청소년대회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최지인 마닐라 전체의 축제였고, 나아가 필리핀이라는 국가적 축제였다. 그리고 이러한 축제의 분위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표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거리의 장식,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문 지면과 방송의 화면을 연일 가득 메우는 언론의 보도에서 이를 확연하게 실감할 수 있었다.

이 자연스러움은 무엇보다도 필리핀이 4백년 이상의 오랜 가톨릭 전통을 갖고 있고, 또 전체 인구의 85% 이상이 신자인 가톨릭 국가라는 현실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종교적인 언어들이 신문 지면을 메우고, 대회 주제가가 쉴새 없이 방송을 통해 흘러나와도 어색한 점이 전혀 없었다. 한마디로 종교가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젖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마닐라 세계 청소년대회에 참가한 한국의 청소년들은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었다. 하나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새롭게 자각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앙과 삶의 자연스러운 융화에 대한 체험이었다.

우선 우리의 청소년들은 청소년대회라는 한가지 주제가 인종과 국적과 언어를 초월하여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고 그들을 하나로 일치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대회장인 리잘 공원을 가득 메운 수백만 인파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은 신앙의 힘을 목격할 수 있었고, 말은 통하지 않지만 주고받는 몸짓과 표정에서 만인을 하나로 엮어내는 신앙의 일치를 체험할 수 있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또 필리핀 청소년들이 보여준 신앙과 삶의 자연스러운 어울림에 대해서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필리핀 청소년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3시간여에 걸친 한차례의 공연을 통해서뿐이었지만, 우리의 청소년들은 성가와 기도를 일관한 이 공연을 통해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기도가 이렇듯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구나' 하는 진한 감동을 받았다. 대회에 진지하게 임하고자 하던 우리 청소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같은 점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2. 오늘날 한국 천주교회는 세계교회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했다고 한다. 물론 신자율이 아직도 7% 선에 불과한 선교 지역의 교회이지만, 한국 교회의 눈부신 발전에 대해서 세계 교회는 경의의 눈으로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새롭게 뜨고 우리 사회와 교회 안을 향해 볼 때 우리는 급속한 성장 못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자체 안에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회의 대형화와 중상층화, 예비자의 감소와 냉담자 증가, 젊은이와 가난한 이들의 교회 외면 현상 등은 이미 수도 없이 들어왔던 얘기들이다. 그보다 더욱 본질적이고 또 중요한 문제는 우리 사회 안에 과연 '가톨릭 문화'가 얼마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가톨릭 문화'라는 말을 '복음화'와 동일시한다. 이 복음화란 말하자면 "단순히 보다 넓은 지역에서 혹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 계획에 배반되는 인간의 판단기준, 가치관, 관심의 초점, 사상의 동향, 사상의 원천, 생활양식 등에 복음의 힘으로 영향을 미쳐 그것들을 역전시키고 바로잡는" 일이라고 교회는 가르친다(현대의 복음선교 19항). 이러한 식으로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때에 신자들의 삶은 더 이상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신앙과 생활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삶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서울대교구를 비롯한 전국 각교구에서 '소공동체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같은 현실을 반증해 주고 있다. 소공동체운동은 '신앙과 삶이 유리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소공동체 운동을 펼쳐가는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간과하기 쉬운 부정적인 측면이 운동 안에 스며들 위험이 있다. 그것은 소공동체 운동이 신자들만의 '끼리 집단'으로 위축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또한 교회공동체가 은연중에 범하기 쉬운 오류의 한 면일 수도 있다. 복음화란 결국 세상으로 나아가 사회의 누룩과 소금이 되어 사회 전체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인데 신자 공동체를 복음화시키기 위해 사회로부터 신자들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개방의 취지가 폐쇄의 결과를 낳는다'는 모순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소공동체운동의 근본 취지와 그 내용이 올바로 주지된다면 이같은 가정은 억측에 불과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우리 안에 스며들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신앙 따로, 생활 따로'라는 신자들의 생활 양식을 초래한 적지 않은 책임이 올바로 돌보고 사목해야 할 교회당국에게도 있다고 할 때, 이 점은 충분히 유념할 만하다고 본다.

3. 같은 지적을 우리의 청소년 문제와 관련시켜서 제기해 볼 수 있다. 기성 세대들은 이른바 'X세대'라고도 불리는 요즈음의 청소년 세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리고 기존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틀 속으로 청소년들을 끌어들이려고 한다.

교회는 청소년들을 '사회의 내일이요 교회의 미래'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말이 한낱 미

사여구가 아니라 참으로 그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청소년들을 그에 걸맞는 방향으로 교육시키고 인도해야 한다. 그것은 청소년들에 대한 신앙 교육과 지도 방식을 기성세대들이 접했던 기존 틀에 맞추려기보다는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의 근본 정신과 가치들을 청소년들의 언어와 청소년들의 문화로 표현하도록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청소년들은 주일학교에서 신앙의 진리에 대한 소중한 체험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따분함만을 느끼게 되거나, 미사 전례에는 지루함을 못이겨 딴전을 부리거나 차라리 외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신앙따로, 생활 따로'라는 기성 세대의 신앙생활 양식을 답습하는 길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마닐라에서 소중한 체험을 했다. 이 소중한 체험을 되살려 이제 우리 청소년들 스스로가 '신앙과 삶의 자연스로운 조화'를 체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와 교회의 책임있는 분들이 먼저 변화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일·찰·맛·이·나·게·해·드·립·니·다

정인문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양도,
어려운 일 급한 일도,
특히 마감 시간에 임박한 정기간행물 조판등,
까다로운 편집 · 도안을 세련된 멋의 서체로
만족시켜 드리겠습니다."

- 광고기획, 그래픽디자인
- 매켄토시 편집 · 도안, 전산사식
- 원색분해
- 고급옵셋인쇄
- 사진제판
- 팜플렛제작, 카다록제작
- 월간지 · 사보편집
- 각종책자 인쇄물 제작

正仁文化社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56-1 신도B/D 373호
TEL : (02)272/6454, 274/4349
FAX : (02)274/4349

교회와 홍보

김 송 현 세베리노
코리아 타임스 부국장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음식을 먹고 있던 열한 제자들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않는 사람은 단죄를 받을 것이다." (마르코 16, 15)

예수께서는 일찌기 홍보의 중요성을 깨달으신듯 하다. 전교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홍보다. 복음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지만 널리 알려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단지 일부 지방에서 떠돌던 한낱 헛된 소문으로 끝났을 것이며, 따라서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초기 교회의 바울로 사도는 가히 홍보 분야의 파이어니어라 할 수 있겠다. 그는 험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네 차례에 걸친 전교여행을 통해 하느님의 복음 말씀을 널리 전파한 것이다.

세계성체대회가 서울에서 열리던 1989년의 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유난히 뜨겁던 그해 여름 당시 한국 외국어대학 학생이던 임수경 양이 남한의 학생 단체 대표로 평양 축전(祝典)과 소위 국토종단대행진(國土從斷大行進)에 참가키위해 입북(入北)했다. 이어 문규현 신부님이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부탁을 받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임수경 양을 찾아, 그의 귀국길에 동행키위해 역시 평양으로 날아들었다. 두 사람 모두가 정부의 정식 허락을 받지못한 불법 입북이었다.

갑자기 한국천주교회는 사면초가(四面楚歌)-. 문 신부님과 임 양이 판문점을 통과 귀환하고 뒤이어 감옥에 들어간 훨씬 후에까지 한동안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질책을 받았다. 물론 작은 수의 사람들이나 단체가 이들 두 사람의 행위를 옹호하기도 했지만 한동안 가톨릭 신자들은 자신들이 신자임을 세상에 떳떳이 드러내 놓지못하는 난처한 경우도 더러 겪었다.

가톨릭 교회는 용공(容共) 단체인가? 교회는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소망하고 있는 단체인가 아니면 방해하는 단체인가? 교회는 김일성 정권의 적화통일노선에 공감하고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단체가 아닌가?

신문의 논평을 통해 어느 신자 언론인은 일방적으로 교회를 비방하며 붉은 바탕의 성체대회 마크를 부착하고 다니는 승용차를 볼때마다 가소롭고 역한 감정이 일기까지 한다고 했다. 성서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펼쳐가며 어느 소설가는 문 신부님 같은 성직자는 차라리 옷을 벗는 편이 좋겠다는 충고도 서슴치 않았다.

보수와 진보 두 편으로 교회를 마음 대로 갈라놓은 외부 매스컴들은 가톨릭에 대해 그들이 알고 있는 조그만 지식을 최대한으로 이용, 편리할 대로 교회의 모습을 그려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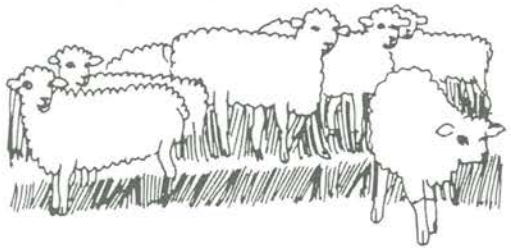
한편 유감이지만 당시 교회도 이 문제로 분명히 갈라져 있었다. 주교회의는 주교회의 대

로 각 단체는 단체대로, 사제들은 사제대로 그리고 신자들은 신자대로 각기 다른 소리를 냈다. 어느 말을 따르고 어느 성명서에 지지를 보내야될지 일반 신자들이 겪은 혼란은 여간 아니었다.

최근 서강대학교 박홍 총장의 주사파(主思派) 발언은 또 한번 교회를 도마위에 올려놓았다. 신부라는 성직(聖職)에 또 한번 세인(世人)의 주목을 끌게했다. 배경 설명에 약간의 오해는 있기는 했지만 총장 신부님의 발언 요지는 지구상에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북한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자는 것이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매스컴들이 총장 신부님의 발언에 공감을 표시했지만 일부 젊은이들 그리고 진보적 성격의 매스컴은 신부님에 대해 나아가 교회에 대해 심한 불평을 토해냈다. 5년전 방북 소용돌이 속에서 교회는 용공 집단으로 등장하더니 이번엔 강력한 반공(反共)집단으로 돌변했다는 비난도 나돌았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김영삼 정권에 빌 붙어 박홍 총장이 혹시 안기부장 자리라도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도 이곳 저곳 젊은이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들렸다.

이렇듯 교회가 세상일로 홍역을 치를 때 마다 생각나는 것이 교회와 홍보 문제이다. 교회 안의 일도 그렇지만, 특히 그것이 교회 밖의 일로 확대될 때 교회는 교회의 공식적인 "입"을 통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 진실을 널리 홍보하는 일에 소홀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신자수가 이제 300만명을 넘게 된 교회, 이토록 크게 성장한 교회속에서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진실은 바로 이런 것이고 또 교회의 참 모습은 이것이다" 라고 교회가 공식적인 입을 통해 공식적인 해명을 할 때 교회 내외의 불필요한 오해와 왜곡은 사라지게 되고 동시에 깊은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얼마전 교회 신문을 보니 주교회의에 홍보를 전담하는 신부님이 임명되었다는 소식이다. 늦게나마 교회가 홍보의 중요성을 느낀듯하다. 교회의 참 모습을 세상에 정확하게 알리는 일에 있어 신부님께 거는 기대가 크다.



사랑의 더운 가슴에 역동적인 전도의 맥박을

오 경 자
한국공익문제연구원 부원장

천주교는 똑같은 예수님을 섬겨도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데 교회는 왜 제사를 안지내느냐는 문제가 비신자들이 던져 오는 질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같다.

연옥이 있어 거기서 심판을 기다리고 생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도 구원의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천주교의 입장은 예수를 영접 못하고 돌아간 부모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진정 감사한 복음이다.

불교를 믿다가 예수를 받아 들이고 개종을 결심한 후에 죽은자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고 살아생전 자신의 선택에 의한 예수 영접 이외에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알았을때 나는 불교도로 타계한 어머니 생각에 참담해졌다. 천주교는 그렇지 않다는데 왜 똑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토록 달라야 될까?

성당에 가면 조용하고 경건해서 기도하는 곳 같은데 교회는 왜 박수도 치고 울기도 할까? 신부님은 결혼도 않고 온몸을 다 바쳐 예수님만 섬기는데 목사님은 결혼도 하고 일반인과 똑같이 세속에 섞여 사시니 경건함이나 초연함에 있어 좀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천주교인들은 사랑이 그를 생활속에서 배어 나오는데 신교도들은 좀 이기적인 것 같고 실천적 사랑이 부족한것 같다고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생활을 해 오면서 이런 저런 의문들은 다 풀렸고 교회의 가르침이 맞은 것 같기에 오늘도 나는 개종의 결심을 했던 나 자신이 신통하기만 하다.

다만 성경적 해석이나 종교적 입장의 차이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나의 생각이 옳으니 천주교의 어느 입장은 이해가 안된다느니 하는 만용을 부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 나 자신 신앙의 양심에 따른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심판 하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나의 어린시절 옛집은 명동 성당 근처였다. 성당 뒷문 건너편에 수녀님들이 맡아 하는 고아원이 있었는데 우리집과 담장이 붙어 있었다. 자주 만나는 수녀님들은 언제나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여름이면 내 어린 마음은 그 까만 옷 속에서 줄줄 흐를것만 같은 수녀님의 무더위가 걱정이었다.

부모님은 아침마다 소리 맞춰 불경을 읽고 예불을 드렸지만 내가 성당에 가서 놀다 와도 책망하지 않았다. 지금도 그 자리에 계신 명동성당 성모 마리아상은 피난시절 서울을 떠나 있는 동안 내 마음의 고향이었다. 서울이 그리워지면 의례 내 마음은 거기 달려와 있곤 했다.

옆집 고아원의 수녀님이 집앞을 나서는 내게 조용히 들려주신 조그만 성화 액자는 소녀시절 내 책상을 지켜 주었다. 말구유 옆에서 마리아품에 안긴 예수를 그린 그런 그림이었다.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인연으로

그때 바로 이어지지 못한것을 나중에 개종한 후에야 안타깝게 느낄 수 있었다.

그런일을 생각하면서 천주교는 점잖게 믿지 그렇게 수선스럽게 믿으라고 떠들지 않노라는 세인들의 평판을 떠올려 본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명을 위해 좀 더 적극성을 띄어 주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일이 아닐지 모르겠다.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 하나가 고1 때 갑자기 어머니를 여의더니 수녀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 고등학교가 서로 달라서 직접 만나지 못한채 천주교쪽 대학을 거쳐 독일로 떠났다. 영 딴 세상 사람이 되어 만날 수 없을 것 같던 친구가 지금은 총장 수녀님이 되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천주교는 어쩌면 좀 격리된 세계같은 인생을 세인들은 느끼며 사는지도 모른다. 영화 기적이나, 파계 같은 것에서 접한 수녀원을 천주교의 전부로 착각 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사운드 오브 뮤직의 여주인공 같은 수녀나 그 폭넓은 원장수녀를 비롯한 수녀님들의 이미지는 우리 머리속에 짙게 남아 있지 않다.

백만인걷기운동이라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는 신부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함께 일 할 기회가 있었다. 신부님은 근엄하고 접근하기 힘든분이 아니라 편안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물론 어느 한 개인의 성향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재는 잣대로 쓰는것은 무모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그 세계를 이해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몇년전 내 강의를 듣는 학생중에 수녀가 한분 있었다. 강의 도중 종횡무진으로 끌어다 쓰는 세상 이야기나 예화등을 말할 때마다 나는 그 수녀학생을 먼저 살피게 되었다. 지극히 세속적인 이야기나, 특히 남녀평등론 같은 말을 할때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등의 성경구절이 떠올라와 흘끔흘끔 눈치를 살피곤 했다.

수녀원의 담장은 이미 없어졌음을 나는 그 학생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세상 각분야에 조직적으로 넓고 깊게 파고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해내고 있는 것이 천주교의 참모습임을 배우는 행운을 얻었다.

수녀원에 있지만 맡겨진 곳에 출퇴근 하면서 일을 하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언제 어느 곳으로 가든지 손가방 하나면 족한 무소유의 생활이 우리를 자유롭고 소신있게 일하게 한다는 그 젊은 수녀학생의 설명은 오래도록 내 가슴을 따뜻하고 설레이게 했다.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천주교의 모습은 철저히 격리된 갈멜수녀원, 중세의 권위주의적 신부, 성경도 읽을 수 없었던 교회내의 계급 등으로 잘못 각인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오늘날 천주교는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즐겨 모이고 성경을 열심히 베우고 환경보존 등 시급한 사회문제에 민감한 대응자세를 취하고 있다. 잘 조직되고 운영되는 천주교의 장점이 사회변화에 접목될때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은 쉽게 치유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어려운 이를 돕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사랑의 등불을 드는 일에 열심인 천주교의 강점을 우리 모두 배워야 한다.

교파가 나뉘지 않고 만일 교회체제로서 누구나 가까운 성당에 출석 하도록 제도화된 신

자관리체계는 매우 중요하고 훌륭한 장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예배의 형식이나 성물들을 간직하고 기도의 도구로 쓰는 일, 신부를 정점으로한 남여차별의 당연한 수용(?)등 내눈에 단점으로 비취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앞에서 밝혔듯이 성경해석을 전제로한 첨예한 부분들이므로 논쟁의 빌미가 될까 두려워 깊은 논의를 벌이고 싶지 않다.

그동안 천주교가 "어느 소자에게 한것이 바로 내게 한것이라"는 말씀에 충실한 조용한 나눔과 봉사에 힘썼다면 이제 이에 더하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라" 하신 적극적인 전도의 행동대가 되어야 한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 매우 미약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신교도 마찬가지이지만 신부는 남자만이 될 수 있고 신부만이 예배를 집전하는 일은 꼭 성경적인 일만은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다.

초대교회 때 남성이 그 역할을 했던것은 그 시대적 환경의 영향이라고 본다면 21세기를 바라보는 현재에 와서도 남성중심, 여성은 주변이라는 구도가 고집된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인것 같다.

천주교가 과감히 명실상부한 남여평등, 역할고정의 개혁을 일으킨다면 신교 또한 상당한 개혁을 감안해 낼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

한분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굳이 다른 길을 가노라고 고집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지엽적인 문제들이 언제나 해결되어 주려는지 좀 답답한 마음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천주교의 조용한 숨결과 전도에 열심을 내는 신교의 뜨거운 피가 한데 어우러져 용트림을 하는 날 우리는 기꺼이 하나가 되었음을 느낄 수 있으리라. 주님은 그날 진정 우리를 위한 더운 눈물을 그치실 수 있을 것 같다.

(92 쪽서 계속)

울 옷 7만점과 담요 1천점 그리고 그곳 어린이들을 위한 방한화 1천 5백 켤레 등 모두 여섯 콘테이너의 물량을 히말리야 설산으로 보냈습니다. 이 일을 했을 때는 대치동 성당의 김몽은 신부님과 수녀님들 그리고 많은 교우들이 열심히 도와주셨습니다. 또 가톨릭 신문도 아낌없는 지면을 할애하여 여러 차례 보도를 해주어 전국적인 가톨릭 신자 여러분들이 힘을 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모든 종교가 서로 다른 종교를 존중하며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위해 손을 맞잡고 힘을 합할 수만 있다면 이 지구촌은 더 살기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간의 화합은 이 지상에 평화를 가져 오는 지름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천주교를 넘나든 20년의 세월

박청수 교무
원불교 강남교당

20년전(1975년 3월) 이른 봄 어느 날, 천주교의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기회에 나환자들이 함께 살고 있는 성라자로 마을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소임을 맡고 있던 루시아 수녀님은 우리를 마치 오랜 친지처럼 맞아주었습니다. 그분은 어린시절 고향에서 원불교 교무님의 모습을 자주 보았다며 고향사람을 만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수녀님의 친절이 끈이 되어 성라자로 마을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나환자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환자들은 육신에 든 병도 고통스럽지만 병 때문에 그리운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건강한 사람들과도 완전히 격리된 환경속에서 외롭게 살아가야 되는 처지는 삶 자체가 큰 멍에일 것만 같았습니다. 이같은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부터 나의 마음은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는 나환자들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 라자로 마을을 드나든지 2년만에 나의 임지는 서울의 사직교당에서 전북 김제 원평 농촌 교당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 원평교당에 있으면서도 2월 9일 나환자들의 공동생일을 기억했습니다.

농촌교도님들은 자신들이 농사지은 참깨, 들깨, 무우 말랭이, 감자순 말린 것들을 모아 두 가마 분량을 마련했습니다. 원불교 농촌교도님들의 정성이 담긴 공동생일선물을 경기도 의왕시 성 라자로 마을에 수화물로 짐을 띄울 때는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정겨운 시골 교당의 생활은 짧은 2년으로 끝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 오늘의 강남교당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성 라자로 마을을 후원할 교도님이 아직 없던 그 무렵에는 엿장사를 시작, 그 유명한 담양 창평엿을 지금까지 15년 동안 꾸준히 팔고 있습니다. 자가용차가 흔치 않던 그 시절, 추운 겨울날 빙판길에 어렵게 택시를 잡아 엿상자를 싣고 우리 엿을 팔아 줄 뜻있는 소매상(?)들에게 엿을 배달하던 일은 그 당시로서는 매우 고생스러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아름다운 일로 회상됩니다.

건강한 치아가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를 잘 모르던 젊은 날, 엿이 부드럽게 잘 되었는가를 확인하느라 딱딱해보이는 엿을 골라 너무 많이 깨물어 보다가 나의 송곳니가 두 조각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는 일에 신념이 있고 열정이 솟구치던 때라 상해버린 송곳니를 바라보면서 〈송곳니를 바쳐(?) 나환자를 돕는다〉는 뿌듯함까지 느끼기도 했습니다.

또 추석 명절이 돌아오면 나환자들에게 줄 송편을 만들기 위해 쌀을 정결하게 씻고 또 씻어 방앗간으로 나르고, 가루를 만들어다 직접 떡 반죽을 하여 송편을 빚을 때는 왠지 모를 신명이 나서 몸이 나는 듯 했습니다. 고소한 깨소금을 송편속으로 듬북듬북 집어 넣을 때는 나의 알뜰한 마음을 집어 넣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과일이 풍성한 여름철이 되면 그 옛날에는 용산 도매 시장에서 그리고 지금은 가락동 청과시장에서 잘 익은 큰 수박을 골라 타이탄 트럭으로 가득 싣고 운전기사 옆자리에 앉아 라자로 마을로 갈때면 나환자들이 몇 차례 먹을 그 수박이 모두 달고 맛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84년 부터는 나환자들의 공동생일때 마다 생일 축하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에게 5천원이던 것이 제법 오래전부터는 1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일년에 딱 한 번 주는 현금은 은행에 부탁하여 어느 사람도 만져보지 않은 새 지폐로 마련했습니다. 150명에게 나누어 줄 봉투마다 생일축하의 말을 적고 새 돈을 봉투안에 집어 넣을 때는 은밀한 정도 함께 담기는 듯한 기쁨을 느낍니다.

이경재 신부님이 미국에서 돌아오시어 성 라자로 마을을 나환자들의 보금자리로 만들기 시작한지 3년쯤 될 무렵 부터 한 귀퉁이에서 일손을 맞잡기 시작했습니다. 나환자들도 생존만이 아닌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하겠다며 세종문화회관 시설 수준으로 〈라자로의 집〉을 지을 때는 건축성금을 1백만원이나 모금했었습니다. 10여년전 금액으로는 지금 보아도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시골의 여러 수용 시설에 있는 나환자들이 라자로의 집에 와서 숙식을 할 수도 있는 준비를 할때 스폰지 요와 함께 물실크 이불 80여채를 만들어다 이불장에 채곡채곡 쟁일 때의 기분은 단순한 기쁨이 아닌 황홀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 라자로 마을의 큰 건물이 들어설 때마다 나의 작은 정성이 합해졌기에 〈아론의 집〉이나 〈아록의 집〉도 모두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꼬박이 써오고 있는 금전출납부를 살피다 보면 고 노기남 주교님의 생신날도 보입니다.

여기서 잠시 나환자들과 함께 한 세월 동안 보람을 가꿀 수 있도록 후원해준 분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원불교 강남교당 교도님들과 불이회 회원, 경원회 회원, 그리고 주 요르단 한인 부인회와 형제 모임은 꾸준히 뒷바라지 해준 고마운 단체이고 개인적으로는 홍인덕님, 이명자님, 배양신님, 권봉안님, 안충숙님 그리고 천주교의 테레사님의 도움을 잊지 못합니다.

성 라자로 마을 나환자들이 "교무님은 이녁식구 같아요. 기도때마다 교무님 건강하고 교무님 하시는 일 잘 되라고 기도하는데 …" 하며 속삭이듯 말하는 그분들의 충정어린 말은 내게 들려주는 사랑의 밀어입니다. 그리고 성 라자로 마을의 환자들은 내 인생에 용기를 뒷바침해 주는 백만 대군과 같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제는 천주교의 여러 복지기관과도 인연의 둘레가 더 넓어졌습니다. 이리 성모의원(나환자: 1982년 부터), 산청 성심인애병원(나환자: 1983년 부터), 성분도 장애자 직업재활원 (1987년 부터), 천사들의 집(중증장애자: 1991년 부터)에도 관심과 정성이 머문 곳입니다. 특히 은퇴하신 노수녀님들께서 기다려 주시고 또 따뜻하게 반겨 주시는 베타니아 집(바오로 수도회)은 내 영혼의 따뜻한 아랫목과도 같습니다.

4년전 부터는 인도 히말리야 설산에 살고 있는 라다크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겨

(90쪽에 계속)

한국 평협 소식

제11회 가톨릭 대상 시상

1. 고 장재훈, 박순자, 김영대씨

한국평협은 사랑의 실천, 문화의 창달, 정의구현을 위해 '작은 그리스도'를 찾아 시상하는 제11회 가톨릭 대상 시상식을 11월 12일 가톨릭회관에서 가졌다.

주교회의 평신도 위원회 위원장 김옥균 주교와 김인성 평협 지도신부, 이관진 평협회장, 이번 대상 심사위원장인 박정훈 전 평협회장과 평협 임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시상식에서 사랑부문에 박순자(로사, 부산)씨와 고 장재훈(사무엘, 서울)씨, 문화부문에 김영대(루도비꼬, 광주)씨가 각각 상패와 3백만원씩의 상금을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사랑부문 수상자 고 장재훈씨를 대신해서 참석한 부인 김정자(체칠리아, 서대문 본당)씨가 상금 전액을 김인성 신부를 통해 서울대교구 한마음 한몸운동 본부에 기탁해 장내를 숙연하게 했다. 고 장재훈씨는 10월 24일 충주호 유람선 화재 때 30여명의 이웃을 구하고 자신은 탈진해 숨진 살신성인의 귀감을 보인 평신도로서 구교우 출신에 본당 사목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중앙일보 윤전부에서 20여년간 근속 후 퇴직한 성실한 직장인이기도 했다.

또 한 사람의 사랑부문 수상자인 박순자(54세)씨는 부산에서 곰탕집을 경영하면서 매달 경로의 날을 정해 노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푸는 등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분으로, 부산교구장 이갑수 주교의 추천을 받아 심사대상에 올랐던 인물이다. 문화부문의 김영대(53세)씨 역시 광주대교구장 윤공희 대주교의 추천으로 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레지오 마리애 관련 각종 서적을 펴내 이 운동의 확산,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이번 가톨릭 대상을 받았다.

故 張在勳(사무엘)씨

고 장재훈(사무엘)씨는 지난 10월 22일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때 그 유람선에 함께 탑승한 선객의 한사람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동료 300여명을 구한뒤 끝내 숨진 분이다. 그는 충남 아산만 출신으로 수영도 할 줄 알며 대체로 건강한 체력의 소유자로, 혼자 탈출을 했다면 생환할 수도 있었으나 선객들이 당황하는 빛을 보이자 이들을 안심시키며 사력을

다해 아크릴 선창을 깨뜨리고 선객들을 침착하게 창문밖으로 대피시켰으며 특히 우왕좌왕하는 노약자와 부녀자들을 구조대가 있는 방향으로 한사람씩 끌어내려 주기를 수십차례 되풀이하던중 어느새 자신의 발끝까지 옮겨 붙은 불길을 끄기 위해 물속에 뛰어 들었는데 이미 탈진상태여서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시체는 10/26 발견)

실제로 그의 도움을 받고 살아난 사람들은 자신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장씨의 도움때문이라며 평소 정직하게 남을 위할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남을 위해 죽음을 대신했다고 애도하고 있다. 또 일행중 살아 남은 이들은 장씨의 살신성인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2~30명의 사망자가 더 생겼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장씨는 본당 사목위원, 본당 신심단체장, 우정의 모임, 친목회 등에서 늘 남들보다 앞장서 열심히 일한 분이며 평소 겸손과 정직을 가훈삼아 자녀들을 길렀으며 집안 살림살이도 근검 절약으로 살면서 항상 밖에서는 베푸는 삶을 살았다고 전해오고 있다. 서대문 본당 주임 김호영 신부도 평소 말없이 묵묵히 봉사하더니 그같은 위기에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많은 분의 목숨을 건져 주었다면서 죽음으로 자신의 삶이 어떠했나를 웅변해 주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 장재훈씨는 1935년생으로 중앙일보 윤전부에 20년간 근속했던 성실한 직장인으로 1990년 정년 퇴직하고 서울 서대문 본당 사목위원으로 활동해 왔음. 부인과 1남 3녀의 유족을 두고 갔다.

朴 順 子 (로사)씨

박 순자(로사)씨는 1940년생으로 부산에서 "골목 곰탕집"이란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의 보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생각으로 92년 9월부터 매월 15일을 경로의 날로 정해서 노인들을 모시고 잔치를 베풀고 있다.

처음에는 양로원 노인만을 초청해서 베풀던 것이 차츰 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인근 시·군(김해, 양산) 등지의 노인들까지 찾아오고 있어 지금은 매월 7백여명에 이르는 노인들이 찾아오고 있다. 식후 후식으로 과일 대접까지 하고 부부 노인중 한분만 오시는 분에게는 가실때 배우자 분의 몫을 봉지

에 담아 보내는 정성을 쏟고 있다. 경로의 날 당일의 영업은 물론 할 수 없거니와 이날을 위해서 며칠씩 준비하는 육체적 수고도 아끼지 않고 사랑으로 하는가 하면 그런중에도 레지오 활동과 본당사목회 부회장을 맡아 일하면서 순간 순간 가톨릭대학, 순교자성당 은퇴 신부님 방문에도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런 봉사는(경로의 날 등) 골목 곰탕집이 없어질 때까지 이어질 것을 본인은 다짐하고 있다.

金 永 大(루도비꼬)씨

1940년 전남 강진군의 농가에서 태어나 중등학교 교사로 봉직하던 중 1972년 입교, 영세한 김영대(루도비꼬)씨는 마리아 세나뚜스(광주) 단장〈1985~1991〉을 비롯하여 꾸르실료 사무국 임원으로 18년간, 계림동성당 사목회 임원을 비롯한 광주평협 사무국장(5년)과 상임위원(감사 등)으로 일하면서 103위 성인시성식과 2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으로도 활동해 왔다. 또한 재단 법인 소화 자매원(불우원생 250명) 후견인으로 14년간 온갖 물심양면의 지원을 경주해 오면서 저작활동으로 레지오 교본 등을 비롯한 광주 계림동 성당 20년사(조일출판사), 레지오 관리와 운영(성모 출판사), 김대건의 삶과 사상(가톨릭다이제스트 출판사), 에델 퀸의 삶과 사상(성요셉 출판사), 선구자의 교훈(성신 출판사), 선교의 전략(크리스챤 출판사), 당신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새날 출판사), 이렇게 선교합시다(새날 출판사)등의 책들을 번역 또는 저술하여 보급함으로써 모든이에게 신앙의 눈을 뜨게 하는 선구자적 삶으로 아름답게 살고 있다.

'94 문예작품 시상 않기로

한국평협은 문화분과(위원장 이윤자)가 준비해 온 문예작품 공모에서 당선작품을 선정할 수 없다는 심사결과에 따라 올해는 당선작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3백만 '평신도 그리스도인'과 전국민에게 호소합니다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25일 "3백만 '평신도 그리스도인'과 전 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는 10월 8일 안동에서 열린 전국평협 상임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회장단이 위임받아 발표한 것이다.

1.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1994년 11월 13일의 제27회 평신도의 날을 앞두고 3백만 가톨릭 평신도들과 전국민에게 땅에 떨어진 윤리와 도덕을 제자리에 바로 놓고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창조질서 안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자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2. 우리는 오늘날 나라 안팎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사건과 사태들을 지켜 보면서 충격과 분노, 좌절과 실망속에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자리매김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래에 잇따른 존속살해와 집단살인 그리고 공직사회 내부의 엄청난 비리와 사회기강 해이 현상에 대해 모두들 크게 걱정하고 있던 중에 10월 21일 성수대교가 붕괴돼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에 이르러서는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입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예고된 비극으로써, 미리 손을 썼더라면 막을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3. 이번 성수대교 사건은 단순히 한강 다리 하나가 무너져 내린 사건만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의 체면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여지없이 추락하고 만 사건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윤리와 도덕과 가치관이 한강물 속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교량의 안전 점검과 사고예방 소홀등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무엇이든 하면 된다'고 하는 그릇된 풍조야 말로 근본적인 문제였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서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해서는 안되는 일도 있습니다. 정의가 아니고 공동선이 아닌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그것이 통했습니다. 탈법과 불법, 그리고 정통성을 상실한 공권력등으로해서 가치관이 뒤바뀐 현상속에 물질만능과 졸속공사 따위가 오늘의 비참한 현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4. 그러나 지금은 지난날의 어두운 면만을 파헤치며 지난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책임의 일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복음을 사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과연 각자의 소명과 사명을 다해 왔는지, 자신의 삶을 겸허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과연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처신을 해 왔는지, 내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는 내가 해야 할 몫을 다하고 피할 것은 피해왔는지 스스로 살펴 볼 일입니다.

세속에 사는 평신도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삶을 통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짠맛을 내는 소금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변혁해 나가야 하는 소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에서 진실을 말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할 사명을 우리는 지니고 있습니다.

5.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는 평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한 자신의 허물을 뉘우치면서 회개와 속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합시다.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는 그릇된 풍조를 분별없이 따르기 보다 어떠한 불이익이나 희생을 치르게 되더라도 옳고 그른 것을 명확히 가려 옳은 것은 끝까지 추진하고 그른 것은 단연코 배격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목숨바쳐 신앙을 증거한 순교선열들의 정신을 이어 받는 길입니다. 또한 이렇게 분명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날 만연된 병리현상을 치유하고 이 땅의 복음화를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6. 하느님께서는 가정이 다른 모든 인간 공동생활의 표지요 모형이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오늘의 갖가지 비극적인 현상은 가정이 창조주께서 뜻하신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창조 질서를 역행함으로써 죽음의 문화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에서 부터 죽음의 문화를 사랑의 문화로 바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 노인공경에 이르기까지 가정공동체의 모든 일이 사회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 가정을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로 가꿔 나가야 겠습니다.

7. 끝으로 가톨릭 신도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시급한 것은 윤리와 도덕을 제 자리에 올려놓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선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고, 각자의 기준에 따라 선을 추구한다면 공동선이 아닌 것을 지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덕주의에 머물지 않고 참으로 이 땅에 정의와 평화, 사랑과 희망의 꽃밭을 가꾸기 위해서는 진리에 바탕을 두고 윤리와 도덕을 재건해야 할 것입니다.

8.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신앙인들이 먼저 진리이신 하느님을 증거하는 삶을 매 순간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한국평협 상임위원회 개최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10월 8일, 9일 이틀 동안 안동교구 평협에서 94년도 제2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아시아 평신도회의 후 처음으로 열린 것으로, 아시아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의한 '복음화' 과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평신도의 사회교리 실천을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도덕적 회복을 위한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할 것 등을 결의했다. (도덕성 회복 위한 전국평협 호소문은 96 쪽에)

전국 평협의 상임위원회에는 각 교구 평협 회장과 상임위원 단체 대표, 전국평협 임원진이 참석한다.

한편 평협은 지난 9월 4일 저녁 아시아 평신도 회의 전야제가 끝난 후 아론의 집에서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6월 철도 노조 파업으로 안동 회의가 유산된 경위를 보고한 다음 새로 발족한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본부(본부장 오태순 신부)에 한마음 한몸 운동 본부, 가톨릭 농민회와 한국평협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 사실을 추인하고 각 교구 평협과 본당마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본부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는 또 103위 순교성인 시성 10주년 기념사업으로 한국 초대 교회 창립 선조와 순교자들의 시성, 시복운동에 평협이 동참하기로 했으며 이관진 회장은 가톨릭 대상 수상 후보를 각 교구 평협에서 관심을 갖고 찾아줄 것과 95년 1월 마닐라에서 열리는 세계 청소년 대회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인성 지도신부는 이번 아시아 평신도 회의가 아시아 선교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회의의 주제가 가르치는 바 대로 사회교리 실천을 다짐하는 대회인 만큼 각 교구 평협이 적극 동참하고 축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 상품쓰기, 우리 농산물 먹기' 스티커 제작,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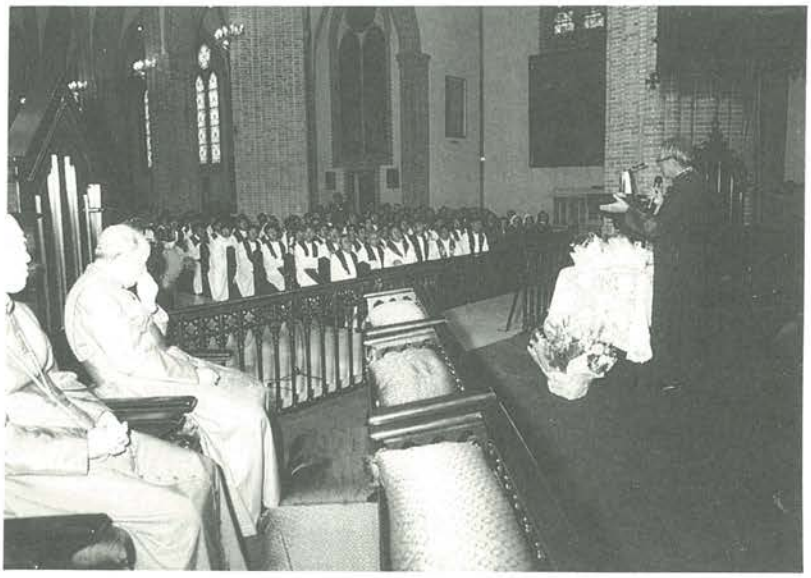
전국평협은 서울대교구 평협과 함께 '우리 상품 우리가 씁시다'와 '우리 농산물 우리가 먹읍시다' 라는 표어를 제44차 서울 세계 성체대회 공식 스티커 십자가 좌, 우에 배치해서 합성한 캠페인 스티커를 제작해 지난 3월 부터 전국 각 교구 평협을 통해 신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동정

이관진 회장 "가톨릭 대사전 간행 후원회 고문"에

이관진 평협 회장은 한국 교회사 연구소(소장 최석우 신부)산하 '한국 가톨릭 대사전 간행 후원회'(회장 김유복) 고문으로 위촉 받았다. 이회장은 2월 8일 낮 프레스 센터에서 가진 오찬 모임에서 강영훈 대한 적십자사 총재, 이만섭 전 국회의장, 장덕진 전 농수산부장관과 함께 김수환 추기경으로부터 대사전 간행 후원회 고문 위촉장을 받았다.

축하식에서 축사를 하고 나서 이관진 평협회장이 추기경의 인사를 받고 있다.



94. 12. 26. 스테파노 영명 축일을 맞은 서울대교구 김수환 추기경이 이날 축하미사를 집전한 다음 축하식에서 답사를 하고 있다.

농촌 살리기 등 5대 중점사업 벌이기로

-서울 평협, '95정기총회서 '도덕성 회복으로 복음화' 활동지표 제시-

서울대교구는 1월 21일 명동 가톨릭 회관에서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95년도(제2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중앙 바른편이 이관진 회장, 왼편은 김인성 지도신부.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1월 21일 오후 명동 가톨릭 회관 7층 대강당에서 9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복음화운동과 우리 상품 쓰기운동 계속,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전개, 도덕성 회복운동, 알림과 나눔 등 평협의 올해 중점사업을 확정지었다.

교구내 171개 본당 사목회장 중 97명, 38개 단체 대표 중 11명, 평협 임원 45명 등 153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이관진 평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끄러운 세상, 어지러운 세태 속에서 천주교 신자인 우리 자신, 바로 나 자신부터 반성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그동안 평협이 전개해 온 우리 상품 쓰기와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의 좋은 결실을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는 남중화 감사로부터 94년도 사업감사 보고를, 이택용 감사로부터 회계감사 보고를 받은 다음 1억7천2백47만7백98원 규모의 95년도 예산을 확정, 통과시켰다.

평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덕성 회복으로 복음화를 이룩한다'는 활동지표를 내세우고 5대 중점사업 중 복음화 운동은 소공동체 활성화와 신앙강좌 개설, 가정 성화운동, 선교운동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상품 쓰기운동은 우리 상품 쓰기의 당위성을 계도하면서 스티커를 계속 보급하는 가운데 구현하기로 했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의 경우 한마음 한몸운동 본부, 가톨릭 농민회와 평협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오태순 신부와 함께 이관진 평협회장이 우리 농촌살리기 운동 공동 본부장으로 추대

된 것과 관련해 평협은 이날 총회에서 평협기구로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특별위원회를 두기로 결의했다. 이 특별위원회는 교구내 15개 지구에서 지구 평협회장을 포함한 각 2인씩 30명과 교구 평협 임원 5인 등 모두 3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5대 중점사업 중 도덕성 회복운동은 낙태방지, 경로효친, 사회교리 실천으로 아시아 평신도회의 결의사항을 실천하는 한편 지방 자치제 선거기간중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실천하고 알림과 나눔에서는 〈평협의 소리〉 격월간 발행, 〈평협회보〉(서울)와 〈한국평협〉(전국) 책자를 연1회 발행하기로 했다.

'도농 협력분과' 신설

이날 총회에서는 회칙 일부를 개정해 "직전 회장을 상임고문으로" 추대하고 분과위원회의 순서를 기획, 전례, 선교, 교육, 지역, 국제협력, 홍보, 문화, 노인, 청소년, 사회복지, 사회정의, 여성분과 위원회로 하되 '도농협력 분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회칙 제26조 총회 구성원으로 평협 상임위원을 추가하도록 했으며 지난해 임진창 부회장의 별세로 공석이 된 부회장에 류덕희(柳悳熙 모세, 58) 현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사무총장에는 전 문화부 종무관 박찬도(朴贊度 이보, 60)씨를 임명했다.

"사도단의 모습으로 변화해야"

-강우일 주교 강론서 당부-

한편 이날 총회 개막미사를 집전한 서울대교구 평협 담당 강우일 주교는 강론을 통해 "오늘 복음(마르 3,20~21)에서 예수께서는 가까운 친척들로부터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마르꼬 복음에서 열두 사도를 뽑으신 사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일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주교의 강론 요지.

"예수께서 산에 올라 가 마음에 두셨던 열두사람을 뽑아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한을 주셨는데 온갖 종류의 사람들, 예컨대 어부와 세리, 이방인 등 그 구성요소가 아주 다양한 것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단이 되고자 한다면,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한다면 무언가 다른면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로서 힘을 합해 복음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에 촉구하며 주신 사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현대의 한국인, 특히 서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질곡에서 해방시키는 강한 공동체적인 유대와 힘, 징표를 금년 한해동안 보여 줄 때 예수님의 참제자다운 평신도 사도직 수행의 직분을 다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협이 우리상품 쓰기와 우리 농촌 살리기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분야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명목상의 사업목표가 아니고 정말 금년 한해를 예수께서 세우신 사도단의 공동체로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뭔가 다르다, 특별한 것을 하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가 강한 특징과 사명감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일치해서 그분의 참제자로서 똑바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성 사목위원 많이 두도록"

-교구장, 이회장 통해 요청-

이관진 평협회장은 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의 요청사항을 이날 총회에 보고했다. 평협 총재이기도 한 김 추기경은 이회장을 통해 "각 본당 사목협의회에 여성분과를 폐지하고 여성 부회장을 두도록 하며 각 분과마다 여성을 두루 망라해서 사목회를 구성하도록 했음에도 아직 그 실현도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더 많은 여성 봉사자를 사목회에 포함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평협의 소리' 창간

서울평협은 교회와 신자간의 다리 역할을 다짐하며 평협의 활동상을 보다 신속하고 소상하게 전달하기 위해 기존 〈평협회보〉책자 외에 주보 형태의 소식지 〈평협의 소리〉를 94년 10월 2일자로 창간했다.

평협 홍보분과 (위원장 최홍준)가 편집을 맡은 〈평협의 소리〉 창간사에서 이관진 발행인 (평협회장)은 "1년에 두어차례 펴내는 책자로는 늘어나는 평협의 소식을 시의적절하게 전할 수가 없고, 평신도들의 평신도 주일 2차헌금 등으로 운영하는 평협의 이모저모를 평신도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 이라고 말하면서 〈평협의 소리〉를 창간한 배경을 설명하고 "문화의 깊은 근원에까지 생명력 있게 복음화하는 것" (현대의 복음선교 18)이 중요한 만큼 "문화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평협의 소리〉는 그 사명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은 〈평협의 소리〉제호를 직접 쓰고 창간호에 보낸 격려사를 통해 "이 〈평협의 소리〉는 신자 여러분이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화합의 마당이 될 것이며 하느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걷는데도 좋은 길잡이가 될 것" 이라며 격려했다.

〈평협의 소리〉 창간호는 주보 형태의 6면으로 편집해 한국평협이 9월 4일 부터 9일까지 아론의 집등에서 개최한 아시아 평신도회의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으며 12월 4일자 제2호는 각 본당 소식을 많이 실으면서 8면을 발행했다. 창간호와 제2호, 제3호는 각각 10만부씩 발행해 각 본당에 배포했다.

평협의 소리

제 3 호 1995년 2월 12일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말에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서 너희에게 안겨 주실 것이다."(루가 6, 38)

발행인 · 이관진/편집인 · 홍보분과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전화 777-2013, 팩스 778-7427/서울 중구 명동 2가 1 가톨릭회관 5층

농촌 살리기등 5대 중점사업 벌이기로

—서울 평협 '95 정기총회서 '도덕성 회복으로 복음화' 활동지표 제시—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1월 21일 오후 명동 가톨릭 회관 7층 대강당에서 9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복음화 운동과 우리 상품 쓰기운동 계속,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전개, 도덕성 회복운동, 알림과 나눔 등 평협의 올해 중점사업을 확정지었다.

교구내 171개 본당 사목회장 중 97명, 38개 단체 대표 중 11명, 평협 임원 45명 등 153명이

"2천년대 향한 사목회 변화의 흐름에 함께 하자"

—김인성 지도신부 격려인사—

평협 지도신부인 교구 평신도 사목국장 김인성 요한 비안네 신부는 이날 총회에서 "교구가 운영하는 평화방송TV개국에 따른 준비에 각 본당 사목회장, 단체장, 평협임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가 크다"고 말하고 "통합 가톨릭 대학을 위해서도 평신도들의 부담이 클 줄 안다"면서 그런 중에 우리는 2천년대 복음화 2단계에 접어들어 새로운 흐름에 적응해 나가는 회장님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며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김인성 지도신부는 "95년도 교구장 사목교서에 '본당 사목조직을 2000년대 복음화에 알맞는 새로운 본당상으로 개편해 나간다'는 내용도 있는만큼 구역장 제도와 사목회 회칙도 바뀌어져야 하는 이 새 출발의 시점에 회장님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도 개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신부는 또 광복 50주년을 맞이한 올해 교회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평협 임원을 포함한 회원 모두가 연구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하고 어떤 행사를 갖게 될 경우 평협이 그 주체가 되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류덕희 모세 신임 부회장

이날 총회에서 새로 뽑힌 류덕희 모세 부회장은 경기 화성 출신으로 4·19 당시 성균관대학교 학생위원장을 지내며 학원 민주화와 사회질서 회복에 이바지한 공로로 참의원 의장 표창을 받았고 보스턴 대학과 서울대 경영 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 연세대 행정대학원 고위 정책과정을 수료했으며 75년부터 경동제약(주) 사장으로 대한 약품공업 협동조합 이사장도 맡고 있다.

교회활동으로는 용산본당 사목회장을 85년부터 90년에 이어서 두번째(93~현) 맡고 있는 류부회장은 90년 이후 서울대교구 평협 사무총장과 전국평협 사무국장을 맡아오면서 93년부터는 서울 제1지구 평협회장을 맡고 있다.

박찬도 이보 신임 사무총장

서울대교구 평협 사무총장에 임명된 박찬도씨는 경북 영주 출생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나왔으며 국회사무처와 문화부, 문화체육부 국장, 영화 진흥공사 감사를 거쳐 현재 한국영상 자료원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신림동 본당 사목회 부회장과 서울대교구청 사무처 총무과장,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행사 위원회 사무차장도 지낸 박 신임 사무총장은 서울대교구 박정우 신부(미국유학중)의 부친이기도 하다.

교구 평협소식

'여명의 순교성인' 공연

—대구평협, 교구 제2주보 '성 이윤일 요한祭'서—

대구 대교구 평협 (회장 손인호)은 교구 제2주보 이윤일 요한 성인을 기리기 위한 제4회 '성 이윤일 요한제' 행사의 하나로 이 성인의 삶과 죽음을 재조명한 연극 '여명의 순교성인'을 1월 18일 부터 20일 까지 대구 두류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했다.

대구 평협이 주최하고 대구 가톨릭병원이 후원한 이 연극은 대구 관덕정 순교기념관이 창단한 '관덕정 연극단' (단장 임학권 전 평협회장)의 첫 작품으로 관덕정 순교기념관장 구본식 신부가 제작을 맡고 대본 집필과 감독은 김일영 스테파노씨, 연출은 신현달, 윤일, 요한씨가 각각 담당했다. 이번 공연은 이윤일 성인 한분의 발자취를 조명한 데 그치지 않고 성인의 삶과 죽음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 평신도들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뜻이 있었다.

대구평협 손회장 유임

대구 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지난 10월 30일 대구 가톨릭 교육원에서 제12차 교구 평협 총회를 갖고 2년 임기의 새 회장에 손인호 프란치스코 현 회장을 유임시켰다. 부회장에는 정만진 유스띠노 (교구 꾸르실료 주간)씨와 이재석 비오 (효성여대 교수)씨, 김춘 체칠리아 (교구 여성연합회 회장)씨등 3명을 선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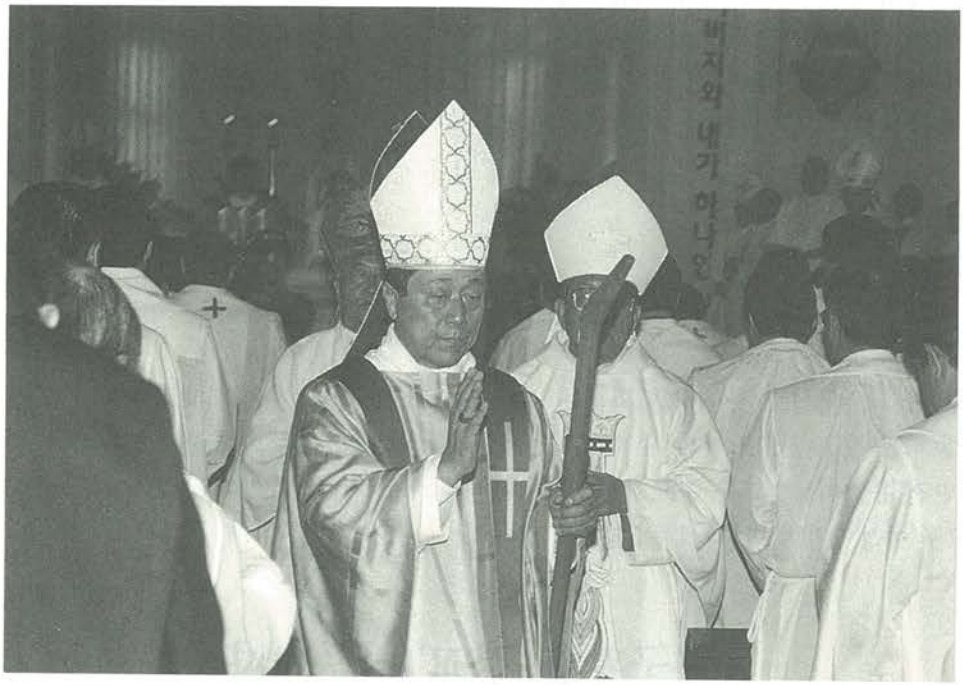
대구평협 '선교' 설문조사

대구대교구 평협은 93년 초부터 전개해 온 '1.3운동'의 자리매김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교구내 각 본당 사목위원과 평협위원, 꾸리아 간부, 구역장, 일반 시자등 모두 1천 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9월 12일 부터 한달간 우편 설문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절대 다수인 91.8%가 선교에 대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으나 교구의 세포인 본당에서 전교와 냉담자 회두가 잘 실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평협이 전개하고 있는 '1.3운동'은 자기성화와 신자 한 사람이 1인 이상 전교하기, 냉담자 1인 이상 전교하기 등 세가지를 실천하는 운동인데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8%가 1인 이상의 전교가 어렵다고 했으며 32.6%는 냉담자 1인 이상 인도하기가 가장 힘들다고 응답했다. 특히 74.8%에 이르는 신자들이 자기성화에만 치중해 신자 1인 이상의 전교와 냉담자 회두 권면활동은 아직 미진한 것으로 드러나 개인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대구평협은 분석하고 있다.

춘천 교구장 장익주교 착좌

한동안 교구장의 공석 등으로 활동이 침체됐던 춘천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회장 방재철 대건 안드레아)는 새로 교구장에 임명된 장익 요한 주교가 착좌함에 따라 평협 활동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94년 11월 20일자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로부터 제6대 춘천교구장에 임명된 장익 주교는 자신의 영명(십자가의 성 요한) 축일인 12월 14일 춘천 죽림동 주교좌 성당에서 서품과 착좌식을 가졌다. 장익 주교는 '하나 되게 하소서'(요한 17, 11)를 주교문장 표어로 삼았다.

지난 5월 21일 고 박토마 주교의 은퇴(10월 30일 선종) 이후 교구장의 오랜 공석으로 교구 운영에 차질을 빚었던 춘천교구는 장주교의 착좌로 6개월여만에 새 교구장을 맞이한 것이다. 춘천교구는 1939년 4월 25일 서울교구에서 춘천지목구(知牧區)로 나뉘어 독립한 이래 1955년 9월 20일 대목구(代牧區)로 승격됐고 아일랜드의 성 골롬바노 전교회에서 이 지방의 포교사업을 전담했다. 정식 교구가 된 것은 1962년 3월 10일 한국 가톨릭 교회가 교계제도를 설정하게 되면서였다.

춘천교구는 1993년 말 현재 38개 본당 84개 공소에 5만1천여명의 신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사제 수는 외국인을 포함해 56명이다. 평협은 그동안 회장만 임명된 가운데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수원교구 심포지움 개최

1994년 11월 10일 목(09:30 17:00) 수원 고등동 성당에서 수원평협(지도신부 최덕기, 회장 박인환) 25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교구내 성직자 수도자 평협임원 단체임원 및 각 본당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25주년을 축하하며 평신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재조명하며 주제발표 및 공개토론을 가졌다.

이날 제1주제는 윤민구신부(성남 성요셉성당)의 "변화하는 시대와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의 역할"과 제2주제 성염교수(서강대) "신도는 사회 복음화의 사도"가 발표되었다.

윤민구신부는 주제를 통해 "초기 평신도들의 활동은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으나 성사중심적인 사목으로 점점 쇠퇴하여 수동적이고, 신학적 성향이 보수적이어서 평신도들이 자발성과 주도권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교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성염교수는 "지난 30여년간 언론들이 잘못 끼워준 색안경을, 제물의 신 맘몬이 씌어준 안보이데오로기라는 콘택트렌즈를 남몰래 끼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서 반성하고 회개할 필요성"과 "내 삶의 중심이 어느 사랑에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과 삶이 연결되어 신도는 사회적 책임이 정해지고 당사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고 발표했다.

전주 교구 평협소식

미소한 자 안에서 일어난 기적들

전주교구 평협(회장:황의옥 · 파로, 지도신부:유장훈 · 요셉)은 1993년도 교구장 사목교서인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를 주제로 전주교구 평협에서 전신자를 대상으로 모집했던 선교수기를 한데 모아 한권의 책으로 발간하였다. 글을 쓰는 전문가들이 쓴 작품은 아니지만 나와 내 이웃이 선교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꾸밈없는 삶의 이야기는 읽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가정 기도문 제작 배포

전주교구 평협(회장:황의옥 · 파로, 지도신부:유장훈 요셉)은 1994년도 교구장 사목교서인 '복음화는 가정교회로 부터'를 주제로 '가족과 함께 기도'를 1994년도 전주교구 평신도 운동의 중점 사업목표로 결정했었다. 온가족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가정의 관심사를 의논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가정기도 시간을 갖도록 권장하며 이를 위해 여러차례의 임원회의와 연구위원회를 거쳐 가정기도문안을 확정 교구장 이병호 주교의 인준을 받아 가정기도문을 제작 배포하였다.

전주교구 평협 임원 연수회 개최

전주교구 평협(회장:황의옥 · 파로, 지도신부:유장훈 요셉)은 평협 임원연수회를 11월 26일~27일 정읍 내장산 관광호텔에서 실시하였다. "평협의 성격과 임원의 역할"을 주제로 실시된 이날 연수회에서는 평협에 대한 평신도들의 인식, 평협과 본당 사목회와의 관계, 평협과 교구와의 관계, 평협과 제단체와의 관계, 평협 임원의 역할 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가졌다. 또한 1995년도 전주교구 평협의 활동 방향에 관해 논의 하였다.

치명자산 성당 축성식 및 순교자 현양대회

전주교구 전신자의 숙원 사업이었던 치명자산 성당이 김수환 추기경님을 모시고 교구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성되었다. 성당 축성식에 앞서 용담 이용배 선생의 '판소리 누갈다전' 공연이 있었으며 전야제로 '한국 천주교 순교자와 이루갈다 동정부부 현양 마당극'이 로사리오 성가단에 의해 공연 되었다. 또한 조광 교수(유항검의 생애와 사상)와 최석우 신부(동정부부 유요한과 이루갈다의 삶과 영성)의 기념 강연회가 있었다.

원주평협 창간

원주교구 평협(회장 이계열 아오스딩, 지도 김한기 신부)은 5월 28일자로 18쪽 부피의 평협 회보 〈원주평협〉을 창간했다. 창간호에는 교구 내 대표적인 사적지인 풍수원 성당의 사진을 표지에 실은 것을 비롯해 교구장 김지석 주교의 문장과 문장 해설, 격려사, 이계열 회장의 발간사, 이관진 한국평협 회장의 축사, 김한기 지도신부와 박호영 사무처장, 정화순 초대 원주평협 회장의 기고, 원주교구 연혁, 평협소식, 각 본당 사도직 협의회 회장 명단과 교구 활동단체 현황, 교구 평협 조직표등을 싣고있다.

대전교구 평협 신임회장 "이병철"씨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 협의회(회장:이병철, 지도:이범배 신부)는 2월 11~12일 대전 정림동 살레시오 청소년 교육회관에서 9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대전평협은 임원선출을 통해 새 회장단을 구성하는 한편 전교, 교구복지사업, 성소후원사업, 농촌살리기 운동등에 적극 앞장선다는 내용을 담은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새로이 선출된 평협회장과 부회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 이병철(마리오 · 충남대의대 교수)
▶ 부회장 : 서우평(라파엘 · 가톨릭신문 대전 지사장)
장기운(돈보스꼬 · 충남대 농대 교수)

4개 교구 평협에 지원금

전국평협은 12월 26일 청주교구 평협을 비롯한 안동, 원주, 제주 교구 평협에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각 15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전달했다.

인천교구 평협 소식

인천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지도 김용환 신부, 회장 김건일 요한)은 지난달 11일, 가톨릭 회관 304호실 강당에서 95년도 제1차 본당 사목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년도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사진)

이날 간담회에는 95년도 사업방향 협의 외에, 본당 사목회장단의 보다 긴밀한 유대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구 대표회장을 선출, 교구내 8개 지구 67개 본당의 조직적인 본당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교구 숙원사업인 인천신학교 건립의 참여확대 방안의 하나로 6월중 신학교 건립 큰잔치를 강화 신학교 건축 현장에서 실시 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소위원회를 구성,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한편 이에 앞서 인천교구 평협은, 2천년대 복음하를 향한 교구장 나 굴리엘모 주교의 사목방침인 ,복음화하는 본당공동체의 해를 맞아, 소공동체의 집중적인 활성화와 확대를 위해 평협 조직및 기구를 전면 개편, 소공동체 활성화 및 복음화 사업에 적극 참여 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따라 교구평협은 임원회의를 비롯, 사목회장단 회의 및 교구 각 단체회의시에는 복음나누기 7단계를 실시, 실질적인 복음화 운동에 앞서 나가기로 했다.

추신 : 1. 평협 회장 원고는 직접 송고 예정
2. 평협 회장 사진및 사목회장단 간담회 사진은 오늘(2일) 빠른우편으로 송부예정
3. 평협 조직 및 기구 개편 사항은 〔가톨릭 인천〕 13호(1월호)를 참조 바랍니다.

'95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사업계획(인천교구)

1. 목 표

가. 2,000년대 복음화의 일환이며, 95년도 사목방침인 "복음화하는 본당 공동체"에 따라 교회의 새로운 모습을 지향하는 제반 사업의 추진, 지원, 참여
나. 복음의 생활화를 통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평신도상 확립
다. 신학교 건립을 위한 각종 사업 적극 동참
라. 본당 및 단체와의 상호 교류를 통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참모습 성취

2. 방 침

가. 교구장 사목방침 실현에 적극 참여
나. 소공동체의 복음화 추진위원회 조직 및 교육 전개
다. 평신도 사도직의 활성화에 입각한 내실있는 평협운영
라. 신학교 건립에 따른 사업추진
마. 평협신문 '가톨릭 인천'의 지속적 발행

3. 교 육

문의 · 연락처 761-6675

주 제	대 상	인원	일 시	장 소	회 비	내 용
본당 사목위원 및 교구단체장 연수	본당 사목위원 교구 단체장	200명 (1회)	4,29(토)-30(일) 17:00-	동서증권 연수원 (만수동)	20,000원	-사목교서 해설 -분과교육 -사목적정보교환

4. 행 사

	일 시	장 소	비 고
평화의 날 미사 및 신년교례회	1.2(월) 오전 11:00-	답동 주교좌 성당 가톨릭 회관	-교구민(700명) -성직자, 수도자, 본당대표(150명)
신학교건립기금 모금을위한큰잔치	6. 6(화) 오전 10:00-오후 4:00	신학교 건립현장 (강화)	-티켓 판매 -음식 판매 -노래 자랑
교구장영명축일및 사제단볼링대회	6.20(화)오전11:00-	답동 주교좌 성당 삼화 볼링 센타	-교구민 -사제단(시상 준비)
한가위 · 위령의날미사	9. 9(토) 11. 2(목)	백석 '하늘의 문' 교구 묘원	-미사(1,500명) -중식
본당사목위원 등반대회	10. 3(화)	미정	-약 50명
평신도의 날	11. 19(주일)	교구 및 본당	-신앙체험 수기 공모 시상 -교리 경시대회 -신앙인 작품 사진 공모전
송년회	12. 26(화)	가톨릭회관 304호	-50명 참석 -회비(평협 음식 준비)
교구민체육대회	지구별 개최		
평협신문 '가톨릭인천' 발간	월1회 / 매월 첫 주일		-3만부 발행

5. 회 의

	일 시	장 소	비 고
상임위원회(임원회)	매월 셋째 주 월 19:30-	가톨릭 회관	-교구 임원 전원
사목회장정기간담회	1. 3. 5. 7. 9월 (둘째 주 토 오후 3:00-)	가톨릭 회관 312호	-각 본당 회장(60명)
평 협 정 기 총 회	11. 4(토)	가톨릭 회관	-본당 사목회장, 교구 단체장, 평협임원(100명)

인천교구 평협임원

직 책	성 명	영 명	본 당
지 도 신 부	김 용 환	요 한	교 구 청
회 장	김 건 일	요 한	동 춘 동
부 회 장	남 기 충	루 가	만 수1
부 회 장	장 경 남	필 로 메 나	주 안1
감 사	한 형 식	요 셉	부 평2
사 무 국 장	강 춘 섭	요 셉	연 안 동
총 무 국 장	오 영 환	비 오	부 평1
기 획 부 장	김 경 규	토 마 스 아 퀴 나 스	선 학 동
홍 보 부 장	최 경 균	안 드 레 아	주 안3
친 교 부 장	송 병 현	레 오	만 수3
친 교 차 장	윤 석 조	야 고 보	가 좌 동
재 정 국 장	이 영 구	미 카 엘	숭 의 동
재 정 부 장	양 영 환	세 바 스 티 아 노	상 동
선 교 국 장	김 기 태	베 드 로	주 안1
교 육 선 교 부 장	홍 석 근	바 오 로	동 춘 동
교 육 선 교 차 장	신 영 식	베 드 로	용 현5
전 례 신 심 부 장	이 광 형	알 퐁 소	간 석4
전 례 신 심 차 장	김 유 인	대 건 안 드 레 아	산 곡3
공 동 체 국 장	강 춘 섭	요 셉	연 안 동
가 정 사 목 부 장	이 문 창	비 오	연 안 동
공 동 체 생 활 부 장	이 병 달	바 오 로	동 춘 동
사 회 사 업 부 장	고 인 길	요 한	용 현 동
사 무 원	문 경 혜	카 타 리 나	가 좌 동

청주교구 우리상품 거래 현황

품 목	용 량	품 목	용 량
저농약 7분도	2, 373 Kg	보리	2, 650 Kg
무농약 현미	1, 280 Kg	수수	568 Kg
저농약 현미	800 Kg	율무	220 Kg
무농약 찹쌀 현미	960 Kg	차조	914 Kg
저농약 찹쌀 현미	812 Kg	기장	240 Kg
무농약 찹쌀	443 Kg	서리콩	240 Kg
무농약 9분도	130 Kg	흰콩	1, 196 Kg
무농약 7분도	1, 980 Kg	콩나물콩	165 Kg
무농약 고추가루	60 Kg	팥	277 Kg
무농약 양건	12 Kg	검은팥	67 Kg
무농약 고추	690 근	참깨	460 Kg
저농약 고추	1, 230 근	흑임자	31 Kg
고추장	120 되	들깨	390 Kg
참기름(2홉)	337 병	밀	724 Kg
들기름(2홉)	336 병	대추콩	12 Kg
우리 밀가루	5, 860 Kg	미숫가루	981 Kg
우리밀 국수	3, 000 Kg	찹쌀가루	48 Kg
우리밀 2분도	465 Kg	옥수수 조청(250g)	764 병
우리밀 통밀가루	940 Kg	콩가루(400g)	362 통
유정란	2, 509 판	사과	1, 166 Box
		배	49 Box

한국 마리아뽈리 센터 축성

훠꼴라레 운동인 국제 마리아 사업회 한국본부 (남자 대표 미켈레 라우리올라, 여자 대표 반나 라이)는 8월 20일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성 라자로 마을 입구에 신축한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마리아 뽈리 센터 축복식을 수원 교구장 김남수 안젤로 주교 주례로 갖고 훠꼴라레 운동 한국 진출 25주년 기념 축하행사도 가졌다.

국내 훠꼴라레 회원을 비롯해서 마침 아시아 지역 솔선자 대회에 참석중인 일본, 홍콩, 대만, 필리핀 지역 회원과 특별 초청인사 등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마리아 뽈리 센터 축복 행사는 건물 외부와 내부 축성에 이어 미사 봉헌, 센터 준공 축하식, 축성 기념 연회, 훠꼴라레 운동 한국 진출 25주년 기념 축하행사 순서로 진행됐다.

미사는 김남수 주교와 성 라자로 마을 원장 이경재 신부외 대전교구 유흥식 신부, 수원교구 조규식 신부등 훠꼴라레 운동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봉헌 됐는데 특히 훠꼴라레 운동 로마 본부 솔선자 책임자인 폰스 (알도 스테딜레) 훠꼴라리노 사제가 참석해 미사 끝에 이 운동의 창설자이며 회장인 끼아라 루빅의 메시지를 낭독해 회원들에게 큰 기쁨은 안겨 주었다.

3천여평의 대지에 7백여평 건평 규모로 착공 12년만에 완공한 이곳 마리아 뽈리 센터는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로서 1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각각 1백 50명, 3백명이 함께 할 수 있는 두개의 강당과 식당 등을 갖추고 있다. '마리아의 도시'란 뜻의 '마리아 뽈리'센터는 국내에는 처음으로 세워진 것으로 훠꼴라레 회원들이 피정과 교육을 위한 장소로 쓰이는

한편 교회 내 일반 단체나 기관에도 피정센터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9월 한국평협이 교황청 평신도 위원회,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평신도 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아시아 평신도 회의 개막행사를 이곳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마리아 뽈리 센터 3층 강당에서 가진바 있고 수원교구 평협 행사도 이곳에서 개최했다.

M. E 세계 대표자 회의

M. E(메리지 엔카운터) 세계 대표자 회의가 1월 12일 부터 16일 까지 경기도 의왕시 아론의 집에서 열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말'실시 등을 논의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 열린 이번 회의는 세계 대표팀인 호주의 리암 수 데이비슨 부부와 빌 신부, 아시아 대표팀인 손병두 박경자 부부 (한국 M. E대표 부부)와 밥 신부를 비롯해 아프리카, 카나다, 유럽, 라틴 아메리카, 태평양, 미국등 7개 지역의 대표 부부와 지도신부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 주말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각 대륙별 M. E 현황을 보고 받았다.

회의에 참석한 30여명의 각 지역 대표 부부와 지도신부단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 13,34)는 M. E 표어를 상기하면서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M. E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세계 대표자 회의는 새로운 세계 대표팀으로 미국 대표인 빌 매리앤 보일란 부부와 찰리 콜터 신부를 선출하고 오는 8월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다음 회의를 갖기로 결정했다.

캐나다 토론토 새 성전 봉헌식

캐나다 토론토의 성녀 이소사 성당(주임 이인주 신부)의 새 성전 봉헌미사가 지난 11월 26일 오후 4시 토론토 교구의 암브로시오 대주교님의 주례하에 많은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헌되었다.

성녀 이소사 성당은 1989년 9월 20일 '성 안드레아 김대건과 성 바오로 정하상과 동료 순교자 대축일'에 본당으로 창설되었으며, 토론토 교구청으로부터 1990년 대림 제1주일인 12월 2일에 성전 건립 추진을 허락받아 1992년 11월 17일에 지금의 건물을 전력 회사로부터 구입하였다.

대지 5000평(4.8에이커)에 건평은 1000평이다. 성당은 700여명의 신자석과 1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갖고 있으며, 또한 90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친교실과 450여 명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부엌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그 외에도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리실과 7개의 회합실, 성가대 연습실, 사제관이 부대 시설로 갖추어져 있다.

대지는 120만 불에 구입하였고, 공사비로 150만 불이 소요되었다. 토론토 교구 내의 최근 새 성당 가운데 가장 잘 설계되었을 뿐 아니라, 캐나다 장로교 건축위원들에 의하면 온타리오주 내에서 3~4년 안에 지은 교회 건물 중 가장 실용적이며 공간 처리와 시설 면에서 감탄스러울 만큼 잘 지어진 교회 건물로 평가받고 있다.

성녀 이소사 성당은 5년 전 성 김대건 성당으로부터 100여 가구의 신자들을 분리받아 꾸준한 성장을 보여 왔고, 지금은 450여 가구의 신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일 미사에 1200여 명 신자들이 미사에 참례하고 있다.

사목에 있어서는 이민 1세와 2세를 융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사목의 결실을 맺어 가고 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청소년 피정을 통하여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는 방법, 효과적인 대화 방법, 영적인 성장들을 위하여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여 좋은 결실을 거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름 학교를 전문적으로 운영하여 교사 한 명당 학생 7~10명 미만의 학급을 운영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부분들을 교과목으로 선정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연기를 더해 가고 있다. 많은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한글 학교를 독특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교사들의 꾸준한 연구 수업을 통하여 독자적인 교육 방법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성녀 이소사 성당은 새 성전 봉헌식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준비 행사를 가져 왔다.

11월 5일 저녁 7시에 자축 파티를 열어 250여명의 신자들이 각 가정에서 만들어 온 음식을 함께 나누며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11월 12일 저녁 7시에 성가대에서 자축 음악회를 열어 교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가운데 성가와 가곡의 밤을 가졌다.

11월 19일 저녁 7시에 성령 기도회 주최로

(118쪽에 계속)

설립 40 주년의 파리 한인 천주교회

파리 한인 천주교회(주임 이정효 신부)가 지난 11월 13일 설립 40주년을 맞아 기념 대미사를 봉헌하였다.

초창기부터 완연한 본당의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유학 신부들에 의한 미사 집전을 통해 이루어진 한국인 신자들의 모임이 모태가 된 파리 한인 천주교회는 그 동안 끊임없이 장소를 옮겨가며 미사를 봉헌해 왔다.

지금에서야 어느 정도 본당의 조직과 규모를 갖춘 파리 한인 천주교회는 설립 40주년 기념 대미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앙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교우들간의 화목과 일치를 통해 도약의 계기로 삼고 있다. 파리 한인 천주교회는 설립 40주년을 앞두고 '묵주 기도 4만단 봉헌'을 전개 해 오고 있다.

파리 한인 천주교회는 설립 40주년을 계기고 더욱 발전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1995년도 사목 방침을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1. 신앙으로 일치하는 본당:신앙의 성숙을 위한 신자 재교육과 피정을 통한 교우들의 일치감 조성.
2. 기도하는 성가정:우리들의 양식은 기도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는 동안 화합과 사랑으로 가정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3. 용서하는 생활과 감사하는 생활:우리는 용서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용서할 때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파리 대교구 장 마리 루스띠제 추기경은 파리 한인 천주교회 설립 40주년을 축하하는 인사를 전해 왔다. 다음은 그 축사 내용이다.

친애하는 파리 한인 가톨릭 공동체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부활을 찬미하고 활력과 기쁨이 넘치는 신앙을 키우기 위해 여러분께서 매주일 이것 파리에 모여 성체성사를 거행하기 시작한 지 벌써 4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스런 이 행사에 함께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이름으로 저를 초대해 주신 이정효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와 소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관계란 지난 1984년 5월 5일 서울에서 교황님에 의해 성인위에 오른 103위 순교자들 중에 이곳 프랑스 땅에서 태어난 열 분의 신부와 주교들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에 앞서, 200년 전 한 분의 프랑스 성직자에 의해 북경에서 세례를 받은 주님의 사도 이승훈 베드로에 대한 기록은 오늘날 우리에게 경이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대부분이 단지 몇 년 간의 학업을 목적으로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파리 대주교로서 본인은 짧은 기간이지만, 이 시기가 양국의 일치된 유대관계를 재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기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본인은 여러분들의

프랑스 체류 기간이 상호간의 환대 시기가 되기를 갈망하며, 프랑스 본당이 이러한 취지를 이해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옥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생명의 샘터로 인도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맡깁시다(묵시 7,17 참조).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고, 문화를 위한 우리 자신들의 여러 재능을 풍부하게 해주시길 빕니다.

'주님의 나라'(히브 11,16)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길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4년 11월 13일

파리 대주교 장 마리 루스띠제 추기경

• 도움을 기다립니다 •

괌에 한인 성당을

군종교구장으로서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명조 아우구스띠노 주교는 지난해 9월 4일 괌을 방문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교포 신자 48명에게 견진성사를 베풀었다.

괌은 서태평양에 위치한 미국 영토로서 약 7000여 명의 한인 교포들이 살고 있고, 한국에서 비교적 가까운 관광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서울에서 비행기로 약 4시간 거리이며 비자 없이도 2주간은 쉽게 방문할 수 있다.

괌에는 200여 세대 약 800여 명의 한인 천주교 신자들이 부산교구 이기환 주임 신부의 지도 아래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 이 소공동체는 최근 한국인을 위한 성당을 짓기 위하여 전신자들이 전력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다. 괌 성전건립위원회 위원장 김영신 도미니꼬 씨에 따르면, 괌 교구와 본당 신자들이 힘을 모아 이미 1860평의 성당 부지를 금년초에 50만 불을 들여 구입하였다. 현재 전 신자들은 총력을 기울여 성전 건립 총 예상액 150만 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갖가지 방법으로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부족액 약 4억 원 정도는 힘이 닿지 않아 도움 주실 분들을 찾고 있다.

한인 성당이 건립되면 부속 건물 중에 단기 휴양 겸 피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성직자나 수도자, 일반 신자들이 아름다운 남극의 환상의 섬에서 편히 쉬고 영혼의 양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다.

연락처 : 이주사목위원회 해외교포사목국 ☎(02)466-3417, 466-0123(교환 262)
괌 한인 천주교회 이기환 신부 ☎(671)472-3330
P.O.BOX 1555 AGANA, GUAM 96910, U.S.A.

(116쪽서 계속)

'은혜의 밤'을 개최하여 "치유를 통한 감사와 찬미를 주님께" 드리는 영적인 시간을 가졌다.

11월 26일 오후 4시에 마침내 감격적인 새성전 봉헌 미사를 봉헌하였다.

11월 첫 주일부터 매주 미사 후 "신앙 체험 나눔"의 시간을 가져, 꾸르실료와 성령 세미나 참석자, 새 영세자 가운데 한 명씩 자신의 신앙 체험담을 나누어 신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바치고 싶다.

3백만 평신도 깨어나야 한다

1. 교회안에서의 역할

-삶의 현장속에 「자신이 교회」인식해야-

얼마전 한 사회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한 자료에서 우리나라 국민 총인구보다 종교 인구수가 훨씬 많은 수치를 기록해 화제가 된바 있다.

또한 공신력을 최고로 하는 정부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민 전체 인구수의 약 54%가 어떤 형태로든 종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토록 대다수 국민들이 종교와 신앙을 갖고 있는데 사회 전체에서 부조리와 날림이 판치고 인면수심(人面獸心)의 흉악범죄가 늘어가는 까닭은 왜일까?

한마디로 선(善)을 지향하고 사회를 순화시켜나가야할 개개의 종교인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책임 지울 수 있다.

특히 교회와 세상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구현할 사명을 직접적으로 부여받은 한국천주교회 평신도들은 그 책임을 더욱 통감해야 한다.

결국 평신도들이 교회가 자기 정화와 사회 쇄신을 위해 변죽만 울려 왔지 실제 생활에서는 일반 사회인들과 다를바 없이 살아왔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만 경우가 됐다.

오늘의 평신도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일상에서 신앙과 생활이 유리돼 있다는 점이다. 교회가 활기를 찾고 사회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신앙따로 생활따로」라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극복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한 평협위원은 「평신도 스스로가 자신의 신원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회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평신도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분명한 의식을 깊이 숙지하고 있어야지만 삶의 현장 안에서 역동적인 교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이들 평신도 지도자들은 지난번 한국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주최한 제1차 아시아평신도 대회에서 앞으로의 평신도사도직 활동 방향이 도출됐듯이 평신도들의 사회교리 교육과 실천 여부가 미래 교회와 사회를 지탱할 버팀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 사목자들과 평신도 사도직 단체, 교회 언론들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어릴적 부터 교회와 사회에 제몫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미래의 교회 지도자 양성에 총력을 모을 필요가 있다.

「오늘날 교회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생활의 새로운 상황은 특별히 평신도들의 행동을 절실하게 촉구하고 있다. 무관심이란 언제나 용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은 더욱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저 빈둥거리기만하는 무관심은 어느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는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평신도 그리스도인」제3항). 평신도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이 말은 평신도들이 교회와 사회 참여에 무관심할때 바로 직무유기 죄를 범하는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또한 이 경고의 말은 오늘을 살고 있는 한국 천주교회 평신도들에게 자신의 삶을 총체적으로 반성할 것을 묵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구조화된 불신의 뿌리가 갖가지 모순과 부조리로 매일같이 드러나고 있는 오늘의 사회현실을 감안할 때 한국 천주교회 3백만 신자들이 과연 교회와 사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자성(自省)하지 않을 수 없다. 가톨릭신문은 평신도 주일을 맞아 국가와 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실천해나가야할 평신도들의 역할과 자세를 「3백만 평신도 깨어나야 한다」를 주제로 3편의 기획을 연재, 교회와 가정, 사회 안에서의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을 재점검해 본다.

1) 평신도 단체(사목자 의견 집행기구로 전락)

교회의 여러 단체 안에서의 평신도 활동은 극히 필요한 것이며, 이것 없이는 사목자들의 사도직도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하는 수가 많다.

그러나 이들 평신도 단체들의 교회 안에서의 활동을 본다면 「교회의 친교와 사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사뭇 그 활동이 변질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평신도 단체의 사도직 활동을 대표하는 평신도사도직협의회와 사목위원회가 각 본당과 교구에 구성돼 있지만 솔직히 이들 단체들이 사목자들의 사목 방침을 실현시키기 위한 일개 조직으로서 수동적 기능과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유수의 평신도 사도직 단체들이 교회적 친교를 반영하기는 커녕 서로 갈라져 대립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아울러 본당뿐 아니라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성직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직자가 주인이고 평신도들은 사목의 대상일 뿐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경우를 흔히 본다.

이는 원천적으로 「참여와 친교」를 표명하는 교회의 본질을 평신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평협위원의 말처럼 평신도들의 교회 안의 역할을 따질때 단지 본당 안에서 발언권이 없다거나 본당 활동이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아닌 평신도들이 교회에 관해 왜 문외한이 됐는지를 먼저 되집어 봐야 한다.

평신도 단체, 특히 평협과 사목위가 구태를 벗고 「교회의 친교와 일치」의 표지가 되려면 우선 단체의 본질을 규정짓는 교회성의 기준을 새로이 마련해야 한다. 친교와 일치는 말 그대로 높고 낮음, 잘남과 못남이 없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사랑의 영원한 일치와 친교를 반영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평신도 단체들의 평가하는 기준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잘 말해 주고 있다.

첫째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화 소명을 으뜸으로 삼는 우위성」 둘째로 「가톨릭 신앙 고백의 책임」, 셋째 「확고하고도 진정한 친교의 증거」, 넷째 「교회의 사도직 목적에 대한 순응과 참여」, 다섯째 「인간 사회에서 교회의 현존을 위한 투신」등이 그것이다.

평협을 위시한 본당 사목위와 각 사도직 단체들은 교황이 제시한 이 기준들을 쇄신의 틀로 삼고 재무장해야 한다.

원론적인 지적이지만 평신도 사도직 단체는 더이상 사목자들의 「보조적인 팔」로서가 아닌 진리에 갈증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 찾아드는 「동네 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불목의 대상이었던 각 단

체들의 화해가 선행돼야할 것이다.

2) 여성의 참여(근로봉사에만 주력)

교회 안에 여성들이 없다.

3백만 한국 천주교회 신자들 중 65%가 여성들인데 무슨 소리냐? 고 반문할 지 몰라도 교회의 생활과 사명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더욱이 교회의 일상적인 행사 참여와 단체활동을 제외하고는 교회 안에서 마땅히 설만한 여성들의 지위와 자리가 마련돼 있지 못하다.

남녀 평등과 여성의 존엄성이 부각되는 사회와는 달리 교회에서 만은 여성의 역할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왜일까? 각 본당 사목위에 여성분과가 있고 교구와 전국 차원의 여성연합회가 사도직 단체로서 존재하지만 그 역할이 인력 동원과 근로 봉사에만 한정돼 왔고 여성들의 역량이 소원했던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여성들이 만년 교회 안에서 보충역 노릇을 해오고 있지만 남성에 비해 좀체로 그 활동의 폭이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교회 역시 신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역량을 어떻게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느냐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교회 안에서 여성의 존엄성을 신장시키는 임무를 누군가 맡아야할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여성 자신이다.

여성 스스로가 자신들의 고유한 존엄성을 의식하고 교회의 공적인 활동에 참여의 폭을 넓혀나갈 기회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정과 교회 문화 분야에 여성 사도직의 영역을 넓혀야할 것이다.

교회는 또한 윤리 도덕의 가치가 전도된 사회에 여성의 고유한 감수성을 가지고 인간성을 회복하고, 생명의 문화를 건설해나가는데 여성들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해줘야 한다.

여성들 또한 스스로를 교회생활에 있어서 보잘 것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하기 위해 여성 사도직 지도자 양성에 심혈을 기우려 나가야 한다.

3) 청년 단체(교회내 담당역할 실종)

교회가 고령화되고 있다.

지난번 한국평협이 주최한 제1차 아시아평신도대회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한국천주교회를 이끌어갈 젊은 지도자들이 없다.

본당 사목회를 대표하는 위원들 전체가 40대 이상이다. 전국의 30대 청년 신자들이 본당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지가 이미 오래됐다.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교회의 한부분으로 인식하면서도 교회가 젊은이들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젊은이들의 교회 이탈율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기를 뿜어내는 30대 청년들이 사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은 교회의 사목 대상과 언로가 얼마나 편중돼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본당 사도직 활동이 다양한 연령층이 아닌 일정 연령층에 편중되는 현상은 한국 평신도 운동의 취약점이며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할 과제중의 하나이다.

일각에서는 젊은이들을 단순히 교회의 사목적 관심의 한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젊은

이들은 실제로 복음화의 주역으로서 그리고 사회개혁의 참여자로서 교회를 대신해 행동해야 할 사람이고 또 그렇게 행동되도록 격려받아될 사람이다.

젊은이들이 교회 정신에 따라 교육되고 양성되지 못한다면 이들의 능동적인 교회와 사회 참여를 기대할 수 없다고 평신도 지도자들은 강조한다.

교회의 젊은이들이 유년기 소년기에서 부터 교회 사도직 활동에 대한 귀중한 가능성을 인정받고 교육됨으로써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로 양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 기회가 더욱 요청된다 하겠다.

2. 가정에서의 역할

-가족 이기주의 극복때 「사랑의 문화」개화-

교회와 사회를 이루는 세포로서의 가정, 평신도들은 가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3백20만 한국교회를 이루는 근간이 평신도이고 평신도 대부분은 교회의 작은 모습인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작은 교회가 모여 이뤄진 이 사회는 좀처럼 성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죽음의 문화로 점차 물들어 가고 있다.

그만큼 평신도들이 평신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평신도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구현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자 사회이며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전제할때 가정이 없다면 교회도 사회도 있을수 없을 것이며 가정 생활이 잘되고 못됨에 따라 교회와 사회 또한 잘되고 못될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새복음화, 사랑의 문화, 본당의 가정화를 위해 먼저 가정이 가정본연의 모습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그러나 우리가정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가정의 주된 관심사가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는 것과 입신 출세를 위한 지나친 교육열에 모두 쏠려있는 것이 어쩔수 없는 현실이다. 그야말로 가정 공동체의 위기를 넘어 가정 부재의 시대에 우리 모두는 살고 있는 셈이며 교회를 이루는 평신도들도 예외가 아닐수 없다.

특히 우리 가정들은 가족들의 이기주의와 물질주의, 이혼, 인공피임, 불임수술, 낙태, 가정내 폭력등으로 갈수록 생명 경시풍조에 빠져들고 있다.

실제로 낙태와 이혼을 별다른 죄의식없이 행한 신자들이 많다는 최근의 통계는 신자들도 비신자들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음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극도의 이기주의와 폐쇄주의 속에 살아가는 평신도 가정이 견지해야할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일까. 일선 사목자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정교회를 이루는 평신도들의 삶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 있다.

1) 가정기도(함께 기도하는 가정 18%뿐)

미사에 참례하고 주일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가정과 사회에서 신앙인다운 표양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평신도의 중요한 사명이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평신도들은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사랑과 생명의 터전으로서 가정을 이끌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부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간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면 부부간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기쁜 마음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고 자녀들도 자신들이 지닌 모든것을 부모를 통해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사목자들은 먼저 평신도들이 기도하는 습관부터 길러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도속에서 온 가족간의 사랑이 깊어질수 있고 기도를 통해 가족에게 닥쳐올수도 있는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될수 있기 때문이다.

바쁜 세상을 살다보니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고 더욱이 온가족이 모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란 좀처럼 내기 어려운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하느님과 일치하는 가운데 가정생활의 전체를 봉헌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생활이 기도가 될수 있도록 관심을 가진다면 평신도 가정으로서의 기초는 놓여지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전국평협의 한 임원은 「가정기도없이 주일미사와 단체에서만 활동을 할때와 가정기도를 가족들과 함께 매일 봉헌할 때는 신앙의 맛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진다」며 가정기도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만큼 가정기도는 가족간의 사랑과 신앙을 깊게 해 주는 보이지 않는 은총으로 작용하게 되고 사랑을 키워주는 기폭제가 될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조사된 설문에 따르면 가정기도를 함께 바치는 가정은 전체조사대상중 18%정도인 것으로 드러나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앞서 91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족기도를 잘하고 있다가 5.4%, 어느 정도 한다가 17.3%로 나타나 실제로 가정기도를 하는 가정은 극히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곧 가족들이 함께 모일수 있다는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더큰 이유는 「가정교회」라는 의식이 평신도들 사이에 결여됐기 때문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2) 생명수호(최일선 조직체이자 실천자)

가정은 생명의 터전으로서 자녀를 낳고 키우며 보호하고 교육시키는 중요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 특히 사랑은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가정을 통해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교육하고 실천되야 한다.

존엄한 생명을 수호하고 지키는 것 역시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하기때문에 가정에서는 인간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천부적 존재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어릴때부터 가르쳐야 한다.

가정생활의 모범과 증거로써 세상의 죄악을 지적하며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비추어 주는것이 부부의 고유 성소요 평신도 사도직의 요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정교회는 본성상 선교와 복음전파 사업을 하느님 백성의 기본적인 직무로 여겨야 할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은 선교사업 활동에서 자신들의 몫을 떠 맡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정교회는 가정사도직중 예언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존엄성과 생명권 수호운동을 위한 최일선의 조직이자 실천자로 나서야 한다.

연간 1백 50여만명의 생명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낙태되고 있는 현실은 평신도들의 역할이 얼마나 무거운지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평신도들은 생명의 존엄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겠지만 이러한 생명의 존엄성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재발견하게하는 책무 또한 막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에서부터 먼저 이러한 생명의 존엄성을 길러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자녀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교육이 이뤄짐으로서 현재의 죽음문화를 생명의 문화, 사랑의 문화로 변화시켜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가정은 자기자신과 이웃사랑, 하느님의 창조물인 자연사랑의 표현으로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 사랑은 모든 평신도들이 절제와 희생을 통해서만이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이 먼저 절제와 희생의 정신을 갖추고 이 일에 동참할 때 창조질서 보전의 조화가 이뤄질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3) 열린 가정(나눔과 섬김의 삶이 참신앙)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모든 평신도들은 봉사적인 왕직에 참여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평신도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안에서 죄의 지배를 극복하려는 영적인 투쟁 안에서 자신의 왕직을 수행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쳐 정의와 사랑으로서 특별히 보잘것없는 형제자매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왕직이다」(평신도 그리스도인 14항).

평신도들은 자신과 가족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 열려있는 마음을 갖출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발휘할 수 있다.

이기주의와 물질주의는 극도의 폐쇄적인 가정을 양산하게 되기에 이르렀고 결국 가정은 자신들의 문제에만 매달려 남을 돌아볼 여유를 상실하고 말았다. 불행하게도 스스로 작은 교회라고 하는 평신도 가정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자신과 가족에게만 쏠려있는 관심을 이웃을 향해 조금만 돌린다면 이 사회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평신도들은 잠시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물론 많은 평신도 중에는 그리스도를 받들듯 진정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다가서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부모로부터 버림당해 오갈데 없는 어린이를 입양해 가정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일, 자녀를 키울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궁핍으로 파산직전의 어린이를 데려다 부모의 상태가 좋아질때까지 키워주는 일 등은 참 신앙을 사는 평신도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서울 전농동본당의 신중석(44 · 임마누엘)씨와 김경희(40 · 체칠리아)씨 부부는 2년전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키울수 없는 승환이(4세)를 데려다 키우고 있다. 일종의 시한부 부모역을 대신하고 있는 이들 부부는 승환이 친부모의 가정형편이 나아질때까지 승환이를 돌볼 계획이다.

또한 가족이 주말마다 복지시설을 방문해 함께 봉사의 기쁨을 나누는 일도 신앙을 생활로써 증거해야 할 평신도의 사명일 것이다.

부모도 모르고 진정한 이웃의 사랑도 모르는 이 사회에서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자녀들과 함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사랑을 전함으로써 그 자녀들은 사랑을 전함으로써 그 자녀들은 사랑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가정의 문제는 결국 우리사회의 문제요, 교회의 문제다. 교회복음화의 토대가 될 가정이 건전해야 교회가 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회는 가정에 봉사해야 하고 가정은 교회의 세포로서 스스로 건강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가야 할 것이다.

3. 사회속에서의 역할

-신앙과 일치하는 사회활동참여 절실-

최근 가톨릭신앙생활연구소(소장=신치구)가 내놓은 한국 천주교 평신도의 신앙생활실태 92~93년 제 1, 2, 3차 조사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 남녀 평신도 5천27명중 3%가 하느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부정한 일을 하지 않으며 신앙에 따라 생활한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신앙생활의 장애요인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으로는 「복음과 생활의 일치가 어렵다」(29.4%), 「교리 및 복음지식의 부족」(26.8%)순으로 답해 한국 천주교회의 평신도들이 신앙에 따라 생활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신앙과 생활이 상호일치되지 않는데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또 신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천사항으로 조사 답변자의 20%가 「윤리 도덕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헌금 교무금 등을 정성껏 헌납하는 것」(17.4%)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타인에게 복음을 전한다」(9.5%), 「타인에게 언행의 모범이 된다」(8.2%)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은 전체 응답자의 10%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조사결과만을 놓고 한국 천주교회 평신도들의 신앙생활 실태를 분석하면 한국의 평신도들은 자기 중심적 구원관에 근거한 교회 내적이고 소극적인 신앙활동에 치우치는 반면, 교회 외적인 사명 즉, 선교와 복음화, 사회정의 실천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다고 지적할 수 있겠다.

평신도에게 있어서 물론 교회 안에서의 활동도 중요하고 뜻있는 일이지만 정작 평신도 활동의 고유 영역은 바로 세상이다.

따라서 가톨릭신앙생활연구소의 조사결과대로 한국 천주교회의 평신도 활동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표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평신도」들이라는 것은 교리를 배웠다는 신자들이라면 누구나 인정하고, 또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앎이 단순한 교리적 지식으로만 그치고 말뿐 삶과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 협의회는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한 나머지 금년 9월 제1차 아시아 평신도회의를 주최하면서 그 주제를 「평신도의 사회교리 실천」으로 삼은 바 있다.

이 회의에서 아시아 15개국 평신도 대표들은 평신도들의 사명이 일반 사람들과 같은 환경에서 가정 생활과 직장생활을 신앙생활과 일치시킴으로써 복음을 증거하는데 있으며, 교회와 사회가 평신도들의 사회교리 실천 도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의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평신도들의 사회교리 실천의 주요 관건은 평신도들이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나간에 사회활동, 공직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신앙과 일치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배려하는데 있다 하겠다.

1) 직장 사도직(「믿음과 생활 불일치」걸림돌)

교회의 모든 봉사는 결국 선교를 위한 사도직 활동에로 귀착된다.

평신도에게 있어서 직장은 가정과 교회와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활동 무대이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 안에서 자기가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의 것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직장인으로서 주님의 뜻을 받들고 물질에 관한 복음적 의미를 증거하는 것이다.

평신도 사도직을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먼저 가정을 잘 영위하여 사회의 거룩한 세포가 되고, 직업에 충실하고 유능하게 돼 직장을 발전시켜야 한다. 즉 평신도에게 있어 직접적인 교회활동은 오히려 그 본질상 제2차적인 사도직이다.

가정이나 직업에는 등한하거나 무능하면서 늘 성당에서 살다시피하는 평신도는 결코 모범적인 신자일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 가정은 쪼들리고 자녀들은 문제아이고, 직장인으로서는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교회에 관한 일이라면 무엇이나 간섭하고 개입하는 사례는 없어져야 한다.

최근 교회 사설 기관의 자료 조사에 의하면 전문직 종사자이건 사무직, 기능직 종사자이건, 공무원이거나 서비스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신자이건 간에 해당 직장에서 30%정도가 신앙과 생활이 불일치로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 천주교회가 대규모 군중 사목이 신앙과 생활의 일치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만큼 계층별, 직업별, 직장별 사도직 공동체를 조직화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단계에서 그 구성원의 3분의 1이 신앙과 생활과의 불일치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생활 현장 중심의 직장 사도직 단체들이 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선 교회의 사목적 지원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평신도들이 자기 직업에 관한한 세속적 영역에 대해선 누구못지않게 전문적이지만, 그 전문성을 복음의 정신에 비추어 재조명하는 활동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한 직장 신우회장의 솔직한 고백과 같이 직장 전담사제의 확충과 같은 사목적 대안이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

또 한가지 제안으로 한국 교회 전체 차원의 종합적인 선교 사목 전담 연구 기관이 설치, 평신도 지도자 양성, 분야별 사회교리실천 교육 자료 연구등을 추진해 나갈 것을 교회 당국에 요청한다.

2) 사회교리 실천(부조리척결에 노력쏟아야)

오늘의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철저한 불신과 실망은 그 어느 때보다 평신도들의 사회선교 사명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총체적인 부조리 앞에서도 평신도들은 신앙을 기초로 이 문제를 쇄신해 보려는 노력과 움직임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가톨릭 신자들의 무관심은 대부분의 평신도들이 신앙생활을 개인적인 문화적 사생활의 일부 정도로 이

해하고 있는데서 오는 결과라고 신학자들은 진단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오염된 마음을 정화하는데 치중하고 가급적이면 신앙을 현실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는 것이 오늘날 한국 평신도들의 속성이라고 신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사회과학자들은 이러한 풍조의 배경에는 신자의 4분의3 이상이 최근 10년안에 입교하여 신앙 경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신자의 72.6%가 고졸 이상의 고학력자이고 직업의 화이트칼라화 및 도시화, 우리나라 전체 세대의 자택 보유율 63%(93년 현재)보다 훨씬 웃도는 73.3%의 자택 소유율등 교회의 급속한 중산층화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교육을 받았으며 확실한 직업을 갖고, 생활이 안정된 신자층이 두텁게 자리잡고 있는 현실에서 신앙을 일상생활로 수용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돌출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평신도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우선적인 길은 신앙과 믿음을 본질적으로 현실적 사회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초월적인 것으로 이해하려는 잘못된 신앙 태도를 바로 잡는데 있다고 신학자들은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제 양성을 위해 교회가 쏟는 정성 못지않게 평신도들의 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 교육 내용으로는 교회의 사회 교리를 특히 강조해야 한다. 공의회 문헌, 최근의 교황 회칙 및 교황 문헌들을 교육내용의 기본으로 이용해야할 것이다.

3) 사회교리 실천현안(인간존엄성 회복이 "과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당신의 사도적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에서 미래의 세계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평신도들의 복음적 사회참여가 더욱 절실한 과제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교황은 아울러 예견되는 미래 세계에서 가장 요구되는 평신도들의 사명으로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하는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평신도 그리스도인 38항 참조).

따라서 평신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일이 오늘을 살고 있는 자신의 사명임을 인정하는 데 무관심할 수 없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당신의 여러 문헌들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고 인정받는 첫 단계는 바로 불가침의 생명권이 존중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한국 천주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주교단의 태도에서도 잘 나타난다. 특히 김수환 추기경이 한국 주교단이 선도한 92년 태아의 생명권 수호와 낙태반대운동을 시작한 이래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태아의 발」 배지를 달고 생활하고 있는 그 묵시적인 삶에서 한국 천주교회의 사회복음화 운동의 토대가 바로 「생명권 수호」에 있음을 확연히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천주교회 평신도들의 사회참여 현안들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생명권 수호에 집약돼야 한다.

한국 평협이 벌이고 있는 도덕성 회복운동도 바로 생명의 문화, 인간 문명을 창조하고 재건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모든 인간이 지닌 불가침의 존엄성을 재

(129쪽에 계속)

'병신도 그리스도인'은 안된다

이윤자 루치아
가톨릭신문 취재국장
평협 문화분과 위원장

총체적 난국으로 표현되는 최근, 제반문제의 근원을 따지면 결국 인간교육이라는 문제에 모든 것이 걸린다. 결국 사람을 제대로 기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올바로 크지 못한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이 반듯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고 욕심이다. 겹겹이 쌓여 무엇이 문제이고 또 아닌지를 알아낸다는 것조차 의미가 없어진 오늘, 우리에겐 사람 기르는 문제를 심각히 되짚어 보아야할 의무가 생겼다.

그런데 문제는 기르는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스승 자체가 문제덩어리라는 것이다. 가정과 부모라는 스승, 사회와 이웃이라는 스승, 학교와 선생이라는 진정한 의미의 스승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스승다운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니 스승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것이 보다 옳은 말일 것이다.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학교와 선생을 나무라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학교가 인격도야, 인성교육의 장이 아니라 시험과 입시를 위한 준비 도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의 인성교육이 잘못됐다고 학교를 나무라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 밖에 없다. 우리의 총체적 난국은 총체적으로 잘못된 사람교육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교육을 맡아야할 가정이, 그 교육을 심화시켜주어야할 학교가, 또 그 교육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사회가 모두 한덩어리로 잘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아이들이 잘못되고 있다고 한탄하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성수대교를 아이들이 놓았을리는 만무하고 유람선을 청소년들이 관리하고 운행할리는 도무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기성세대라고 불리우는 우리 자신에서부터 그 시작을 찾아내야한다. 불신을 가르친 것도 우리이며 이기심을 보여준 것도 우리 자신이며 거짓말과 왜곡으로 진실을 가려버린 것도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 탐욕과 눈가림 적당주의도 다름아닌 우리 기성세대의 모습이었다. 수없이 태아를 살해하면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인지도 외국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사람이자 삶의 선배인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가.

항간에 나도는 소문처럼 혹시 지하철이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염려되는 것도 솔직한 심정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온 과정대로라면 이 또한 전혀 터무니없는 염려가 아니기에 국민들은 더더욱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과거의 관행이 상당부문 그대로 남아있는 정부 행정당국과 전체 공직자들의 정신적 혁신 없이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뼈아픈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이번만큼은 우리 국민들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니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그 누가 아닌 바로 내가, 내 가족이 온통 「부비트랩」으로 무장된 것 같은 나라에서 살고있는한 국민 모두는 결코 오늘의 이 비참한 아픔을 잊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에겐 또 튼튼하고 건강한 미래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중요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나라 전체가 잘못 놓여진 주춧돌 위에 위험하게 서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앞서의 지적대로 정부 행정당국과 공직자들의 참회어린 반성과 정신적 혁신이다. 나라의 주춧돌을 다시 놓는 이 역사적 과업에서 그들은 우선적 책임이 부과된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급히 필요한 것은 지도자급 인사들의 대오각성이다. 명예로운 직책에 있거나 권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또는 막강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재벌가들, 그 누구라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오늘의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을 굳이 서열별로 따지자면 지도자급 인사들에게 우선한다는 사실은 이미 모든 사건의 결론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 모두의 책임 역시 간과할 수가 없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현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방치한 방관자이며 공범자들인 것이다. 불의와 부정의가 판을치고 바른 길 보다는 옳지 못한 길임을 알고서도 지름길을 선택한 우리 모두 역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국민들의 책임은 논하면서 평신도들의 책임을 지나칠 수가 없다. 우리 평신도 역시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신앙인은 그 성격상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인,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신앙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평신도들은 반드시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이어야 마땅한 일인 것이다.

또 다시 평신도주일을 맞는 우리 평신도들은 막중한 책임의식 속에서 우리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사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길을 냉정한 눈으로 점검해 보아야만 한다. 과연 나는 진정한 의미의 「평신도 그리스도인」인가? 아직도 자신의 길을 제대로 알지못해 뒷전에서 불평만하고 있는 평신도는 아닌가?

내일의 교회 주인인 젊은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밝고 건강한 교회를 물려주기위해, 오늘 평신도들은 보다 씩씩해질 필요가 있다. 더욱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그것을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단 한가지, 「공부하는 것」이다.

(127쪽서 계속)

발견하는 것은 교회와 그 안에 사는 평신도들이 인류 가족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봉사의 근본 임무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핵심적이고도 통합적인 임무」라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말씀은 21세기를 준비하는 모든 평신도들이 깊이 새겨야 할 가르침이라 하겠다.

〈가톨릭 신문 94. 11. 13~27 전재〉

평신도의 날과 넥타이

최 헌 베드로
방송작가 · 창 4동 사목회장

그분이 아직 살아 계신다면 올해 춘추가 여든 하나가 아니면 여든 둘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의 어머니의 그림자처럼 그분도 내 가슴에 늘 남아 있는 사람이다.

중학교 2학년이 되던 때인가 싶다. 나는 그분이 쓴 시(詩)와 산문(散文)이란 동인지(同人誌)를 통해 그분이 쓴 글을 읽고 넥타이에 얽힌 우정(友情)의 이야기에 가슴이 뜨거워졌으며 그 뜨거워진 가슴에 때묻지 않은 소년기(少年期)에 흘릴 수 있는 눈물을 줄줄 흘린 적이 있었다.

일제시(日帝時) 끈질기게 따라 붙어다니는 고등계형사의 눈을 피해 만주로 야간도주하는 친구와의 헤어지는 플랫포옴의 한 구석에서 석별의 손을 맞잡고 고개를 깊숙이 숙인 두 사나이가 마침내 서로가 목에 매고 있던 넥타이를 풀어서는 서로의 목에 바꿔 매어주는 이야기이다.

지금도 넥타이의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한 뜻을 모르는 나다. 하지만 나름대로 독선적인 해석을 한다면 일반적인 통념에서 벗어 난 해석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넥타이란 기쁨의 상징성을 지녔다기 보다도 슬픔의 상징성을 지녔다고 여겨진다.

누가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내 견해(見解)는 그렇다.

이 견해 때문에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고 웃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 결혼식에도 넥타이를 매지않은 차림으로 식을 올렸었다.

나를 잘 아는 가까운 친구들은 이런 나의 태도를 보고 고집이 세서 그렇다는 표현보다는 개성이 지나치게 강한 탓 때문이라고 듣기 안 좋게 평가하지는 않는다.

어쨌든 내 인생에 있어 넥타이는 나와 인연이 멀다.

몇해 전에 세상을 떠난 정영일이란 분이 있다. 조선일보에 몸을 담고 있었다. 그분의 타이틀은 영화평론가였지만 실은 아마추어 경지를 훨씬 넘는 클래식 음악과 야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였다.

그분과 친교를 맺으며 간혹 술을 함께 하면서 지낸 것도 한 30여년 가까이 된다.

내가 왜 정영일 그분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며는 그분 역시 넥타이와 인연이 없는 인생을 보냈기 때문이다.

한 때 KBS에서 방영된 주간물 프로인 〈사랑방〉 이란 것이 있었다. 거기에 원로이신 오리선생님과 고정 출연자로 얼굴을 보인 일이 있다.

녹화 때문에 왔다가 방송국 작가실에 머물고 있던 나와 마주치게 되어 차를 한잔 나누게

됐는데 그분의 말이 "최형 아직도 타이를 안 매기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는 당신은?"

두 사람은 크게 웃었다.

나는 정영일 그분이 한번이라도 넥타이를 맨 것을 본 일이 없다. 그분도 내가 넥타이를 맨 것을 본 일이 없었을 것이다.

넥타이와의 인생에서 너무도 무관했던 내가 지난해 평신도의 날을 맞아 목에 넥타이를 매었다. 타의반 자의반이 아니라 완전히 타의에 의해서 행해진 일이었다.

평신도의 날이기에 오늘만은 정장을 해야했다. 그리고 넥타이도 매어야 했다. 머리도 좀 손질하는 것이 순서였을 것이었다. 적어도 한 성당의 당회장으로서 신부님이 미사 때 서시는 자리에 서서 평신도에 대한 기념사를 하게 된 시간에 머리를 흐트러진 꼴로 검은 도꾸리 셔츠를 입고 평신도를 향해서 기념사를 하겠다는 자기특유의 그릇된 방자한 태도가 우선 기본자세를 갖추지 못한 모양새가 아닐 수 없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모양새로 강론을 하겠다는 발상이 정상을 벗어 난 상식 밖의 일로 풀이 되기에 적합했다. 그러나 정상을 벗어 난 상식 밖의 일로 간주되는 이런 모양새도 나에게 있어서는 상식이며 결코 정상을 벗어난 모양새로는 해석 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 아닌 자(者)의 상식의 수용차이(受容差異)에서 오는 고정사고(固定思考)의 탓일 뿐이었다.

나는 넥타이를 매지 않았다.

토요특전 미사때부터 시작되는 기념사를 신부님 대신 본당의 교우들에게 전했다. 아주 엄숙하고 뜻깊은 날임을 새로운 뜻으로 받아 드릴 수 있겠금 제스처도 갖췄다.

그러나 미사가 끝나고 신부님과 나와 단 둘이 됐을 때 신부님은 황급히 말을 나에게 건네어왔다.

매우 말씀을 하기에 거북스러워하고 미안해 하는 태도이셨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주일미사 다섯대분의 양(量)을 생각할 때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임을 신부님은 간파하시고 마지못해 나에게 말을 건네어 온 것이였다.

"회장님, 넥타이도 매시고 양복도 되도록 검은 양복으로 정장하시고 흰 와이셔츠로 갖추었으면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런 날입니까? 일년 열 두 달 그 누구도 사제가 서는 제단에 설 수가 없는데 딱 일년에 한번, 평신도의 날을 맞이하여 교회의 당회장이 신부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점과 좋은 강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하필 그날 따라 모양도 안 내고 평상시보다도 더 못한 차림으로 제단에 선다는 것은 안될 일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특전 미사라 너그럽게 받아 넘길 수가 있지만 내일은 정식으로 평신도의 날이고 새벽 미사부터 밤 미사까지 다섯대를 치루어야하니 꼭 검은 양복에 흰 셔츠를 입으시고 넥타이를 해 주십시오."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셨다.

나는 일생동안 넥타이에 대해서만은 내 생각대로 살아 온 고정화(固定化)된 자그마한 질서가 드디어 무너져내리고 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 평신도의 날을 맞이하여 오랫동안 지켜온 내 작은 원칙이 기여코 무너져버리고 마는구나. 넥타이여! 그대 이름은 강한 존재이니라 …

나는 신부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다.

다음 날 나비 넥타이를 흰셔츠에 받혀 매고 구두도 닦아 신고 나왔다. 나를 본 신부님의 얼굴이 초봄을 맞이하여 양지에 핀 매화 꽃처럼 화사해 지셨다. 그 화사한 신부님의 빛깔은 흐뭇해 하시는 미소를 의미하는 안색이었다.

평신도의 날과 넥타이. 그리고 이로인해 얽힌 신부님과 나와 넥타이. 이 모든 에피소드는 먼 훗날까지 내 가슴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아름다운 회상(回想)의 열매로 남을 것이다.

나의 결혼식에도 매지 않던 넥타이. 그 넥타이를 평신도의 날을 맞이하여 그것도 신부님의 권유에 따라 마지못해 매었던 내 생애의 이변을 기억해 두기위해 그날 우리 본당의 교우들에게 남긴 기념사를 여기에 발췌해 옮겨본다.

형제자매님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에게 찬미를 보냅니다. 오늘은 스물 일곱번째를 맞는 평신도의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기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이 뭣인가를 성찰하고 각자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는데 뜻을 모아야겠습니다.

본래 우리들 평신도는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나오는 빛과 소금이 되라는 누룩의 표상들은 그리스도의 열 두 제자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이 추악한 세상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교시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소금으로 살아주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처럼 살아야할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이웃도 사랑해야함을 일러 주셨습니다. 이웃 사랑은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장 구체적인 표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동의어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자매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아들 딸로서 성당 안에서만 열심한 신자로서의 자부심만 갖는데 만족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자녀에 대한 교육을 올바르게 지도 감독하고 윗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샘물처럼 맑은 모습으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영위해 가며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앞에 놓여진 현실이 비록 어둡고 참담하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망 그 자체라는 것도 잊지마시고 희망을 잃는 일이 없어야 되며 더 더욱 절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희망이 있습니다. 드높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영원성을 띈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희망의 향기를 성스럽게 간직하고 지금보다는 내일을 향해 주님께 가까이 빠른 속도로 접근해 갈 수 있는 사도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평신도의 날을 맞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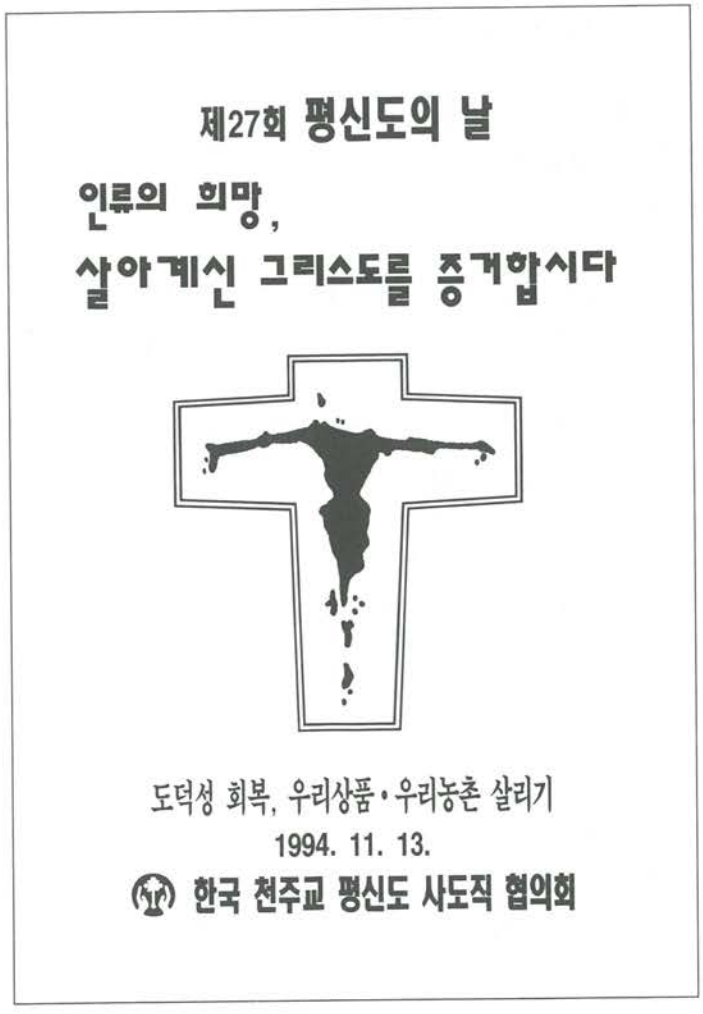
뜻깊은 평신도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사로 강론을 대신 했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류의 희망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제 27회 평신도의 날입니다. 연중 마지막 주일을 한주일 앞두고 오늘 평신도의 날을 지내는 것은 적어도 1년에 한번은 모든 평신도들이 다같이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해 나가자는 데에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성자를 인간 세계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분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써 세우신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당신 대리자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모든 하느님 백성들이 그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대로 삶으로써 이 지상에서 부터 천국을 맛보며 영원한 행복을 준비하도록 마련하신 것입니다. 세속에 살면서 가정과 사회의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평신도들에게는 '세속'이 곧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을 성취하는 자리가 되고 그 수단이 됩니다. 평신도들은 본래 현세적인 일에 종사하며 하느님의 뜻대로 매사를 관리함으로써 하느님의 나라를 찾도록 불린 사람들입니다(교회 헌장 31). 그러기에 복음에 나오는 소금과 빛과 누룩의 표상들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지만 특별히 평신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평신도 그리스도인 15). 생활의 증거로써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평신도들입니다.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보편적인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사건,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살해하고, 살인공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연습으로 인명을 살상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복살인이다, 공직자 비리다 뭐다하면서 별스러운 범행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가 하면 지난 달 21일에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이르러서는 무어라고 분노를 터뜨려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지경입니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와같은 사건이 날 때마다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와 각계 인사들은 경쟁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개탄하고 질책하지만 그 누구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 모두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망각 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정의가 무너지는 참담한 사태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 책임지는 이가 없고, 책임질 줄 모르는 세태가 되버렸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이 땅에 사는 우리 천주교 평신도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썩지 않도록 소금이 되라고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또한 우리에게 누룩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속에 사는 우리 평신도들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시오"(마태오 20, 7).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라"(마르코 16, 15).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20, 21).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요한 15, 16).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파견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며 나아가서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평신도 그리스도인 17). 세례로써 불리움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동시에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할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민감하게 이웃의 궁핍에 대해 주의력을 기울이고 구체적인 배려와 연대감, 서로간의 나눔을 실행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우리 생활에서 바로잡고 고쳐야 할 부분들을 찾아내서 시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각박하다고 실의에 빠져 있거나 그 원인을 규명하고 누구의 탓인지를 가려내는데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잘못돼 가고 있다면 같은 시대를 살아왔고 지금도 그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책임의 일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전체 인구의 절반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100명 중에 7-8명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우리 신자들만이라도 진정으로 이웃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하느님을 합당하게 사랑하고 있다면 세상이 과연 이렇게까지 황폐해졌겠는지, 생각해 볼 일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분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우리가 살 때 세상은 변화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리기에 앞서 내가 먼저 변화하도록 노력할 때 세상은 조금씩 달라져 보이고, 실제로 변화해 갈 것입니다.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이미 1980년대 부터 도덕성 회복 운동을 전개해 왔고 오늘 평신도의 날을 계기로 이 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 상품을 우리가 쓰고 우리 농촌을 우리가 살리는 운동에도 평협이 앞장서 나가면서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실천하는 과제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전국의 모든 신도들과 함께 다짐하고자 합니다.

한국평협은 지난 9월, 경기도 의왕시 아론의 집 등에서 교황청 평신도 위원회,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평신도 위원회와 공동으로 첫번째 아시아 평신도 회의를 개최하고 평신도의 교회 사명 참여와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연결시키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요컨대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닌, 신앙과 생활의 일치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억압 받는 이들을 위해 일하며, 젊은이들과 가난하고 착취당하는 이들, 아동과 노동자들,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도 우리 평신도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는 하나의 공동체로 불리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사회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도 앞장 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 평신도들에게 "보다 참된 인간 발전을 가져오는 단순한 생활을 해나가면서 아시아인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떨쳐 일어나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성당 안에서만 열심한 신자라는 자부심을 갖는 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일에서 부터 자녀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노인을 공경하며 효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각자 위치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학교와 직장과 사회에서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현실이 비록 어둡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절망은 곧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참으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살아 계시는 인격적인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기쁜 소식'이며 기쁨의 전달자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그 기쁜 소식을 선포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평신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희망과 사랑의 표지요 원천으로써 세상의 모든 분야에 현존하게 되는 것입니다(평신도 그리스도인 7).

오늘 평신도의 날 2차 헌금은 우리 본당과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그리고 전국평협이 조직적인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펴 나가는 데에 쓰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오늘 복음 한 구절로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시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마르 13, 30. 31)

아멘.

"주님과의 약속"

봉두완 다위
세계 꾸르실료 협의회의장

주님을 따라 나선지 어언 40년. 그 짧고도 긴 인생역정을 걸어오면서 주님의 사랑과 도움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뛰면서 살기도 했고, 주님의 명령대로 사탄과 싸워가며 쓰러진 영혼들을 되찾는 꾸르실리스따라고 자부하고는 있지만 한가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주님은 언제나 나의 곁에서 힘과 용기를 주시며 나를 일으켜 세웠고, 나의 가는 길을 밝혀 주셨지만, 그때 마다 나는 내 혼자 힘으로 일어섰던것 처럼 행동했다.

내가 이렇게 60평생 건강을 자랑하며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바쁜 나날을 보낼때는 주님의 존재가 잘 생각나질 않았음은 물론이다. 주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주님은 저 멀리 미소짓고 서 계셨지만 나는 그분에게 목례정도로 대충 인사나 하고 지나가는 동네 어른의 존재 정도로만 취급한채 내 갈길을 바쁘게 재촉할 뿐, 내가 왜 자주 걸려 넘어지는지를 알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내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었고 예수를 잘 몰라서 예수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지고 보면, 내가 주님을 따라 나선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나를 근 40년이나 따라오며 지켜 주신 것이다. 그것은 유치원이나 국민학교에 갓들어간 어린이가 혼자 힘으로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는것 같지만 언제나 저 먼 발치에서 귀여운 자녀의 발걸음을 지켜봐 주는 어머니의 사랑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날 끝없는 광야를 주·야로 헤매이던 나에게는 어떤 신비한 소리가 들려왔다. 노래 소리와도 같고 새소리와도 같고 사람의 음성 같기도한 오묘한 그 소리는 무게를 싣고 있었다.

외롭고 쓸쓸하고 기댈곳없는 나는 무조건 그 소리나는 쪽으로 걸어갔다. 어둠속에서 들려 오는 그 목소리는 정말 무겁고 정중하며 부드러웠다. 가까이 갈수록 누구의 목소리인가 궁금해지는 바람에 나는 소리를 질렀다. "거기 누구냐고, 누구의 목소리냐고 …."

나는 갑자기 무슨 빛 같은것을 본것 같았고 사람의 형상을 본것 같았다. 나는 금방 그것이 나의 사랑하는 주님임을 육감으로 알수 있었다.

「오, 주님!」 그러나 손을 내미는 주님이 계신곳까지 가는길을 몰랐다. 알수가 없었다. 주님이 손짓하며 따라오라는 길로 계속 가봤지만 40년이 흘러간 지금도 어느길로 어떻게 저 지평선을 넘어 주님이 인도하는 낙원으로 가야하는 건지 아직 모르고 있다.

그런데 어느날, 나는 정말 가까이서 주님을 만났다. 거기에는 암흑도 없고 짙은 안개도 없었으며 1미터 거리 바로 코 앞에서 느닷 없이 주님과 마주쳤다.

나는 무슨 말부터 해야할지 몰랐다. 본래 나는 남의 말을 먼저 들으라는 주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언제나 내말부터 먼저하는 나쁜

버릇이 있다. 나는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할순 없지만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다."는 말과 그동안 주님이신 선생님의 가르침을 너무 따르지 않았다는 고백과 엉뚱한 길에서 방황하다가 이렇게 느닷없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 가슴이 벅차 뭐라고 해야 옳을지 모른다는 참회를 쉴새없이 흐르는 눈물과 함께 했다.

하여간, 그 만남은 엄청난 새 출발을 기약하는 계기가 되었고 멀리 계시던 주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는 순간이었고, 주님의 무궁한 사랑속에 다시 태어나는 결정적인 전기가 되었다.

1985년 여름, 서울대교구 남성 제82차 꾸르실료 교육중에 분단성체조배는 나의 인생의 모든것을 새롭게 했다.

나는 그때 12대 국회 외무위원장이었다.

남들이 볼때는 아주 괜찮은 직위였고 내 자신 잘먹고 잘지내면서 목에 힘깨나 주고 다니며 뭐가 된 기분이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루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왜냐하면 그때가 12대 총선거로 국회의원 선거를 두번째 치룬후였고, 국회 외무위원장 자리를 두번째 막 얻어 가진후인지라 남들이 볼때는 하나도 고민이나 걱정이 없을텐데 나만 속이 타고 부글거리고 갈등을 느끼고 고통이 따르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때 세태는 말할수없이 험하게 돌아갔고 계층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있었고 정부 여당에 속했던 우리같은 사람에게 던지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는 가공할만한 것이었다.

정부 여당내의 고위급 인사들 가운데 가톨릭신자들이 모여 「미리내」라는 모임을 만들어 명동성당에서 국가를 위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폭언과 야유를 퍼붓고 문짝을 두드리다가 미사를 끝내고 나오는 우리들에게 돌과 계란과 모래를 마구 던지며 항의하는 것이었다. 칠흑같은 어둠속에서도 다른 사람보다도 "저기 봉두완이가 있다. 봉두완이 한테 던져!" 하는 소리는 지금도 내 귀에 쟁쟁하다. 마음씨 착한 나의 아내 안젤라는 재빨리 나를 감싸고 날아오는 돌과 모래를 내가 맞지 않게끔 움직이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흠뻑 뒤집어 쓰는 모습을 보고 나는 이래저래 죄인처럼 할 말이 없었다.

오죽이나 미웠으면 저렇게 소리 지를까?

오죽이나 배신감에 사로 잡혔으면 저렇게 마구 던질까?

나는 정녕 누구편에 서 있는가?

나는 정말 누구인가?

1985년, 드디어 하느님은 응답하셨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화의 길을 걷기 위한 은총을 주시며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내 믿음으로 주를 알아 볼수 있게 했다. 그것이 바로 성체조배때 주님과 마주 앉았던 순간이었다.

때마침 미국 상·하 양원 의원 일행이 나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그쪽 사정으로 본래의 일정을 바꾸어 며칠 늦게 도착한것이다. 초청자 없는 한미 의원행사는 말할것도 없이 뒤죽박죽이 되었고 나를 찾는 전화는 불이 났다. 도대체 무슨 피정에 들어갔길래 전화 한통 못 받느냐고, 대통령이 부르는데도 얼굴 한번 안 비치냐고 …. 「정 그럴려면 정치를 그만두던지 가톨릭을 그만두던지 하라고 해!」 하는 벼락이 떨어졌지만 나는 이미 가톨릭을 택하고 있었다.

1987년 대통령 선거때 나는 민정당후보였

던 노태우의 당선을 위해 온갖 힘을 다 쏟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의 민심동향과 정국의 흐름은 한 정권의 종말을 예고 하고 있었고 민주화의 물결은 점점 시대적인 요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대통령도 군부출신이고 대통령 후보도, 선거대책위원장 사무총장 … 거의 모두가 군부출신인 상황에서 김대중 김영삼 두 김씨가 합의, 단일후보로 나오는 날엔 전혀 가망이 없었다. 나는 국민의 편에 서기로 마음 먹었다. 그리고 군인들은 정치에서 손을 떼라고 외쳤다. 정치적으로는 노태우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였고 개인적으로는 군정종식이 시대적 요청임을 늦게나마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천신만고끝에 거의 부정선거에 가까운 결전끝에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13대 국회의원 공천에서 그는 나를 맨먼저 탈락시켰다. 군부의 압력때문이었다.

한동안 배신감과 좌절감으로 착잡한 마음의 동요를 누룰수 없던 나는 결국 잠시 멀리 했던 나의 주님을 찾아가 매달리기 시작했다.

"전능하신 주님, 나를 오늘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비오니 주의 덕능으로 나를 구하시어 오늘도 도무지 죄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또한 생각과 말과 행위를 인도하시어 주의 명을 정성으로 받들게 하소서 …"

주님과 마주 앉아 중얼 거리는 동안 1985년 꾸르실료 분단 성체조배때 내 앞에 나타나신 주님이 환한 얼굴로 그러나 엄숙한 표정으로 가까이 다가오시며 나를 위로해 주셨다. 나는 그때 주님께 내가 뭐라고 울부짖었는지 무슨 약속을 또 했는지 … 어찌된 영문인줄은 몰라도 목이 메어 울음이 터지고 쏟아지는 눈물을 억제하지 못한채 주님께 매달렸다. 이젠 엉뚱한 생각 다 버리고 주님만 따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

꾸르실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성체조배를 통해 나는 항상 그리스도와 가깝다는 것을 의식할뿐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정신적 피난처, 마음의 위로가 된다는 것을 강렬하게 느끼곤한다.

꾸르실료(Cursillo) 3박4일 가운데서 분단 성체조배는 공동체 의식을 불러 넣는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그분과의 허물없는 대화가 얼마나 큰 위안이고 가슴벅찬 감격" 인가를 알수 있는 것이다.

교회 운동으로서 꾸르실료(단기 지도자 교육)가 우리에게 도입된지 27년, 이 정신은 한결같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왔음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2000년대 복음화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열의와 다짐은 눈에띠게 식어가고 있지 않은가!

지난 여름 꾸르실료 탄생지인 스페인의 섬 「마요르까」에서 개최되었던 「꾸르실료 50년 기념 대회」에서 17개국 대표들은 한결같이 「꾸르실료 기본 정신」에 입각한 순수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특성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전세계 60개국에 약 300만명의 남녀가 꾸르실료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7만명의 꾸르실리스따들이 교회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가치있는 신앙생활의 표본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굳게 다진 결심들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마음을 활짝 열고 격의 없는 사랑의 대화를 계속 나누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필

(141쪽에 계속)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

류 덕 희 모세
서울평협 부회장

"너 어디 있느냐"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발가벗은 몸이 부끄러워 숨은 아담과 이브에게 하느님의 준엄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존재로 실오라기하나 걸치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 감히 하느님과 견주려는 교만함의 죄를 지었어도 하느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 세상을 그리고 인간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대로 되돌리시려는 하느님 사업에 동참하도록 늘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십니다.

세상 어느 곳이든, 어떤 일이든, 누구든, 자기가 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어떤 모습으로든 응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사도로서 혹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가정의 일원으로 각기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성실히 응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응답은 잘나고 못남을 따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으면 있는데로 없으면 없는데로 자신의 처지와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행해지는 응답이 우리가 해야할 도리입니다.

부모로서의 능력이 혹시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해서 부모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저버릴수는 없는 일입니다.

때로는 주위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도움도 주면서 자신의 책무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 사도직으로서의 책무와 권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으로서의 자리는 눈에 보이는 계약관계이므로 철저히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평신도 사도로서의 자리는 급여에 묶여있는 속세에서의 자리와는 달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임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내려진 하느님의 부르심에 자칫 귀기울여 대답하지 않습니다. 때로 약속을 하고 때로 큰소리치며 교회나 어떤조직에서 열심히 하느님 사업이나 임무를 실천하겠다고 해놓고는, 여러가지 이유나 핑계를 대며 제대로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바쁘다거나 능력이 없다거나 또는 구성원간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간단하게 자신의 자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미

쳐 열심히 하려는 마음과 용기를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소형 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어 손질을 해서 둘려고 보니 배 밑창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고치기로 하고 그대신 페인트칠 만은 칠장이를 불러 말끔히 해두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듬해 봄에 보트를 타고 싶어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그 보트를 타게 했는데 여러시간이 지나서야 그 구멍을 생각해 내게 되었지요. 수영도 할줄 모르고 노 젓는 것도 서투른 아이들 생각에 당황하여 다급히 호수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보트를 타고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의아해하며 배밑을 살펴보니 작년겨울에 난 그 구멍은 누군가에 의해 튼튼하게 막아져 있었습니다.

칠장이의 눈에 보이는 책무와 부르심의 내용은 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의 일화에서 칠장이는 자신의 책무가 결국 그 보트를 온전히 보존하고 원래의 기능과 모습을 되찾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그의 책무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보트의 주인처럼 자기의 기본적인 책무조차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자칫 사랑스런 아들 딸들을 잃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참으로 가슴아픈 일들이 유난히 많았던 해였습니다. 이는 모든 이들이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할 자리에서 제대로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책무를 지닌 우리 신앙인은 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1995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충실히 지키면서 더욱더 열심히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9쪽서 계속)

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주님을 따라 나선지 어언 40년.

주님의 사랑과 도움을 엄청나게 받았으면서도 나는 주님을 위해 과연 무엇을, 얼마나 했으며 주님의 명령대로 제대로 싸웠는지 깊이 뉘우칠 뿐이다. 아멘.

어느 나그네의 넋두리

강 주 희 요한
한국평협 · 서울 평협 사무국장

11월도 저물어 갔다. 11월은 위령성월이어서 나는 어느때 보다도 더 세상을 떠난 부모형제와 조상님들과 친지들을 위한 기도를 나름대로 바치며 지냈다. 그토록 푸르던 가로수 잎들도 거센 비바람에도 꼼짝 않더니 겨울의 찬 서릿발 앞에서는 낙엽이 되어 땅바닥에 힘없이 나뒹군다. 건강하던 사람들도 언젠가 죽음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며 한줌의 흙으로 돌아가는것이 자연의 섭리이련만 이 조락의 계절을 맞으면 어느때 보다도 상념에 잡히기 마련이다.

위령성월 마지막 주일 (11 월 27일) 서울평협에서는 제3회 연도경연대회를 성대히 치뤘다. 이번에는 교구가 15개 지구로 확대 개편되어 14개팀이 참여해 경연을 벌였다. 1개팀마다 30명 모두가 검은 넥타이와 희고 검은 블라우스(여성들) 등으로 정장을 했으며 출연진 앞에는 빈 관이지만 그위에 조화가 놓이고 촛불까지 켜져 있었다. 각팀마다 단상에 나와 통일된 새연도를 바치는 모습은 정말 근엄했다. 하느님께 죽은이를 맡기는 애절한 간구였으며 정성스러이 합송하는 연도의 경연 모습은 진지하고도 견건하기 그지 없었다. 숙연히 고개 숙여 바치는 연도의 모습은 유난히 아름답게 보였다. 애절한 기도 그 자체였다.

하루종일 그 광경을 지켜 보면서 느낀 소감은 살아 있는자의 마음에도 저토록 진하게 느껴지는데 죽은이나 먼저 가신 조상님들이 저런 연도를 받으면 그지없이 기쁘리라고 생각해 봤다. 문득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부모님과 두분의 대부님 그리고 친숙히 지내던 친척과 친구들의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 낙엽지는 풍경속에서 죽음을 묵상하며 언젠가 내가 죽은 시신과 관을 놓고도 자녀들과 친지들이 이 연도를 바쳐 줄것을 생각해 보니 남달리 감회가 다르다. 또한 이런 생각도 해 보았다. 내가 죽은 뒤 나를 아는분들은 어떤 말들을 할까, 칭찬 받을일이야 없더라도 욕을 먹지는 않아야 될텐데 … 하고 쓸데없는 걱정도 해보게 되었다.

사람이 죽으면 세가지 유형의 말을 꼭 듣게 된다고 한다. 첫째는 그분이 돌아가셨어. 정말?… 아까운 분인데… 하면서 듣는이들을 매우 애통해 하며 그의 칭찬을 하는이가 있는가 하면 두번째 유형은 그사람 죽었다지. 아직 더 살 나이인데 안됐구먼… 하는 유형이 있고, 세번째 유형은 그놈 뒤졌어? 잘 죽었다. 못된짓 많이 하고 자식들 마져 싫어하더니… 하는 세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이다. 이 세번째 같은 경우는 죽더라도 당하지 않아야 할텐데 하는 공연한 생각이 유난히 떠올랐다. 누구나 선한자의 죽음에는 애통해 할테고 못된자의 죽음에는 사후 평가가 가혹하리라.

이런 생각들을 하는 내자신 부끄러운 삶을 살기에 자격지심에서 나오는 소산으로 본다. 세상에는 죽어도 죽지 않는 많은 성인 성녀들이 지나갔다. 애국자가 있으며 자선가도 있다. 역사에 비친 위인들 말고도 우리 교회에

도 얼마든지 이름조차 밝히기를 싫어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전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때 30여명의 인명을 구하고 스스로는 탈진하여 살신성인한 장재훈씨 같은이는 죽어도 죽은것이 아니라 이런분들 같이 거룩한 죽음이나 봉사를 하려해도 좀처럼 기회가 없다는게 나의 핑계다.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부끄럽게 살 뿐이다. 그러나 희망은 그런분들 같이 살다가 죽고 싶은것이다. 그러나 내 행동이 이토록 단조롭고 게으르고 이기적이며 편견과 고집과 교만한데 어찌 그런분들 흉내를 감히 낼 수 있으랴. 환상일뿐이겠지.

몇일전 우연히 TV(사람과 사람들)를 보다가 전라도 어느 농촌 40세의 노처녀가 불우이웃돕기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정성을 쏟는 모습을 보고 살아있는 작은 예수님으로 느꼈다. 그는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태어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결혼 같은것을 할 겨를이 없어 보였다. 참으로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 더구나 이토록 어지럽고 더러운 세상에서 작업복 입은 그 여자 장부가 더욱 부럽게 보였다.

지난 78년도엔가 꾸르실료(서울 남성 38차)교육을 마치고 안구기증을 한 후 그 이듬해 ME 교육을 받고 아내를 멸시하던 버릇을 고치고, 200주년 행사 무렵 한마음 한몸 운동이 전개될 때 쓸수 있는 장기는 모두 바친다고는 했으나 그것들은 죽은뒤에 준다는 뜻이니 자랑할게 못된다. 남이 싫어하는 청소부와 장의사가 대견스러워 보여 골목 청소를 수십년 하다가 성당 연령회 봉사자로 15년 정도(그 중 6년은 연령회장으로 봉사) 봉사도 해봤으나 육신이 성해서 하는 일이니 그리 대견스런 일이 아니었다. 요새는 모두가 무료로 교회일에 봉사하는데 나의 경우 월급받는 평협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려니 부끄럽다.

내 나이 62세. 이제 이 세상의 삶이 몇년이 되겠는가. 생명주신 분의 뜻을 알길 없으나 고작 움직일 수 있는 기간은 그리 많지를 않다고 본다.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여기고 최선을 다한다. 남들같이 벌어서 쓸 돈이 없는 대신 몸으로 봉사한다는게, 교회의 월급쟁이가 되었으나 바쁘게 일하는 가운데서도 마지막 봉사의 기회라 생각하니 기쁘게 일할 수 있었다. 그것을 큰 은총으로 여기며 늘 감사드린다. 사람은 이웃과 더불어 남의 도움으로 살아왔는데 이웃 위한 희생과 봉사는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당연한 일로 생각한다.

모든분마다 봉사의 기쁨을 맛보고 있을테지만 세상 사람들 싫어하는 연령회 봉사같은 것은 해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알것이다. 그날 연도경연대회때 입상은 못했지만 내 심금을 울린 팀은 개봉동성당의 노인팀이었다. 그분들 모두는 이미 천사같은 표양을 우리에게 보였기에 나는 그분들의 출연을 기리 기억할 것이다.

낙엽지는 계절. 연도대회와 죽음의 묵상길에서 다시 한번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죽은이들을 위해 기도드린다.

주여!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아멘.

섣달 그믐밤

송 원 희 마리아
소설가, 서울 수유동 본당

봉희는 원장님과 언니들이 다 나간 뒤에 청소를 시작했다. 모두들 다 설을 쇠러 고향에 갔지만, 그렇다고 서글프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원장님은 설날 연휴가 지난 다음에 고향에 가면 연휴 동안의 특근비로 십만원을 더 주겠다고 하셨다. 연탄까지 갈아넣고 시계를 보니 벌써 자정을 반이나 넘고 있었다. 봉희는 연탄재를 버리러 바깥으로 나갔다.

부엌 뒤쪽은 이 건물과 주변 동리의 주차장이고, 쓰레기장은 주차장 입구에 있었다. 차들도 고향에 내려갔는지 여느 때 보다 훨씬 한산했다. 재를 버리고 돌아오는데 눈 앞에 검은 물체가 움직였다.

"뉘 … 뉘시지요?"

"아가씬 이 집에 살고 있소?"

"네 … 여긴 미장원이에요."

남자는 잠바 차림이었다.

"아저씬 왜 여기 서 계세요?

기사 아저씨세요?"

봉희는 뒤쪽 주차창의 차들을 넘겨다 보며 물었다.

"응 … 기사 … 맞아요. 기사요."

"그러면 차 속에 계시지 왜 나와 계세요, 추운데."

"차 속이 너무 답답해서요."

봉희는 부엌으로 돌아가 문을 꼭 잠궜다.

오늘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 고달펐다. 설 쇠러 고향에 가는 손님들 때문이었다.

이튿날 아침, 봉희는 어제 원장님이 써준 〈3일간 휴업〉이라고 쓴 종이를 밖에 붙였다.

그리고는 오랜만에 할 일이 없어 낮잠을 자고, 누워서 TV만 보았다. 또 평소 바빠서 보지 못했던 주간지, 잡지등을 뒤적이며 하루를 보냈다.

자정이 넘어 봉희는 연탄불을 갈아넣고 재를 버리러 처음으로 밖에 나갔다. 주차장은 어제보다도 더 한산했다. 휑한 넓은 공간에 냉냉한 대기는 쨍하게 얼어붙고 있었다. 재를 버리고 부지런히 뛰어오는 봉희 눈 앞에 간밤과 똑같은 검은 물체가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기듯 서있는 것이 보였다.

"어젯밤 그 기사 아저씬가봐요?"

봉희는 주춤거리며 말을 건넸다.

"맞아요. 오늘도 또 이쪽으로 왔소."

남자는 몹시 추운지 잠바 깊숙이 목을 움추리고 있었다.

"아저씨 추우신데 … 이 근처에 기사 식당이 있을 텐데요."

"다 문을 닫았더군요."

하긴 바로 옆의 식료품 가게도 휴업 중이었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내려가 봉희의 따뜻한 방에까지 냉기를 불어 넣었다. 봉희는 자꾸 이불 속으로 깊숙이 파고 들었다. 잠이 오지 않아서인지 밖의 남자의 기침 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무슨 기사가 이 추위에 차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 더 추우면 들어가겠지 …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남자의 기침소리는 더 잦아졌다.

봉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아저씨, 사장님은 아직도 안오셨나요?"

"새벽 5시나 되어야 올거요."

시계를 보니 시침은 이제 겨우 두시를 향하고 있었다. 봉희는 부엌문을 열었다.

"아저씨, 그때까지 계시다간 밖에서 얼어 죽겠네요. 미장원 안도 춥기는 하지만 잠시 들어오세요."

남자는 조금 주저하더니 워낙 추운지 안으로 들어섰다. 불빛 아래서 보니 남자의 옷차림은 몹시 추레했다.

"밖에서 보기보다 큰 미장원이군."

남자는 멋적은지 한마디 했다.

"일류 미용사 언니가 둘이나 있는데요."

"아가씬 미용사가 아닌가?"

"난 시다예요. 이제 3년째에요."

"미용 기술은 몇년이나 배워야 일류가 되오?"

"글쎄요. 난 일류 미용사 바라지 않아요. 파마하는 기술이나 배워가지고 고향에 내려가 싼값으로 시골 아줌마들 파마를 해줄거에요."

봉희는 남자가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여기 좀 앉으세요. 방석을 무릎에 놓구요."

"아가씬 왜 고향에 안내려갔지?"

"언니들이 오면 갈거에요."

"고향이 어딘데?"

"강원도 산골이에요 쇳네라고 …"

"쇳네 …"

"아세요?"

"아, 아니 … 듣던 이름이라서 …"

"고향에 엄마랑 동생들이 있어요. 오빠가 있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돈 벌어 온다고 집을 나간지 오래 되었어요. 십년동안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오빠가 돈을 벌지않아도 좋으니 나쁜 사람이나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늘 빌고 계세요."

남자는 기침을 했다.

"오빠 얼굴이 생각나요?"

"아저씨같은 분을 보면 오빠 생각이나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우리 오빠가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남자는 추운지 몸을 한번 떨더니 무릎 위의 방석을 잡아당겼다.

"아가씬 몇살인가?"

"이제 설 쇠면 열여덟이 되어요."

"열여덟이라 …"

남자는 또 기침을 했다.

"아저씨, 안되겠네요. 난로를 켜드릴께요."

봉희는 구석에 있던 작은 전기난로를 끌고와 스위치를 넣었다. 찌잉하고 전선이 울리면서 두줄의 코일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남자는 두 손을 얼른 날로 가까이 대면서 고개를 떨구었다.

"내게도 아가씨만한 누이동생이 있었지."

"어머, 그래요."

"아가씨처럼 귀엽고 예쁘고 욕심도 없고 천사 같았어. 그 아이 옆에 있으면 마치 이 난로 옆에 있는 것 같았지."

"마음이 따뜻하다는 말이군요."

남자는 빙그레 웃었다.

"아저씨, 조금 있다가 난로 끄고 나가실 땐

뒷문 꼭 닫고 나가주세요."

봉희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아가씨, 이제 그만 되었으니 이 난로 가지고 들어가요."

"괜찮아요, 앞으로 밀어 놓으세요."

"누가 알아요. 내가 간 뒤에 도둑이라도 들면 …"

"뒤가 주차장이라 괜찮아요."

"그래도 가지고 가요."

남자는 스위치를 끄고 굳이 난로를 가지고 가라고 했다.

다음날 밤, 봉희는 연탄재를 들고 나가면서 혹시나 또 그 기사 아저씨가 있나 하고 주변을 살폈다. 그러나 그는 안보였다. 그 다음날도.

어느덧 사흘이 지나 고향에 갔던 언니들이 돌아왔다.

"이젠 봉희가 고향에 갈 차례다." 집을 잘 보았다며 월급 이외에 십만원을 더 주었다. 봉희가 떠난 다음 날 순경 둘이 미장원 문을 열고 들어섰다.

"엊그제 이런 사람 본 적 있나요?"

"모르겠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주차장 뒤, 미장원 뒤에 숨어있었다던데, 뭐 없어진 것 없나요?"

"어머나, 우리 봉희 그런 말 안하던데 …"

"그럼 다행입니다. 상습 절도범이었어요."

"본인이 자수했어요. 엊그제."

丙寅박해 때 네분 宣教師들의 영원한 삶

최 홍 준 파비아노
방송작가, 평협 홍보분과 위원장

1. "무한을 향해 자신을 던지고"

-선교사의 길을 떠나는 아들과 어머니의 고통-

어린 시절 어머니와 이별해 본 경험이 있는 이는 그 별리의 슬픔이 어떤 것인지 쉽게 짐작할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을 멀리 멀리 떠나 보낸 적이 있는 어머니 역시 가슴 속을 파고드는 아픔의 의미를 헤아리기에 충분할 것이다.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못간다! 기어코 가려거든 이 에미를 짓밟고 가란 밖에."

"어머니, 저는 목자입니다. 양떼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야 할 목자입니다."

"양떼는 이곳 프랑스에도 얼마든지 있어. 그 먼 동방에까지 갈 일이 뭐란 말이냐?"

"어머니이, 비켜 주세요. 으흐흐흐흐 ……"

"오, 하느님! 제 아들을 지켜 주소서. 으흐흐흐 ……"

마침내 어머니와 아들은 얼싸안고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떠나려는 아들 신부와 그를 가로막고 엎드려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이 기막힌 사연을 담은 그림이 빠리시내 뤼뒤박에 자리잡은 빠리 외방 전교회에 걸려있어 백 수십년 세월이 흐른 오늘에 이르도록 이곳을 찾는 순례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해준다. 어쩌면 살아서는 돌아오지 못할 아들을 떠나보내는 어머니. 살아생전에 다시는 뵙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한 어머니를 떠나야 하는 젊은 선교사.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면 천당에 가서나 뵙도록 하지요" 하는 마음으로 빠리를 떠나 마르세이유 항구에 이르면 또 한바탕 별리의 아픔을 짓씹어야 한다. 승선하는 아들의 옷자락을 잡아 당기는 어머니의 모습도 생생하게 다가온다.

103위 한국 순교 성인 가운데 아흔 세분이 한국인이고 나머지 열분이 프랑스 선교사들로서, 1839년 기해박해 때 순교한 프랑스인이 세분이고 1866년 병인박해로 목숨을 바친 아홉분의 선교사들 중 일곱분이 성인반열에 올랐다.

병인박해 순교자들 중 네분 선교사가 빠리를 떠나면서 함께 찍은 사진[1]이 남아있어, 13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진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방인(異邦人) 혹은 외방인(外邦人)이라고 일컫는 에뜨랑제 · 그 에뜨랑제의 선교를 위해 17세기에 창설된 빠리 외방전교회(Societe des Missions Etrangeres de Paris) 뜨락은 사방 건물에 둘러싸여 언제나 조용하다.

비교적 넓은 잔디밭은 8월 햇살을 받아 윤

기를 머금고, 그 한가운데 돌로 단을 쌓아 동정 성모상을 모셨다. 성모님 얼굴을 가만 가만 바라다보는 부제 한사람, 입술은 움직이지 않지만 가슴으로 뜨거운 대화를 나눈다.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 성모 어머님, 제가 선교사가 되려고 한 건 아주 어려서였답니다. 세살 적 일이었으니까요."

이 때다.

"시몽 쥐스뜨" 하고 뒤에서 부르는 소리,

"정신없이 성모님께 매달리고 있구나. 오라, 루르드의 성모님께 무엇인가를 간절히 청하고 있구나. 그렇지?"

다가와서 말을 거는 젊은이는 삐에르 앙리 도리. 같은 부제로서 쥐스뜨와는 각별히 친한 사이였다. 키가 훤칠한 쥐스뜨 마리 부제는 빙긋 미소만 지을 뿐 말이 없다.

"베르나뎃다가 수녀원으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다던걸?"

삐에르 부제는 계속해서 "글쎄 루르드의 마싸비에이유 동굴에서 성모님을 뵈었다는 베르나뎃다 있잖아? 성모님 발현 때가 1858년, 열네살이었니 5년이 지난 지금은 열아홉살이겠군."

"삐에르" 그제서야 입을 연 시몽 쥐스뜨 마리 부제.

"루르드 이야긴 나도 알고있어. 마싸비에이유 동굴에 성모상을 세우는 공사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었어. 베르나뎃다에게 발현하신 성모님 모습 그대로를 조각가 파비쉬가 빚고있다는 소식도 들었지."

"하하, 내가 괜히 아는 척을 했구먼."

"아니야, 삐에르. 사실은 나도 원죄없이 잉태된 몸이라고 스스로를 밝혀주신 루르드의 성모님을 머리속에 그리면서 대화를 하고 있던 참이라구."

"대화를?"

"응, 내 어린 시절을 말씀 드리던 참이었지. 그러니까 세살 적이었는데 키가 작은 중국 사람들을 회개시키러 간다구, 그런 말을 하면서 선교사 되기를 꿈꾸었더랬지."

"그 꿈이 이뤄지게 됐으니 축하하고 감사드릴 일이군."

"그야, 삐에르도 마찬가지 아닌가. 소신학교[2]에 들어가서 부터 전교지방에 뽑혀 가기를 희망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삭발례[3](削髮禮)를 치른 다음 해에 이곳 외방 전교회에 입회하게 됐던 거구."

사실 삐에르 도리는 뤼송 교구 소속 생 띨레르 드 딸몽의 뽀르 마을 벳세 백작의 농장에서 일하던 소박한 농부의 여섯째 아들로 태어났다. 부모와 형제들은 공부는 많이 못했어도 신심은 매우 깊어서 삐에르가 소신학교와 뤼송 대신학교에 입학할 때 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스물두살 되던 1861년 12월에 삭발례를 받고 다음 해 6월 빠리 외방전교회에 입회를 청원하자 반대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삐에르, 넌 건강이 문제야. 몸이 부실한데도 어떻게 전교지역으로 나가겠다고 그러나?"

농장주 벳세 백작이 만류했고, 본당 주임신부 역시 같은 생각으로 마음을 고쳐 보라고 했다. 그러나 삐에르는 굽히지 않았다.

"신부님. 저는 신부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건강합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구 제가 이 조그마한 체구로 전교신부가 된다면 하느님 뜻에 따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순교까지 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 ……"

가느다란 비명을 지르면서 본당신부는 그만 눈을 감고 만다.

"그렇게 되면 신부님도 자랑스럽고 행복하지 않으시겠어요?"

이 패기에 찬 신학생의 뜻을 사목자인들 어찌 꺾을 수가 있었겠는가. 그러나 가족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특히 어머니의 반대는 아주 심했다.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 입장에서는 하나같이 귀하고 아까운 게야. 제발 이 에미 곁을 떠나지 말아줘. 아니, 프랑스를 떠나지 말아 달라구."

"어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땅의 극변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잖아요? 소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필이면 너란 말이냐? 어째서 내 아들이 극동에까지 가야 하느냐 말이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죠. 소자는 열다섯 살 이후 지금까지 줄곧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 왔습니다."

"한번만 더 생각해 보렴. 삐에르야."

"하느님께서 제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분 말씀에 순명할 따름입니다."

"이 에미는 어쩌구?"

"어머니 ……"

"삐에르야,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하느님을 섬길 수 있지 않니."

"그럼, 전 신학교두 그만 두고 밭에 가서 일하겠어요."

삐에르 앙리의 이 말로 어머니의 반대는 끝이 났다. 그러나 눈물은 마르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을 지키며 저녁 내내 언짢은 표정을 짓던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을 당해내지 못했던지, 새벽 두시에 쌩 띨레르 역까지 짐을 실어다 주며 전송했다. 이렇게 해서 삐에르 도리가 소품자[4](小品者)로 입회한 것이 지난해 1862년 8월이었다.

"삐에르"

부르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삐에르 앙리 도리 부제는 쥐스뜨 부제를 바라보며 눈으로 대답한다.

"이 모두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지.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동방의 백성들에게 하느님을 알려주고 그분의 사랑을 전해 주기 위해서지."

"시몽 마리 앙뚜안 쥐스뜨 랑페르 드 브르뜨니에르 부제."

"아니, 갑자기 길고 긴 내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 주다니?"

"드 브르드니에르. 귀족 집안에 태어났으면서도 여기 올 때까지 쥐스뜨 부제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며?"

"나 역시 삐에르 부제처럼 순교를 생각했더랬지. 내 아우 끄리스띠앙하고 이야기할 때 교회를 위해 일생을 바치고 싶다고 했지. 작위를 이어받고 별장과 같은 유산을 물려받는 것도 아우의 몫으로 돌려놓았고, 본당 신부님께도 '전 순교자가 되고 싶어요. 꼭 그렇게 될 거에요. 제가 그걸 원하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떠나왔지."

삐에르가 불러준 것처럼 그렇게 긴 이름을 가진 쥐스뜨 랑페르 드 브르뜨니에르 부제는 빠리 동남쪽 오뙤엥 교구의 샬롱 쉬르손느에서 전직 판사 에드몽 드 브르뜨니에르 남작과 안느 몽떼지 부인의 두 아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집안이 디죵 교구에 속해 있었는데, 브르뜨니에르에 있는 문

중 성관(城館)이 디용에서 몇 킬로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드 브르뜨니에르 부제는 조선에 파견된 프랑스 선교사들 가운데 유일한 귀족 출신이고 키가 가장 큰 성직자이기도 했다. 그의 부모는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자선사업가로서도 명성이 높았다. 이 세상 어느 것 보다도 자녀 교육을 중히 여기면서 두 아들을 참된 신앙인으로 키우려고 노력했다.

1859년 빠리에 있는 쌩 쉴삐스 신학교에 들어간 그는 이듬해 삭발례를 받고 다시 그 이듬해인 1861년 9월 외방 전교회 신학교로 전학해 왔다. 삐에르 보다 1년 먼저 입회한 셈이다.

쥐스뜨와 삐에르가 빠리 외방 전교회 신학교 안뜰을 거닐며 성소(聖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같은 무렵, 랑그르 교구의 기용벨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는 아들 신부 마르땡 뤼끄가 어머니와 이별을 하고 있었다.

"결국 네가 이겼다. 가거라."

말리다 지친 어머니가 포기한 듯 뒤로 물러앉자 루까(뤼끄) 위앵 신부는 무릎을 꿇고 사죄한다.

"저희 9남매를 키워주신 어머니께 고통만을 안겨 드려서 불효막심한 저로서 무어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막내로 태어난 저는 우리 집안에 성직자, 수도자가 없었던 적이 없는 것을 자랑삼아 말씀하시던 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스테파니 누나가 수도원에 들어간 것도 크나 큰 자랑거리였죠."

"신부, 수녀가 되더라도 프랑스 땅 안에서 살았더랬지."

"하느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사업이 어찌 프랑스 땅 안에서만 이뤄져야 합니까.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신심이 두터운 신학생이란 소리를 들은 저의 꿈은 전교신부가 돼서 이방인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신부가 된 지금도 그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도대체 선교사 성소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알기나 해? 경우에 따라서는 순교까지 해야 하는 게여. 신부가 그럴만한 용기를 가졌어?"

대답을 채 듣기도 전에 어머니는 격한 어조로 "그럼 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냐? 천주십계의 네째 계명을 잊었느냐구?" 하고 쏘아붙이는 것이었다.

위앵 신부는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나 신부는 "어머니, 하느님이 부모님에 우선한다고 어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게도 자주 가르쳐 주지 않으셨느냐구요! ……"

2. "오너라, 하느님의 이름으로"

-꿈과 기도가 실현되기 바라는 땅, 조선으로 떠나는 선교사들의 사랑과 염원-

프랑스 기용벨 지방에서 포도밭을 경작하는 아버지와 깊은 신앙심으로 남편을 내조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아홉번째 막내로 1836년 10월 20일 태어난 루까 위앵신부. 랑그르 소신학교와 대신학교를 거쳐 스물다섯살이 되던 1861년 6월 29일 성 베드로 바오로 사도 축일에 사제로 서품된 그는 보아제 본당 보좌신부로 발령 받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유망한 사제라는 평판을 들으며 1년 4개월을 지냈을 때 교구장께 편지를 썼다.

"존경하올 주교님, 저는 전교신부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성소의 동기도 바로 거기에 있었고, 사제직에 오른 후에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고심 끝에 주교가 답장을 보내왔다. "친애하는 마르뗑 뤼끄 위앵 신부님, 선교사 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다만, 본당이 비어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제 서품식이 있을 6월 까지는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1862년 11월 4일. 랑그르 교구장 게랭 주교."

위앵 신부는 일곱달을 더 기다려서 1863년 6월 8일 빠리 외방전교회 입회를 청원해 허락을 받았다. 그 후 8월 8일 보아제 본당을 떠나 기용벨의 친정집으로 갔던 것이다. 나흘 동안 아버지에 이어서 누나를 설득하고 같은 달 12일 마침내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내 아들 뤼끄, 네가 이겼다!"

아들 방에서 단 둘이 있을 때 그렇게 말한 어머니는 문 앞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겸손하게 용서를 청하며

"나에게 강복을 주고, 내가 방해한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용서를 빌어 주어요, 신부님."

어머니는 아들 신부 앞에 무릎을 꿇어앉고 신부는 축복을 한다.

"✝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천주여, 우리에게 날마다 당신의 평화를 주시고 강복하소서."

"아멘."

"✝ 언제나 온갖 혼란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으로 굳세게 하소서."

"아멘."

"✝ 희망과 믿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풍부히 내려 주시는 천주는, 우리로 하여금 현세 생활을 통해 모든 일에 성공하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신은 우리 어머니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장엄축복으로 이별을 나눈 루까 위앵 신부는 8월 20일 빠리 외방전교회 신학교에 들어갔다. 며칠이 지났을까. 또 한사람의 부제가 왔다.

"보르도 소신학교와 대신학교 출신 베르나르 루이 볼리외 부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난 네사람, 드 브르뜨니에르와 앙리 도리, 루까 위앵, 루이 볼리외 중 위앵만이 이미 신품을 받은 사제였고 나머지 세 사람은 이듬해 1864년 5월 21일에 가서야 사제로 서품됐다.

"주님, 이 보잘 것 없는 새신부 유스또(쥐스뜨)는 첫미사에서부터 감히 순교의 은총을 주십사고 간청 드립니다. 이는 아버지 당신의 뜻입니다. 우리 사제들이 매일 죽은 이들을 기억하는 기도를 드린 다음, 언젠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순교자들과 함께 있게 해 주십사고 청할 때에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순교의 은혜를 청하는 것이 아니옵니까, 주님!"

6월 15일 외방 전교회 신학교 교장인 거룩한 노사제 알브랑이 "어느 전교지방으로 가고 싶으냐"고 묻자 새신부 드 브르뜨니에르는

"어디든지 똑같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럼, 티베트로 가도 좋소?"

"네, 좋습니다."

"아니, 통킹으로 간다면?"

"마찬가집니다, 교장 신부님."

"그럼, 코친 차이너로 가시오."

"아주 좋습니다."

"허허, 아무래도 상관이 없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신부님."

"자, 이제는 진지하게 말하겠소."

쥐스뜨가 교장 신부 앞에 무릎을 꿇자,

"꼬레, 그렇소, 조선으로 가시오."

하는 말이 장내를 엄숙하게 했다. 쥐스뜨드 브르뜨니에르 신부는 조용히 대답했다.

"신부님께서 저더러 고르라고 하셨어도 저는 다른 데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앙리 도리 신부는 드 브르뜨니에르 신부와 같이 떠난다는 것을 알고 너무도 좋아서 어깨춤이라도 출 듯이 기뻐했다.

"우리, 조선으로 가는 신부들끼리 따로 사진을 찍도록 하지. 최연장자인 루까 신부님도, 최연소자인 루이 신부님도 함께 조선으로 가게 됐어."

이렇게 해서 한장의 사진을 남긴 이들은 7월 11일, 유언장을 작성했다. 전교지역인 조선과 조선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잘 드러난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가장 큰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아래 서명하는 나, 1840년 10월 8일 랑공(지롱드현)에서 태어나 지금 스물세살 아홉달 사흘 됐고, 신부요 외방전교회의 선교사로 조선교구에 임명되어 이 나라로 가기 위해 배를 타기 전날에 있는 베르나르 루이 볼리외는 여기에 나의 마지막 의향을 설명한다.

만일 내가 조선에 입국하기 전에 죽으면, 나는 외방 전교회 신학교나 또는 전교회의 어떤(전교지역) 경리부에 보관돼 있을 수 있는 물품이나 현금으로나 개인의 소유로 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조선교구에 주기를 원한다. 만일 내가 이 교구에서 죽는 행복을 가지게 되면, 그 교구의 봉사에서 내게 남을 수 있는 것 모두와, 빠리나 경리부에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돈을 조선교구로 보내 주기를 원하며, 내가 어디이든 다른 어떤 곳에서 죽는 경우에도 그와 같이 해 주기를 원한다. 나는 이상과 같이 원하며 하느님과 동정녀 마리아와 모든 성인 앞에서 밝히고 서명한다.

빠리 외방전교회 신학교에서 1864년 7월 11일에 작성하다. 그 증거로 조선교구에 임명된 교황 파견 선교사 베르나르 루이 볼리외."

마침내 7월 15일, 조선으로 가는 네분 선교사들을 포함해서 모두 10명이 동양으로 가기 위해 빠리를 출발했다. 드 브르뜨니에르 신부는 오뙤엥을 지나 샬롱을 통과하면서 착잡한 심경으로 부모님을 생각했다.

"무얼 생각해? 유스또."

"허허, 웬일루 쥐스뜨라고 하지 않고 유스또라고 불러?"

"이젠 전교지방에 가면 이름도 우리 프랑스말 보다 라틴어나 이탈리아 말로 불러야 할테니까, 하하."

"그렇지, 그렇다면 삐에르도 뻬떼르, 삐에뜨로라고 불러야겠군."

"그 뿐이 아니지. 꼬레에 가면 그 나라의 이름, 그렇지 마지막 이름이 있다더군. 거 왜 25년 전에 조선에서 순교하신 선배들, 앵베르 주교님은 범(范)씨 성을 가지셨구, 모방 신부님은 나(羅)씨, 그리구 샤스땅 신부님은 정(鄭)신부로 통했다고 그러잖아?"

사실 이들 네분 선교사들도 조선에 입국할 때는 한문 글자를 따서 성을 얻었으니, 드 브르뜨니에르 신부가 백(白)씨 성을 가졌고 삐에르 도리 신부는 김(金)씨, 루까 위앵 신부는 민(閔)씨, 루이 볼리외 신부는 서(徐)씨 성을 선택했다.

"꼬레 만세!"

도리 김신부가 갑자기 조선 예찬론을 펴기 시작했다.

"난 말일세, 나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전교지방을 주신 걸 하느님께 감사 드리고 있다구, 주께서 나를 보내시는 땅, 내 꿈과 기도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땅이지. 복음을 위해 피 흘리기를 희망하는 곳 조선을 또한 내 거룩한 친구 유스또 드 브르뜨니에르와 함께 살아갈 땅이니 얼마나 아름다운 전교지방인가 말일세."

"고맙네, 엔리꼬 도리."

"엔리꼬? 그렇지, 하하, 앙리가 엔리꼬지, 루이는 루도비꼬, 마르뗑은 마르띠노, 그리구 쥐스뜨는 유스또, 하하하!"

마르세이유 항구를 떠난 것은 나흘 후인 19일, 꼬뜨 다쥐르(Cote d'Azur)-감벽색 해안을 왼편으로 하고 지중해 큰 바다로 들어선 기선은 구름처럼 연기를 뿜어 올리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른다. 먼 동양으로 가는 배다.

바람이 불고 바다는 짙푸른데 햇빛에 반짝이는 물결이 확실히 대서양이나 인도양 등 다른 바다와는 다르다. 그냥 푸른 바다가 아니라 짙게 푸른 감벽(紺碧)의 물결이 깐느와 니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산레모에 이르는 연안에 출렁거리면서 멀리 알프스의 새하얀 눈빛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루이 신부."

"그래요, 5년 전 겨울. 유복자로 태어난 내가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후 고아가 된 셈이었지만 친아들처럼 보살펴 주신 숙모님의 손을 뿌리치고 떠나 올 때는 눈물이 쏟아져서 혼이 났지."

볼리외 신부는 아주머니, 아저씨께 보낸 여행일기를 적었는데, 이는 두 부분으로 되있다. 한 부분은 선교사들이 빠리에서 알렉산드리아 까지 간 7월 15일에서 24일 까지의 이야기이고, 또 한 부분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싱가포르 까지의 이야기로 마지막 날짜가 8월 19일로 되어있다. 마르세이유를 떠난 7월 19일 일기에, "저희는 한가지 감정, 한가지 감격, 즉 가장 강렬하고 가장 순수한 기쁨의 감정과,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고귀한 성직에 저희를 선택해 주신 하느님께 대한 감사의 정이 어린 감격을 듬뿍 안고, 프랑스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타고 간 사이드호는 훌륭한 여객선으로 2백명까지 태울 수 있었지만 이날은 기껏해야 백명밖에 타고있지 않아 지내기가 그만큼 쾌적했다. 사이드호는 이제 위풍당당하게 혼잡한 항구를 빠져나가 출항 한시간이 지난 오후 네시쯤에는 바다로 들어설 수 있었다.

"루도바꼬 신부, 부제 때 고생이 많았다며?"

언제나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드 브르뜨니에르 신부가 루이 볼리외 신부에게 다

가 앉으며 말을 걸어온다.

"교구장께서 도무지 놓아주려고 하지 않으셨다니, 그만큼 우수해서였겠지?"

"1859년 11월 7일,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자 나는 대신학교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더랬지. '하느님께서는 나를 붙잡아 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끈을 끊으셨다'고. 어머니가 살아 계신 동안은 아마 용기를 내지 못했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지금은 내 소명을 따라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여겼던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내가 빠리 외방 전교회에 입회해서 선교사가 되는 허락을 받기 까지는 아직 4년을 더 기다려야 했으니까."

보르도 대교구 대주교인 도네 추기경의 태도가 워낙 완강해서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지쳐서라도 포기하고 말았을 선교사에의 꿈을 그는 꿋꿋하게 지키고 가꾸어 나갔던 것이다.

"이봐요, 루이 부제. 우리 교구에 보좌신부 자리 열 일곱군데가 비었어요. 그 어느 때 보다도 자네가 떠날 생각을 해서는 안돼!"

이처럼 번번히 거절하는 장상(長上)으로 해서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던 것인지, 여러 통의 편지에서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그가 청하는 것은 쉽고 편안한 생활이 아니라 지극히 어려운 생활이었고, 이는 또한 끝내 순교까지 하게 되리라는 것을 아는 선교사 생활이었는데도, 하느님은 이를 쉽게 들어주지 않으셨다.

그런데 그의 주위에서는 그의 마음 고생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고,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룩한 싸움도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평온하고 행복한 것 같이 보였기 때문인데, 주위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행복하게 하는 비결을 루이가 가지고 있었다고, 그의 소신학교 은사이며 어렸을 때 고해신부였던 라프리 신부는 증언하고 있다.

루이 볼리외는 다음과 같은 바울로 사도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복음적 친절을 실천에 옮겼던 것이다.

"나도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 그들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1고린 10,33).

그런 삶을 통해서 루이는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희망을 가졌다. 그의 대주교는 온갖 수단을 써서 그의 마음을 돌려 보려 했고, 교구에서 일을 하면 장차 중요한 일을 맡기겠다는 제안까지 했다. 그러나 루이 볼리외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하느님께서 자기를 전교지방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마음 속 깊이 느끼고 있었다.

"오너라, 하느님의 이름으로 우리 있는데로 오너라" 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마침내 1863년 8월 4일이 왔지. 추기경님께서 외방 선교회에 들어가도 좋다는 허락을 내리셨고, 그 편지가 이날 도착한 거지. 정말 4년동안이나 거절을 당해보지 않고서는 이같은 은총을 평가할 수 없을거야. 일생을 두고 날짜도 시간도 잊지 못할 거야."

루이는 그 때 이렇게 외치기도 했다. "그물이 찢어졌다!"(시편 124,8)

"내 손에는 여행 허가서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도와 주십시오."

루이는 그 당시 목에 생긴 종양 수술을 받고 폐렴을 앓아서 무덤의 문턱에까지 이른 상

태에서 아저씨 댁에 있었는데 아저씨 내외는 그를 아들처럼 사랑했고 열성껏 간호해 주었다. 그래서 그에게 더 한층 친밀한 애착을 느끼게 됐던 것이다.

그날 8월 4일자로 여기 저기 편지를 보냈는데 루이가 얼마만큼 선교사 되기를 열망했으며 얼마만큼 하느님 사랑 안에 살고자 노력했는지, 특히 그분의 말씀을 살려고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잘 나타나 있다.

"신부님이 자주 말씀하신 것처럼 도무지 기대하고 있지 않은 순간에 좋은 소식이 오는 군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신 우리 주님의 예언(루가 11,9)이 채워진 것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 필사적으로 마지막 한 번 더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것은 다만 시효를 넘기지 않기 위한 것 뿐이었는데 그 두드림이 효력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잘못 택한 순간이 바로 하느님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영원히 찬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감사의 정이 제 마음의 기쁨만큼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도 저에 대해서 너그러우신 자비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3.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

—목숨 바쳐 하느님 사랑을 증거한 네분 선교사들의 영원한 삶—

그날로부터 꼭 1년이 지난 1864년 8월 4일 목요일 일기에 루이 볼리외 신부는 이렇게 적고있다.

"갑판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저희는 아직 완전히 인도양에 접어들지는 못했고, 아프리카의 마지막 해안을 끼고 항해합니다. 이 곶(串)을 지날 때에는 저희가 일찌기 겪지 못한 요동이 심할 거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인도양에 접어들기가 무섭게 그들은 세찬 바람을 만나서 파도가 빨리 일었고, 루이 신부의 표현에 따르면 그들이 타고 간 사이드포는 마치 화륜선 바퀴 근처에 던져진 호두껍질 모양으로 들까불리기 시작했다. 드 브르뜨니에르 신부와 도리 신부는 선실로 들어간 뒤로는 다음날까지 다시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날 두번 식사 때는 열명의 선교사들 가운데 네사람만 공동식탁에 나왔을 정도였다. 토요일은 루이 신부가 성무일도(聖務日禱)를 다 읽지 못한 유일한 날로 기록하고 있을만큼 어려운 항해를 계속했다.

홍해와 알렉산드리아, 카이로를 거쳐 인도양을 항해한 이들이 싱가포르와 사이공을 지나 홍콩의 빠리 외방전교회 경리부에 도착한 것이 8월 28일이었다. 조선으로 가게 된 네분 선교사들은 홍콩에서 한달동안 머문 다음 상해로 가서 만주로 가는 배를 타야 했다. 여기서도 거센 풍랑이 그들을 괴롭혔고 10월 28일에야 요동반도의 작은 항구 잉째에 상륙할 수 있었다. 벌써 몹시 추웠다. 이곳에는 조선교구의 선교를 지원하기 위해 북경교구로부터 분리, 독립한 만주교구가 있었고 빠리 외방전교회 회원인 쟝 프랑솨 베롤 주교가 교구장이었다.

여섯달 동안 기다리면서 조선으로 가는 길을 찾은 선교사들은 이듬해 1865년 5월 초, 고깃배를 타고 서해 백령도에 이르러 조선 교구장 베르뇌 장(張敬一)주교가 보낸 두번째 배를 탔다. 5월 20일 토요일 자정이 조금 지

나서였다. 배는 형편이 없었다. 돛이며 밧줄이며 갑판까지도 짚으로 만든 것으로 바닷바람에 견뎌낼 것 같지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배가 곤두박질을 쳤다.

"바다의 별이신 동정 성모님께 청하옵니다."

루이 볼리외 신부는 특히 원죄 없이 잉태되신 루르드의 성모께 안전을 호소했다.

"아무 힘도 없는 저희 선교사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한사람이라도 더 외교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쓰러지게 해 주십시오."

이 때였다.

"아 저 색깔!"

"음?"

"저기, 흰 빛에 파란색!"

"흰 빛에 파란색이라, 옳거니! 바로 동정 성모님의 색이라구."

하늘에 그런 빛이 나타나면서 동정 성모께서는 그들의 청을 들어주신 것이다.

루까 위앵 신부는 고향 본당의 랑베르 신부께 감사의 편지를 썼다.

"열 세사람의 소년을 모아 라틴말 기초를 가르쳐 주신 신부님, 그 열 세아이 중 열명이 신부가 된 사실에 감사 드리며 또 이렇게 제가 선교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신부님이야 말로 찬미와 감사를 받아 마땅하십니다."

사연은 끝이 없었다.

예정했던 제물포 쪽 보다 3백리 더 남쪽에 있는 충청도 내포지방에 상륙한 것이 5월 27일 저녁 9시 무렵. 백령도 근해에서 꼭 1주일이 걸린 셈이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위앵 민신부와 키가 큰 드 브르뜨니에르 백신부가 상제옷을 입고 도리 김신부와 볼리외 서신부가 보통 조선옷을 입고 내포평야에 들어서자 교우들은 그만 겁에 질려버렸다. 짐이 엄청 많은데다 금지된 사람들이 한꺼번에 넷씩이나 오는 것이 난감했던 모양이다.

"어쩐다? 베르뇌 주교님이 계시는 서울까지 가야 할텐데 ……"

걱정 속에 하룻밤을 지내고 주일 오정 때가 됐을까, 다블뤼 안(安敦伊)주교가 선교사들 앞에 나타났다. 꿈만 같았다. 안주교는 거기서 20리쯤 떨어진 곳에 머물면서 교우들을 돌보는 한편 한한불(漢韓佛)자전을 편찬하는 일에다 묵상과 성서 역사책, 그리고 최양업 신부가 시작해 놓고 급히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중단상태에 놓인 〈주일 기도책〉〔功課〕을 번역하는 등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 새로 선교사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찾아 온 것이었다.

"주교님, 제물포가 아닌 이곳으로 왔는데도 주교님을 뵙게 되다니, 정말 그분의 오묘한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오. 내가 사는 마을에 불이 났고, 여러 신부님들이 짐꾼을 구하려고 우리 마을에 사람을 보낸 것이 맞아 떨어지게 됐으니, 이야말로 그분이 보호해 주신 거지요. 데오 그라시아스 ! 천주께 감사 !"

만남으로 해서 느끼는 첫 흥분이 가라앉자 주교는

"내일까지 머물러 있기에도 여기는 너무나 불안한 곳이오 백신부님은 내일 꼭두새벽에 이 교우를 따라서 서울로 가세요. 장주교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백신부는 서울로 떠나고 나머지 세 선교사는 안주교가 거처하는 거더리로 갔다.

이 교우촌은 지금의 충남 예산군 고덕면 상궁리 지역으로 10평 남짓한 공소 건물이 남아 있다.

모든 일을 백신부를 통해서 알게 된 교구장 베르뇌 주교는 편지를 보내 도리 신부와 루이 신부는 서울로 올라오고 위앵신부는 다블뤼 주교의 처분에 맡긴다고 했다.

다블뤼 주교와 1주일을 지내고, 베르뇌 주교댁에서 열이틀을 지낸 다음, 두 선교사는 다른 외딴 곳으로 옮겨 가야 했다.

"말을 배우면서 숨어 있어요" 하는 것이 그의 '젖먹이'들에 대한 거룩한 주교의 당부였다.

그래서 도리 김신부는 경기도 용인 땅 손곡리에서, 볼리외 서신부는 거기서 몇 킬로 떨어진 성남시 운중동 묘루니(卯論里)에서 말을 배우며 사목활동을 시작했다. 묘루니는 현재 한국 정신문화원이 있고 부근에 안양 공동묘지가 있다.

루까 위앵 신부는 6월 18일 성체축일 까지 다블뤼 안주교와 함께 있다가 그 후 10리 떨어진 황무실(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교우촌에 거처를 정했다. 어느 회장을 따라 가면서 몸 속에 성체를 모시고 조용 조용 성체 찬미가를 부르는 성체거동…. 이 때의 감동을 위앵신부는 종교의 자유가 충만한 고국 프랑스에서의 그 화려한 예절에 참석한 것 보다도 더 기뻤다고 적고있다.

기쁜 마음으로 이곳 생활을 시작했다. 소금기도 없이, 기름도 치지 않은 채 물로만 익힌 쌀밥을 하루 세끼 먹고, 침대도 아닌 땅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잠을 자며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생활이 크나 큰 고역이었지만 그는 희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잘 해냈다.

한편 서울로 간 백신부는 베르뇌 주교의 주선으로 정의배(丁義培) 마르꼬 회장 댁에 머물고 있었다. 72세의 마르꼬 회장은 재혼한 아내와 가난하게 살며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고, 처 조카인 피영록 바오로를 아들 삼아 키웠는데, 바오로가 백신부에게 우리말을 가르쳤다.

훌륭한 목자 베르뇌 주교의 지도를 받으면서 실제적인 사도직을 수행한 드 브르뜨니에르 백신부는 80여명으로 부터 고백을 듣고 어른 40여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며 주교의 위임으로 견진성사와 종부성사도 몇차례 주었을 즈음 병인년(丙寅年 1866) 음력 정초를 맞이했다. 고종이 즉위하고 대원군이 집권한 지 3년째가 되던 그 해, 조선교회는 전국적인 규모로는 네번째인 큰 박해의 회오리 바람에 휩싸여 갔다.

정월 초 아흐레, 양력으로 2월 23일 드 브르뜨니에르 신부가 성사를 집전하고 있는데,

"신부님, 신부님! 큰일 났습니다." 말 스승 피바오로의 다급한 목소리는 장주교가 태평동 홍봉주의 집에서 잡혀 갔다고 전해 주었다.

서둘러 이 사실을 다블뤼 주교와 다른 신부들에게 알린 백신부는 다음 날 미사 때

"이 미사가 제 생애의 마지막 미사 성제(聖祭)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정성껏 봉헌했다.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다. 25일에 집 주인 정 마르꼬 회장이 잡혀 가고 26일에는 드 브르드니에르 신부가 포도청으로 끌려 갔다.

묘론리에서 서울 주교의 소식을 들은 볼리외 서신부는 교우들의 간청으로 이웃 부락 산

답리 이요셉 집에 몸을 피해 있다가 27일, 먼저 집 주인 장제철의 밀고로 포졸들에게 붙잡혔다.

손곡리에서 미처 본격적인 선교사 생활을 하기도 전이었던 도리 김신부도 주교 소식을 듣고, 그동안 자신을 돌봐주던 교우 이준옥을 피신시킨 직후에 그만 체포되고 말았다. 같은 27일의 일이었고 도리와 볼리외 두 신부는 서울로 압송됐다. 그래서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백신부를 볼 수 있었고, 함께 고문을 당했다.

젊은 세 선교사는 베르뇌 주교와 운명을 같이 해서 3월 6일 사형선고를 받고 이튿날 7일 새남터 형장으로 나아갔다. 27년 전 기해박해 때 제2대 조선교구장 앵베르 주교와 모방 신부, 샤스땅 신부가 순교했고 그보다 앞서 1801년 중국인 선교사 주문모 신부, 그리고 1846년 병오박해 때는 조선인 첫사제 김대건 신부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칼을 받아 순교한 새남터 ……. 이제 치명하게 된 도리 김신부는 앵베르 주교 등이 순교한 바로 다음 다음날인 1839년 9월 23일 세상에 태어난 이로서, 한 세대를 이어가도록 외방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피를 뿌린 것이다.

이분들은 대체 어째서 죽어갔던 것인가. 자기 나라 자기 땅에 있었더라면 이토록 짧은 생애에 이토록 참혹한 죽음을 당했을까. 헌데 이들은 여기서 그렇게 죽어갔다. 인간의 육정(肉情)마저 다 끊고 이렇게 죽어갔던 것이다.

형장으로 끌려 갈 때 백신부 같은 이는 목이 탈대로 타서 물을 청했으나 외면을 당했고, 이를 목격한 교우가 물을 떠오자 병졸은 분개해서 쪽박까지 깨어버리는 것이 아니던가. 마지막 가는 길에는 담배도 주고 하고싶은 말도 허용하는 법이거늘 이 땅의 말단 병사는 어찌해서 그런 몰인정을 보였을까.

"자, 저놈들을 죽이자! 쳐 죽이자!" 하고 외치면서 휘광이 하나가 베르뇌 장주교를 내리치니, 두번 칼을 맞고서야 머리가 떨어졌다. 주교는 순간 백신부에게 말을 건네면서 미소를 지었고 그 후에도 미소 지은 채로 있었다.

주교가 참수 당하는 것을 본 다음 칼에 목을 내민 드 브르뜨니에르 백신부는 네번인가 다섯번을 맞고 머리가 떨어졌다. 다음은 볼리외 서신부, 세번째 칼질에 머리가 떨어졌다.

하느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했으니, 25년 6개월의 생애를 온통 그분께 바친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리 김신부가 두번째 칼질에 머리를 떨구었다. 사순절 제3주간 수요일이었다.

이로써 조선교구 제4대 감목 베르뇌 장주교에 이어서 승계권 있는 보좌주교이던 다블뤼 안주교가 그 뒤를 이으니, 재임 23일이라는 최단명 교구장이 되었다.

3월 30일 성 금요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그 기념일에 순교하기를 열렬히 희망했던 안주교는 마침내 그 뜻을 이루었다. 처형장은 충청도 보령땅 수영 갈매못 해변 모랫벌이었고, 주교에 이어서 삐에르 오메뜨르 신부가 치명했다. 함께 조선에 온 '네분 선교사' 중 마지막으로 위앵 민신부가 망나니 앞에 목을 내밀 참이었다.

"여보게들, 민신부님이 눈물을 흘리시잖나"하고 교우들이 수근댄다. "그래, 주교님의 목이 반쯤 잘린 채로 비참한 단말마의 고통속에 몸부림치시는 걸 신부님이 보셨으니 왜 눈

물이 솟구치지 않으실까."

아, 스승 예수께서도 수난 본날 십자가 위에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마르 15,34)하고 부르짖지 않으셨던가.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 버림받은 예수의 모습을 한 우리의 선교사 위앵 신부는 마지막 고난의 언덕을 용감하게 기어올라 머리를 내미니, 단칼에 떨어지는 것이었다.

3년 후 멀리 프랑스 땅 기용벨. 위앵 신부의 고향집에서는 노모가 부르는 〈떼데움－성 암브로시오의 사은 찬미〉 노래가 아름답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한 때는 죽음의 땅으로 가지 못하게 극렬히 말렸던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막내 아들의 순교 소식을 비로소 전해 듣고서는 그의 유품이 들어있는 장롱문을 열고 두 팔을 십자(✝)모양으로 포갠 채 무릎을 꿇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찬미하나이다. 우리 천주여, 주님이신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 영광에 빛나는 사도들의 대열, 그 보람 뛰어나신 선지자의 대열, …… 눈부시게 무리진 순교자들이 아버지를 높이 기려 받드나이다 ……"

註 : 1. 이 사진은 네분 선교사가 동양으로 떠나오기 직전에 빠리에서 찍은 것으로, ① Bernard Louis Baulieu(聖루도비꼬 徐신부), ② Pierre-Henri Dorie(聖도리 金신부), ③ Martin-Luc Huin(聖위앵 閔신부), ④ Simon-Marie-Antoine-Just Ranfer de Bretenieres(聖 드 브르뜨니에르 白신부)

2. 사제를 양성하는 신학교는 소신학교와 대신학교로 구별했는데(지금은 대신학교만) 소신학교에서는 주로 라틴어를 가르치고 대신학교에서는 철학과 신학을 가르친다. 철학은 2년, 신학은 4년 과정.

3. 삭발례는 신부 지원자의 머리를 깎는 예식으로 신품(神品)에 이르는 최초의 단계.

4. 신품의 7품(品)중 4품 이하 즉 수문품(守門品), 강경품(講經品), 구마품(驅魔品), 시종품(侍從品)을 소품(小品)이라 하고 대품(大品)은 제5품이 차부제품(次副祭品), 제6품이 부제품(副祭品), 제7품이 사제직(司祭職)에 오르는 것〔神品〕이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7품중 차부제품 이하 모든 품급을 폐지하고 부제품 아래 시종직과 독서직을 두고 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직책	성명	전화번호	주소
평신도위원회 위원장 주교	김 옥 균 (바 오 로)	771-7600	(100-022) 중구 명동2가 1(서울대교구청)
지 도 신 부	김 인 성 (요 한 비 안 네)	771-7600	(100-022) 중구 명동2가 1(가톨릭회관 5층)
고 문	류 홍 렬 (라 우 렌 시 오)	자) 395-1505	(136-060) 성북구 돈암동 538-53
고 문	이 창 복 (놀 베 르 또)	자) 782-0028	(150-010)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하Apt A동 207호
고 문	엄 익 채 (요 한)	자)0343-29-7615	(430-060)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샘마을 우방A 504동 1401호
고 문	한 용 희 (암 브 로 시 오)	자) 387-0235 사) 713-9392	(120-100) 서대문구 홍은동 8-648
고 문	박 정 훈 (요 한)	자) 762-1350	(110-530) 종로구 혜화동 5-91
회 장	이 관 진 (베 드 로)	자) 784-7744 사) 782-5801	(150-010) 영등포구 여의도동 47 한성Apt B동 609호
부 회 장	한 홍 순 (토 마 스)	자) 542-5292 사) 961-4106	(135-100) 강남구 청담동 101-4
부 회 장	손 인 호 (프 란 치 스 코)	자) 053-622-3223 사) 053-425-3005	(705-036) 대구시 남구 대명동 989-6
부 회 장	김 영 진 (토 마 스)	자) 062-363-4968	(502-234) 광주시 서구 월산4동 934-10
부 회 장	강 형 일 (루 도 비 꼬)	자) 542-9962 사) 275-8225	(135-010) 강남구 논현동 33-16
부 회 장	정 정 순 (요 안 나)	자) 0342-706-4903 사) 778-7543	(461-060)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01 삼성A 1013동 2001호
감 사	김 건 일 (요 한)	자) 032-502-0028 사) 032-866-4500	(402-207) 인천시 남구 주안7동 남광로얄A 10동 403호
감 사	박 선 홍 (마 지 아)	자) 064-46-0100 사) 064-42-1712	(690-170) 제주시 연동 311-4번지
사 무 총 장	류 덕 희 (모 세)	자) 421-9398 사) 576-6001	(138-170) 송파구 송파동 161 미성Apt 5동 505호
기 획 분 과 위 원 장	정 구 영 (요 한)	자) 407-0693 사) 790-2903	(138-130) 송파구 오금동 대림Appt 1동 1004호
교 육 분 과 위 원 장	조 천 제 (베 다)	자) 357-1094 사) 364-7272	(122-071) 은평구 역촌1동 32-42
국제협력분과 위 원 장	손 병 두 (요 한 보 스 꼬)	자) 553-9687 사) 785-6018	(135-280) 강남구 대치동 선경Apt 8동 505호
홍 보 분 과 위 원 장	최 홍 준 (파 비 아 노)	자) 652-5732 사) 5600-131	(158-056) 양천구 목6동 191 한신Apt 106동 1403호
문 화 분 과 위 원 장	이 윤 자 (루 치 아)	자) 252-5925 사) 778-7671	(133-093) 성동구 금호3가 1331 두산Apt 116-503
청 소 년 분 과 위 원 장	강 수 길 (그 레 고 리 오)	자) 424-2673 사) 565-3311	(138-172) 송파구 송파1동 118 가락아트빌라 102호
사회복지분과 위 원 장	허 기 (금 구)	자) 0343-84-7766	(440-060) 안양시 관양동 현대Apt 6동 1101호
사회정의분과 위 원 장	김 진 석 (실 베 스 드)	자) 591-2582 사) 512-4567	(137-049) 서초구 반포본동 반포Apt 82동 405호

교구 평협 회장

직책	성명	전화번호	주소
서 울 대 교 구	이 관 진 (베 드 로)	자) 784-7744 사) 782-5801	(150-010) 영등포구 여의도동 47 한성Apt B동 609호

직책	성명	전화번호	주 소
광주대교구	김 영 진 (토 마 스)	자) 062-363-4968 사) 062-450-2170	(502-234) 광주시 서구 월산4동 934-10
대구대교구	손 인 호 (프란치스코)	자) 053-622-3223 사) 053-425-3005	(700-036) 대구시 남구 대명동 989-6번지
대전교구	오 만 진 (아 가 비 오)	자) 042-484-2625 사) 042-821-6728	(302-222) 대전시 서구 삼천동 둔산지구 태영목련A 304-902
마산교구	손 춘 구 (베 드 로)	자) 0551-46-6633 사) 0551-946-7000	(631-422) 마산시 합포구 중앙동2가 현대A 가동 1101호
부산교구	한 재 금 (베 드 로)	자) 051-804-4044 사) 051-514-2371	(614-070) 부산시 진구 연지동 172 대영일동A 1008호
수원교구	박 인 환 (베 드 로)	자)0342-42-6769 사) 0347-62-6041	(462-241)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691-1
안동교구	권 무 영 (비 오)	자) 0571-52-0903 사) 0571-859-1951	(760-300) 안동시 송현동 영남맨손 A동 202호
원주교구	이 계 열 (아 오 스 딩)	자) 0371-42-6500 사) 0371-42-7315	(220-122) 원주시 태장2동 우성1차 Apt 102동 1102호
인천교구	김 건 일 (요 한)	자) 032-866-4500 사) 032-502-0028	(402-207) 인천시 남구 주안7동 남광로얄A 10동 403호
전주교구	황 의 옥 (파 로)	자) 0652-77-3366 사) 0652-85-2935	(560-081) 전주시 태평동1가 8-121 가나약국
제주교구	박 선 홍 (마 지 아)	자) 064-46-0100 사) 064-42-1712	(690-170) 제주시 연동 311-4번지
청주교구	박 종 구 (베 드 로)	자) 0431-223-0892 사) 0431-53-8164	(360-600) 청주시 내덕1동 296-18 1/3
춘천교구	방 재 철 (대건안드레아)	자) 0361-262-2172 사) 0361-241-3193	(200-170) 춘천시 퇴계동 한주Apt 101동 203호
군종교구	편 장 원 (도 미 니 꼬)	자) 295-4152 사) 748-2130	(140-023) 용산구 용산동3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제1차장 육군대장

전국평협 단체장(상임위원 단체)

직책	성명	전화번호	주 소
국제마리아의 사업회(남)	미 켈 레	자) 332-1010	(121-210) 마포구 서교동 461-4
국제마리아의 사업회(여)	반 나 라 이	자) 232-2460	(100-452) 중구 신당2동 414-3
간호협회	이 향 련 (마 리 아)	자) 814-7941 사) 961-0307	(130-050) 동대문구 회기동1번지 경희의대 간호학과
결핵사업연합회 회장	김 석 우 (베 드 로)	자) 0556-72-6333 사) 0556-72-6607	(638-990) 경남 고성군 마암면 신리 642
나사업연합회	이 기 남 (마르첼리노 마리아)	자) 0596-73-2053 사) 755-6311	(666-800) 경남 산청군 산청읍 내리 성심인애병원
노동청년회	이 재 경 (대건안드레아)	자) 815-2483	(156-050) 동작구 노량진동 148-53
군종후원회	이 관 진 (베 드 로)	자) 784-7744 사) 782-5801	(150-010) 영등포구 여의도동 47 한성Apt B동 609호
맹인선교회	이 미 효 (요 한)	자) 451-0124 사) 451-0333	(135-618) 강남 우체국 사서함 1800호
미술가협회	최 종 태 (요 셉)	자) 324-5286 사) 880-7493	(121-240) 마포구 연남동 566-41
병원협회	김 대 군 신 부 (바 드 리 시 오)	자) 590-1001	(137-040) 서초구 반포동 505
※성령쇄신 봉사자협의회	김 택 구 신 부 (루 도 비 꼬)	자) 606-1784 사) 777-1538	(157-019) 강서구 화곡본동 105-244
※실업인회	장 덕 진 (요 한)	자) 815-3617 사) 557-8222	(156-031) 동작구 상도1동 501-3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아동복지협의회	옥 잉 애	자) 0371-45-1489	(220-031) 강원도 원주시 학성1동 1023 가톨릭 병원 상담실
언 론 인 회	김 희 진 (안 토 니 오)	자) 562-6292 사) 3604-124	(135-280) 강남구 대치동 동원Apt 5동 305호
여 성 연 합 회	정 정 순 (요 안 나)	자) 0342-706-4903 사) 778-7543	(461-060)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01 삼성Apt 1013-2001
의 사 회	박 용 휘 (미 카 엘)	자) 337-0839 사) 590-1551	(121-200) 마포구 동교동 210-24
중등학교장회	이 석 은 수 사 (도 미 니 꼬)	자) 522-9863 사) 762-7204	(403-020) 인천시 동구 화수동 21
⁎ 꾸 르 실 료	유 양 수 (요 셉)	자) 594-0573 사) 553-0313	(137-042) 서초구 반포2동 경남Apt 11동 201호
⁎레지오마리애 (서울쎄나뚜스)	강 형 일 (루 도 비 꼬)	자) 542-9962 사) 275-8225	(135-010) 강남구 논현동 33-16
레지오마리애 (광주쎄나뚜스)	김 생 기 (보 스 꼬)	자) 062-261-2666 사) 062-227-7128	(501-090) 광주직할시 동구 산수동 두암타운 대주A 112동 705호
⁎M · E 전 국 대 표	손병두(요한보스꼬) 박 경 자(율 리 안 나)	자) 553-9687 사) 785-6018	(135-280) 강남구 대치동 선경Apt 8-505
빈 첸 시 오 아 바 오 로 회	임 부 빈 (바 오 로)	자) 0346-64-6157 사) 778-4476	(473-900) 경기도 남양구군 와부읍 덕소리 428-4
M · B · W 추 진 회	송 주 석 신 부 (안 셀 모)	자) 032-546-0324	(403-052) 인천시 북구 계산2동 923-11
농 민 회	장 경 암 (레 오)	자) 0652-73-4106 사) 042-673-4040	(565-860) 전북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직책	성명	전화번호	주 소
총 재	김 수 환 (스 테 파 노)	자) 771－7600	(100－022) 중구 명동2가 1번지(서울대교구청)
부 총 재	김 옥 균 (바 오 로)	자) 771－7600	(100－022) 중구 명동2가 1번지(서울대교구청)
〃	강 우 일 (바 오 로)	자) 771－7600	(100－022) 중구 명동2가 1번지(서울대교구청)
〃	최 창 무 (안 드 레 아)	자) 771－7600	(100－022) 중구 명동2가 1번지(서울대교구청)
지 도 신 부	김 인 성 (요 한 비 안 네)	자) 771－7600	(100－022) 중구 명동2가 1번지(서울대교구청)
고 문	한 용 희 (암 브 로 시 오)	자) 395－0235 사) 713－9240	(120－100) 서대문구 홍은동 8－648
〃	박 정 훈 (요 한)	자) 762－1350	(110－530) 종로구 혜화동 5－91
회 장	이 관 진 (베 드 로)	자) 784－7744 사) 782－5801	(150－010) 영등포구 여의도동 47 한성Apt B동 609호
부 회 장	한 홍 순 (토 마 스)	자) 542－5292 사) 961－4106	(135－100) 강남구 청담동 101－4
부 회 장	유 용 근 (분도요셉라브르)	자) 793－0433 사) 755－4801	(140－200) 용산구 이태원동 260－147
〃	오 용 길 (시 몬)	자) 785－0070 사) 757－7851	(150－010)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익Apt A동 806호
〃	(류 덕 희) 모 세	자) 421－9398 사) 576－6001	(138－170) 송파구 송파동 161 미성Apt 5동 505호
〃	정 정 순 (요 안 나)	자) 0342-706－4903 사) 778－7543	(461－060)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01 삼성Apt 1013동 2001호
〃	강 형 일 (루 도 비 꼬)	자) 542－9962 사) 275－8225	(135－010) 강남구 논현동 33－16
감 사	남 중 화 (요 셉)	자) 233－8571 사) 774－7812	(100－453) 중구 신당3동 366－70
〃	이 택 용 (데 오 도 로)	자) 0344-901－1864 사) 676－7166	(411－380) 고양시 장항동 호수마을 유원Apt 303－1402
사 무 총 장	박 찬 도 (이 보)	자) 868－5677 사) 521－3147	(151－011) 관악구 신림1동 1594－5
기 획 분 과 위 원 장	정 구 영 (요 한)	자) 407－0693 사) 790－2903	(138－130) 송파구 오금동 대림Apt 1동 1004호
전 례 분 과 위 원 장	김 득 수 (프 란 치 스 코)	자) 212－4534	(130－023) 동대문구 전농동 7번지 우성Apt 11동 803호
선 교 분 과 위 원 장	안 원 섭 (로 베 르 또)	자) 539－3966 사) 464－1550	(135－271) 강남구 도곡1동 963 역삼럭키Apt 110동 1502호
교 육 분 과 위 원 장	조 천 제 (베 다)	자) 357－1094 사) 364－7272	(122－071) 은평구 역촌1동 32－42
지 역 분 과 위 원 장	육 종 권 (요 아 킴)	자) 736－5876 사) 633－0309	(110－062) 종로구 신문로2가 1－128 13/2
국제협력분과 위 원 장	손 병 두 (요 한 보 스 꼬)	자) 553－9687 사) 785－6018	(135－280) 강남구 대치동 선경Apt 8동 505호
홍 보 분 과 위 원 장	최 홍 준 (파 비 아 노)	자) 652－5732 사) 5600－131	(158－056) 양천구 목6동 191 한신Apt 106동 1403호
문 화 분 과 위 원 장	이 윤 자 (루 치 아)	자) 252－5915 사) 778－7671	(133－093) 성동구 금호동3가 1331 두산Apt 116－503
노 인 분 과 위 원 장	이 광 호 (펠 릭 스)	자) 543－0341 사) 543－4600	(135－100) 강남구 청담동 40－22

직책	성명	전화번호	주 소
청소년분과 위원장	강 수 길 (그레고리오)	자) 424-2673 사) 565-3311	(138-172) 송파구 송파1동 118 가락아트빌라 102호
사회복지분과 위원장	허 기 (금 구)	자) 0343-84-7766	(440-060) 안양시 관양동 현대Apt 6동 1101호
사회정의분과 위원장	김 진 석 (실베스드)	자) 591-2582 사) 512-4567	(137-040) 서포구 반포동 구반포Apt 82동 405호
여성분과 위원장	김 정 희 (카타리나)	자) 400-2732	(138-130) 송파구 오금동 현대Apt 31동 103호

상임위원 명단(지구회장)

지구	성명	전화번호	주 소
1 지 구	류 덕 희 (모 세)	자) 421-9398 사) 576-6001	(138-170) 송파구 송파동 161 미성Apt 5동 505호
2 지 구	송 동 환 (요 셉)	자) 545-4414 .	(135-110)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pt 112동 1205호
3 지 구	유 병 찬 (요 셉)	자) 359-0618 사) 547-0284	(122-043) 은평구 불광3동 479-86호
4 지 구	여 규 태 (요 셉)	자) 917-1606 사) 744-5315	(136-141) 성북구 장위1동 233-121
5 지 구	김 득 수 (프란치스코)	자) 212-4534	(130-023) 동대문구 전농동 7번지 우성Apt 11동 803호
6 지 구	김 영 기 (다 두)	자) 902-4404 사) 991-3555	(132-031) 도봉구 수유3동 176-69
7 지 구			
8 지 구	이 홍 균 (요 셉)	자) 447-3299 사) 464-8716	(133-192) 성동구 자양2동 690-51
9 지 구			
10 지 구	황 의 홍 (베드로)	자) 404-5315	(138-050)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Apt 238동 507호
11 지 구			
12 지 구	지 태 욱 (요 셉)	자) 582-2345 사) 585-5971	(137-061) 서초구 방배1동 930-17
13 지 구	박 준 형 (안또니오)	자) 856-8906	(151-014) 관악구 신림4동 512-5
14 지 구	양 정 조 (프란치스코)	자) 843-4543 사) 777-1598	(156-010) 동작구 신대방동 우성Apt 17동 103호
15 지 구	강 윤 영 (마르꼬)	자) 665-1126	(157-230) 강서구 개화동 452-101 32/7

상임위원 명단(단체장)

단체	성명	전화번호	주 소
꾸르실료	유 양 수 (요 셉)	자) 594-0573 사) 557-9192	(137-042) 서포구 반포2동 경남Apt 11동 201호
노인대학연합회	김 연 태 (요 셉)	자) 302-1677 사) 566-3221	(122-013) 은평구 응암3동 397-253
레지오마리애 (서울쎄나뚜스)	강 형 일 (루도비꼬)	자) 542-9962 사) 275-8225	(135-100) 강남구 논현동 33-16
M·E 서울대표	윤 갑 구 (바오로)	자) 426-7678 사) 548-0486	(134-090) 강동구 상일동 176 효성빌라 3동 101호
성령봉사회	박 종 혁 (요 셉)	자) 373-1865	(120-120) 서대문구 남가좌동 281-8

'95 천주교 인천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직책	성명(영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H/ F/ O)	본당
지도신부	김 용 환 (요 한)	400-090	인천 중구 답동 3번지 가톨릭회관 사목국	765-6977 765-6962	교구청
회 장	김 건 일 (요 한)	402-110	인천 남구 연수동 우성A 104-1801	814-4324,524-7115 502-0028	동춘동
부 회 장	남 기 충 (루 가)	405-241	인천 남동구 만수1동 953-15 7/3	464-7713,762-1267 762-1266	만수1
부 회 장	장 경 남 (필로메나)	402-202	인천 남구 주안2동 557-11 51/2	873-5921	주안1
감 사	한 형 식 (요 셉)	403-010	인천 북구 부평동 738-2	522-0690	부평2
사무국장	강 춘 섭 (요 셉)	400-037	인천 중구 항동7가 27 라이프A 13-1103	883-9226	연안동
총무국장	오 영 환 (비 오)	403-011	인천 북구 부평1동 64-20 대림A 5-607	502-6000,(02)308-0070 (02)375-0541	부평1
기획부장	김 경 규 (토마스아퀴나스)	402-110	인천 남구 연수동 12 대우1차 A 103-202	811-2275,860-7150 860-7151	선화동
홍보부장	최 경 균 (안드레아)	402-042	인천 남구 학익2동 48-1 신동아A 32-107	862-6643,765-6985 761-6675	주안3
친교부장	송 병 현 (레 오)	405-245	인천 남동구 만수5동 905 효성상아A 3-1503	464-8624,433-8188 433-7176,011-342-7176	만수3
차 장	윤 석 조 (야 고 보)	404-250	인천 서구 가좌동 라이프A 405-1106	576-9190,012-811-9190 011-260-9190	가좌동
재정국장	이 영 구 (미 카 엘)	402-011	인천 남구 숭의1동 188-7 삼화건설(주)	884-3315,884-3334 883-0883,011-262-7748	숭의동
부 장	양 영 환 (세바스티아노)	422-040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우성A 10-801	321-1561 675-2800	상동
선교국장	김 기 태 (베 드 로)	402-206	인천 남구 주안6동 997-9 7/1	422-7636 886-8272	주안1
교육선교부장	홍 석 근 (바 오 로)	402-130	인천 남구 동춘동 34 금호A 101-701	813-3689 870-2038	송도
차 장	신 영 식 (베 드 로)	402-025	인천 남구 용현5동 한양1차A 2-806	885-9613,431-0043 431-0042	용현5
전례신심부장	이 광 형 (알 퐁 소)	405-231	인천 남동구 간석1동 900-12 25/2	435-7897 439-9199	간석4
차 장	김 유 인 (대건안드레아)	403-020	인천 북구 산곡동 261-8 경남A 502-1405	513-3068 510-7602	산곡3
공동체국장	강 준 섭 (요 셉)	400-037	인천 중구 항동7가 27 라이프A 13-1103	883-9226	연안동
가정사목부장	이 문 창 (비 오)	400-037	인천 중구 항동 7가 27 라이프A 9-1003	882-1354 011-261-9766	연안동
공동체 생활부장	이 병 달 (바 오 로)	402-110	인천 남구 연수동 우성A 112-202	816-5639 864-8804	동춘동
사회사업부장	고 인 길 (요 한)	402-024	인천 남구 용현4동 191-1	434-6735 864-6779	용현동
평협사무실	문 경 애 (카타리나)	404-252	인천 서구 가좌2동 현대A 6-1001	576-6079,765-6985 761-6675	가좌동

수원평협 '95년도 임원명단

직책	성명	세례명	본당	주 소	전화
지도신부	김영옥	가브리엘	교구청	장안구 화서동 100	44-5003
고 문	황백규	요 셉	조원동	장안구 영화동 342-9	45-4204
고 문	우건석	아우구스딩	지 동	장안구 우만동 현대A 17-104	211-7345
고 문	조태로	간 디 도	석수동	안양시 석수동 93-6	0343)71-3874
감 사	박원효	아우구스딩	북수동	장안구 팔달로2가 130-2	45-6180
감 사	천승홍	요 셉	대학동	안산시 본오동 879-14 대산BD 303	0345)419-3030 82-4522
회 장	박인환	베 드 로	상대원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691-1 Fax:0347-64-9286	0342)41-6769 0342)62-6041
부회장	박봉규	이냐시오	호계동	의왕시 오전동 339-1 금호주택 나동 102	0343)52-4330 012)216-9695
총무부장	이문수	마르티노	성남동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성원A 7-408 Fax:0342)755-0845 호출 012-806-2703	0342)754-2703 0342)751-4131
조직부장	김영덕	디모테오	대학동	안산시 일동 596-6	0345)419-2822 410-2621
조직차장	전명곤	알베르또	대학동	안산시 본오동 872 월드A 116-403	0345)407-5933 491-9555
재정부장	임봉규	바 오 로	상대원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 4404-3 Fax:0342-42-4105	0342)734-5919 신협 43-9975
홍보부장	김영숙	베로니카	호계동	안양시 호계1동 992-1 삼신A A-202	0343)53－7683
홍보차장	안태웅	바 오 로	조원동	장안구 정자2동 48-8	255-4643 253-6395
교육부장	박태홍	안드레아	장내동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우성A 110-105	0343)49-0734 02)511-3766
청소년부장	이무송	시 메 온	서둔동	권선구 서둔동 243-68	291-8520 02)579-5551
청소년차장	김남수	에로니모	북수동	팔달구 우만동 주공A 407-1102	38-5181 012-212-1806
선교부장	김석환	베 드 로	세류동	권선구 세류동 460 21/4	221-0077 #289/292-6215
행사부장	김도선	베 드 로	조원동	팔란구 매탄동 삼성1차A 3-109	212-4922 40-8595
사회부장	정형주	테오도르	신흥동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주공A 104-1502	0342)732-2038 0342)735-3133
사회차장	이준혁	요 한	조원동	장안구 조원동 746-1	251-0940 48-6950
여성부장	유복희	아 녜 스	분 당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B26-2BL 이매A(청구) 610-405	0342)703-1810
여성차장	이정숙	젬 마	권선동	팔달구 인계동 인계A 111-304	214-4276
간 사	김은경	젬 마	매교동	권선구 세류3동 1093-22 롯데빌라 가-B101	39-9274

원주교구 임원 명단

직 책	성 명	본 명	본 당	주 소	전 화
지도신부	김 한 기	시 몬	교구청	220-032 원주시 학성2동 원주주교관	0371)42-2235
회 장	이 계 열	아오스딩	태장동	220-122 원주시 태장2동 우성1차A 102-1102호	0371)42-6500
부 회 장	김 광 열	베 드 로	원동	220-060 원주시 원동 109번지 1/3	0371)42-4706
부 회 장	김 재 숙	아 네 스	일산동	220-010 원주시 중앙동 자유A 가동 604호	0371)42-6182
원주지구 부회장	이 석 범	베 드 로	일산동	220-010 원주시 중앙동3 동화상사	0371)42-3691
제천지구 부회장	김 방 수	미 카 엘	남천동	390-011 제천시 중앙로1가(부산직물)	0443)42-8800
영평점지구 부회장	김 장 락	베 드 로	함백	233-825 정선군 신동읍 조동1리 305 함백양조장	0373)78-7476
태백지구 부회장	송 은 영	바 오 로	황지	235-030 태백시 소도동 4/2 함태국민학교	0395)52-5254
영동지구 부회장	최 승 봉	도 마	성내동	245-010 삼척시 남양동 동화A 309	0397)72-1313
총무부장	신 현 구	미 티 아	단구동	220-110 원주시 개운동 410-6 10/6	0371)763-6492
총무차장	장 광 식	베 드 로	봉신동	220-081 원주시 봉산1동 1073-7 5/5	0371)45-2842
사목부장	정 영 식	요 아 킴	원동	220-010 원주시 중앙동 206 1/5	0371)44-7427
사목차장	이 재 범	아오스딩	원동	220-010 원주시 중앙시장 나동 10호 (청진상포)	0371)42-4794
전례부장	유 창 균	놀 벨 또	단구동	220-110 원주시 개운동 원흥3차A 301-702	0371)761-1803
전례차장	이 원 우	미 카 엘	일산동	220-100 원주시 단계동 단계A 17-304	0371)731-5008
사회선교부장	임 윤 청	비 오	태장동	220-122 원주시 태장2동 1378-13 8/2	0371)44-3563
사회선교차장	박 태 신	마 태 오	학성동	220-100 원주시 단계동 184-1 선호주택 1-109	0371)46-6737
교육부장	김 용 배	라 파 엘	단구동	220-090 원주시 단구동 동주A C동 303	0371)43-6847
교육차장	김 정 미	아 네 스	태장동	220-140 원주시 가현동 133-3 2/4	0371)43-1175
홍보부장	이 영 우	안드레아	원동	220-040 원주시 명륜동 547 삼성A 3-209호	0371)48-3672
홍보차장	김 중 명	데오도로	학성동	220-130 원주시 우산동 97-2 연식품	0371)42-5672
감 사	박 희 홍	이냐시오	횡성	225-820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303-2	0372)42-4077
감 사	김 방 수	미 카 엘	남천동	390-011 제천시 중앙동1가(부산직물)	0443)42-8800

대구교구 평협 상임위원 명단

직 위	성 명	세례명	주 소	전 화
회 장	손 인 호	프란치스꼬	(705-080)대구시 남구 대명동 989-6	직)425-3005 자)622-3223
부 회 장	정 만 진	유 스 티 노	(706-021)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652-8	자)753-3660
부 회 장	이 재 석	비 오	(713-900)경산군 하양읍 동서리 청구타운 103동 802호	직)50-3179 자)51-1591
부 회 장	김 춘	세 실 리 아	(704-400)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2차 보성맨션 206-1205	자)635-0009
감 사	백 옥 현	마 르 꼬	(705-023)대구시 남구 봉덕3동 대덕맨션 206-203	직)354-8221 자)472-3689
감 사	이 동 철	에 드 문 도	(706-014)대구시 수성구 범어4동 을지맨션 101-905	직)982-2901 자)753-1223
사 무 국 장	여 동 진	사 무 엘	(704-120)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아카시아 APT 205-211	직)255-5905 자)653-0982
기 획 분 과 위 원 장	권 국 명	알 로 이 시 오	(706-080)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19-3	직)256-5359 자)765-7973
선 교 분 과 위 원 장	배 기 원	알 퐁 소	(706-031)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 신세계타운 11-1502	직)752-0999 자)763-1158
전 례 분 과 위 원 장	김 재 석	베 드 로	(706-060)대구시 수성구 상동 115-6	직)761-1900 자)766-7085
교 육 분 과 위 원 장	재 정 민	프란치스꼬	(701-120)대구시 동구 방촌동 890-60	직)50-3333 자)982-1866
사 회 분 과 위 원 장	서 석 구	빈 첸 시 오	(706-040)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가든하이츠 202-901	직)752-0002 자)752-1739
지 역 분 과 위 원 장	조 세 덕	요 셉	(706-022)대구시 수성구 만촌2동 1036-25	직)752-9837 자)741-8609
청소년분과 위 원 장	라 정 홍	요 셉	(704-320)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920-4	직)583-3421~5
가 정 분 과 위 원 장	양 문 석	베 드 로	(705-039)대구시 남구 대명9동 907-1	직)622-4080 자)625-4080
문화홍보분과 위 원 장	류 시 헌	프란치스꼬	(706-022)대구시 수성구 만촌2동 1022-71	직)255-7903 자)754-3101
제1지구대표	박 인 재	아우구스띠노	(703-016)대구시 서구 평리6동 636-9	자)553-4433
제2지구대표	조 무 일	안 드 레 아	(702-061)대구시 북구 칠성1가 273-1	직)427-5375 자)424-6398
제3지구대표	여 동 진	사 무 엘	(704-120)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아카시아 APT 205-211	직)255-5905 자)653-0982
제4지구대표	마 정 용	알 퐁 소	(706-040)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우방1차 APT 5-501	직)753-1408 자)765-0088
제5지구대표	이 원 기	아 브 라 함	(790-051)경북 포항시 죽도1동 41-7	직)72-1919 자)74-1919
제6지구대표	김 진 우	바 오 로	(730-040)경북 구미시 형곡동 4주공 APT 409-406	직)461-1599 자)51-4797

마산교구 평협 임원 명단

직책		성명	세례명	본당	주소	전화번호	
						자택	직장
회장		손춘수	베드로	월남	마산시 중앙동2가 현대A 가-1101	46-6633	46-7000
부회장		박종필	요한	중앙	진해시 제황산동 28-35번지	548-3032	48-0142
		최덕성	요한	옥봉	진주시 수정동 18-10번지	41-4849	
		김시곤	베네딕도	완월	마산시 완월동 303-5번지	46-9456	44-3118
		이재아	비비안나	월남	마산시 해운동 동산A 102동 605호	48-7285	
상임위원		서경덕	루까	양덕	마산시 양덕1동 경남맨션 1-1102호	94-1406	89-1398
		문재선	루까	남성	마산시 남성동 142번지	46-5031	42-3109
		김항준	안드레아	사파	창원시 사파정 보월성원A 204-906	81-6552	55-0701
		이병한	안셀모	신안	진주시 평거동 현대2차A 201-403	746-3884	41-3290
		심병직	파스칼	완월	마산시 중앙동2가 현대A 가-306호	46-5450	46-3847
		박용기	필립보	사파	창원시 신월동 은아A 116-101	84-1764	94-5271
		최명길	안드레아	가음정	창원시 남양동 롯데A 5동 303호	61-3477	43-2513
감사		김종만	바오로	산호	마산시 산호1동 323-1번지	46-3862	42-8965
		송주엽	요셉	반송	창원시 반림동 현대A 213-302호	84-6520	85-3183
분과위원장	기획	김철	베네딕도	월남	마산시 자산동 평화궁전맨션 506호	46-8433	42-4411
	교육	최의식	마르띠노		창원시 도계동 대남상가빌라 508호	55-4083	46-8337
	사회	김홍양	프란치스꼬	완월	마산시 신창동 10-7번지	23-5338	92-9911
	홍보	문재선	루까	남성	마산시 남성동 142번지	46-5031	42-3109
	여성노인	이재아	비비안나	월남	마산시 해운동 동산A 102동 605호	48-7285	
사무국	국장	김철	베네딕도	월남	마산시 자산동 평화궁전맨션 506호	46-8422	42-4411
	차장	강창희	이레네오	성남	마산시 오동동 107-23번지	42-2307	46-0902

천주교 부산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총 재	이 갑 수 (가 브 리 엘)	자)465-6230	(600-094) 중구 대정동 4가 81(부산 교구청)
지 도 신 부	최 영 철 (알로이시오)	자)465-6231	(600-094) 중구 대청동 4가 81(부산 교구청)
고 문	강 준 모 (갈 디 노)	자)622-8933 직)621-2311	(608-023) 남구 대연3동 산 29 대연성모병원
	권 종 근 (요 한)	자)515-8123 직)462-1284	(609-310) 금정구 구서동 1015 선경Apt 306동 510호
	남 규 일 (데 오 로 도)	자)82-0670	(607-082) 동래구 연산2동 효성맨션 311호
	장 혁 표 (아타나시오)	자)510-1347 직)510-1101	(609-390) 금정구 장전동 산30 부산대학교 총장실
	김야지(마리아)	자)56-1435	(609-391) 금정구 장전1동 147-2
회 장	한 재 금 (베 드 로)	자)804-4044 직)515-5811	(614-070) 진구 인지동 172 일동Apt 1008호
부 회 장	이 강 석 (미 카 엘)	자)623-4474 직)322-6415	(608-011) 남구 남천1동 화목맨션 2동 205호
	김 양 희 (레 지 나)	자)202-0802 직)246-6864	(600-061) 중구 신창동 1가 23
사 무 국 장	김 해 길 (예 로 니 모)	자)247-3839 직)465-6530	(602-023) 서구 남부민 3동 611-321 9/2
총 무 부 장	박 만 수 (벤 라 디 노)	자)868-6752 직)646-8356	(607-073) 동래구 거제3동 38-45 경남Apt 6동 909호
조 직 부 장	김 기 호 (F 사 베 리 오)	자)897-5515 직)521-3581	(614-103) 진구 당감3동 삼익Apt 11동 803호
교 육 부 장	하 진 (젤 마 노)	자)582-0927 직)645-4302	(609-391) 금정구 장전1동 221-11 12/5
재 정 부 장	류 무 환 (임 마 누 엘)	자)851-1007 직)802-4339	(607-082) 동래구 연산2동 1323-8 18/3
봉 사 부 장	장 주 표 (베 네 딕 도)	자)781-9876 직)751-9811	(612-062) 해운대구 반이2동 1291-1052(4/4) 186호
부 녀 부 장	박 남 숙 (마 리 아)	자)555-0220	(607-040) 동래구 낙민동 한신Apt 6동 302호
감 사	김 상 원 (요 셉)	자)897-0026 직)897-0011	(614-080) 진구 초읍동 선경맨션 1동 701호
	이 정 희 (베 드 로)	자)469-4294 직)469-6035	(600-111) 중구 영주1동 636-1 일신맨션 101호
위 원	김 은 수 (베 드 로)	자)895-6626 직)801-7603	(614-104) 진구 당감4동 삼익Apt 2동 818호
	김 진 기(루 가)	자)646-3008	(614-021) 진구 범천1동 719-4(성가병원)
	박 승 진 (아우구스티노)	자)862-7336 직)460-3610	(607-073) 동래구 거제3동 728-1 대원Apt 310호
	박 봉 학 (공 사 가)	자)893-2079 직)892-7454	(614-013) 진구 가야3동 345-6 6/1

청주교구 평협 상임위원 명단

직 책	성명(본명)	주 소	전 화
회 장	박 종 구(베 드 로)	청주시 내덕동 296-18	자:0431)223-0892
부 회 장	양천진(에드워드)	청주시 사창동 357-77	직: 55-1600 자: 66-1303
	손영배(임마누엘)	청주시 탑동 92-167 연립 109호	자: 55-8834
	권 명 자(로 사)	청주시 서운동 33-6 6/1	자: 223-0502
사 무 국 장	오장수(원선시오)	청주시 사직2동 604-66 6통 2반	직: 67-3535 자: 64-2345
총 무 부 장	변광수(암브로시오)	청주시 율량동 럭키A 3/605	자: 212-1151
선 교 부 장	박 명 순(미 카 엘)	청주시 봉명동 90-44 삼성A 1/402	직: 61-8300~1 자: 62-9387
사회복지부장	최 낙 권(루 수)	청주시 대성동 5번지 우성A 108/502	직: 54-2265~6 자: 56-3325
여 성 부 장	정 창 순(루 시 아)	청주시 금천동 풍림A 102-1006	직: 55-5150 자: 222-6104
전 례 부 장	박 찬 수(요 셉)	청주시 개신동 현대A 102-804	자: 274-8147
청소년부장	경한석(아오스딩)	청주시 우암동 327-17	직: 68-7484 자: 223-1453
	정종락(프란치스코)	청주시 내덕2동 388-3	자: 55-6255
	김 동 기(도 밍 고)	청주시 수동 351-5	자: 52-7820
	연 규 복(바 오 로)	청주시 사직2동 벨라맨션 C-102	직: 55-5584 자: 64-4361
	송문호(루도비꼬)	충주시 충의동 113-4	직: 0441)62-3230 자: 847-4854
	음 재 승(미 카 엘)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250	자: 0445)32-2849
	여만구(니고메토)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363-6	직: 0414)43-2869
	권 수 한(라 파 엘)	개산동 삼익A 105-604	자: 0431)66-7433 직: 61-2287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직 책	성 명	본 명	전 화	주 소
총 재	이병호	빈 첸 시 오	85-0041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0-6
지도신부	유장훈	요 셉	85-0041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0-6
회 장	황의옥	파 로	77-3366	전주시 태평동1가 8-121(가나약국)
부 회 장	엄익도	시 몬	221-3839	전주시 효자동1가 564-4(엄소아과)
	김형렬	바 오 로	72-6373	전주시 거성 경기장A 가/203
	김연준	레 미 지 오	77-2127	전주시 인후동 한양운남맨션 B/2002
	고홍석	요 한	72-4708	전주시 송천동 한양A 108-203
	이정자	글 라 라	74-5741	전주시 덕진동1가 1436-9
상임위원	고신해	가 시 미 로	855-5069	이리시 인화1동 116(사해주단)
	고홍석	요 한	72-4708	전주시 송천동 한양A 108/203
	민병부	스 테 파 노	84-2863	전주시 동서학동 264-4
	양순용	글 레 멘 스	33-3050	남원시 쌍교동 140-20
	염광섭	바 오 로	74-5855	전주시 서노송동 660-51
	이명행	요 셉	87-9223	전주시 전동3가 87-1
	장현순	루 가	856-6600	익산군 황등면 시서
	조윤식	요 한	547-2717	김제시 요촌동 293
	한상갑	바 오 로	223-4523	전주시 삼천동1가 광진궁전A 7/707
	함영태	아 오 스 딩	445-6411	군산시 장미동 2-36
감 사	이영태	요 셉	84-5600	전주시 동완산동2가 376-2
	황희상	F. 사 베 리 오	84-5694	전주시 서완산동 2가 76-5
사무국장	김응택	베 드 로	241-6789	전주시 우아3가 599 우신A 3/108
사무국차장	한귀석	바 오 로	223-7969	전주시 효자동1가 552-2
사무국차장	권영옥	다 니 엘 라	88-0181	전주시 효자동1가 37-7
기획부장	오중원	아 오 스 딩	76-1682	전주시 진북동 현대A 305
청소년부장	한귀석	바 오 로	223-7969	전주시 효자동1가 552-5
연구부장	이태영	대건안드레아	223-1445	전주시 효자동 광진 진주A 3/201
사회복지부장				
전례부장	이주철	야 고 버	82-0845	전주시 서서학동 51-3(3층) 3/1
교육부장	함권술	다 미 아 노	241-1462	전주시 호성동 우신A 2/408
여성부장	권영옥	다 니 엘 라	88-0081	전주시 효자동 1가 37-7
선교부장	이중호	디 모 테 오	212-6686	전주시 팔복1가 거성A 4/302
홍보부장	정지영	요 셉	241-1462	전주시 인후동2가 754 현대A 101-806

한 국 평 협 통권 제 32 호

발 행 일 / 1995년 2월 25일
발 행 인 / 이관진 베드로
편 집 인 / 한국평협 홍보분과 위원회
편 집 위 원 / 최홍준 · 김영걸 · 김송현
사식 · 인쇄 / 도서출판 오늘의 말씀사
☎ 277-4776 Fax 268-7007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서울 · 중구 명동 2가 1 가톨릭회관 5층
☎ 777-2013, 757-7851, 771-76 교) 2454.2455, Fax 778-7427

ew-Life People

세계인의 오디오

SHARP

주식회사 한국샤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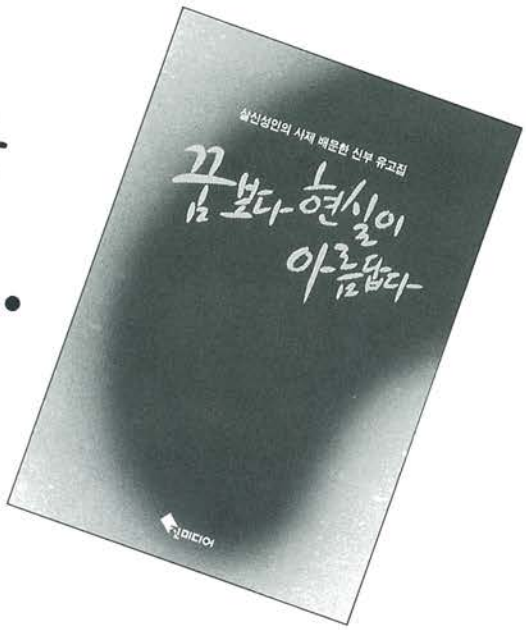
본사 : 인천시 북구 효성동 410-20

영업부직통 : (032)519-3990~7

살신성인의 사제 배문한 신부 유고 에세이집

꿈보다 현실이 아름답다

배문한 신부님! 또다시 불러보고 싶은 이름입니다



꿈보다 현실이 아름답다.
거센 비바람이 불어도, 모진 눈보라가 닥쳐도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으셨던
고 배문한 신부님의 영원한 삶에
뿌리내린 확고한 믿음과 사랑 이야기 –
독자 여러분은 이 책에서 끝내 죽음마저 이겨내시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해맑게 웃으시는 신부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기전의 마지막 모습

지난 7월 31일 인천계산동 노틀담 수녀원에서 마련한 회갑연을 마치고 수녀님들과 함께 하는 모습

배문한 신부님, 또다시 불러보고 싶은 이름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싶은 분은 이 책에서 그분의 일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김남수 주교–

구수한 이야기처럼 조용하게 흐르는 이 글은 하늘로부터 오는 폭포수 같은 말씀으로 하느님 사랑을 이야기한다.

–박석희 주교–

사랑의 전파와 실천을 강조해 온 고인의 신앙과 철학, 그리고 사제로서 삶의 궤적들이 진솔하고 단아한 필체에 담겨 감동을 준다.

–동아일보–

신과 사람에 대한 절실한 사랑의 감정이 짧은 문장에 담겨 다습게 전해진다.

–한겨레 신문–

도서출판 신미디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63-15 다산빌딩 5층
TEL : 3461-3347, FAX : 529-8274

• 신국판/ 300쪽/ 값 6,000원